

전략연구 2014-41

홍동 유기농업의 형성과 변천

김기흥

발 간 사

홍동 유기농업의 형성과 변천을 모은 연구서가 드디어 발간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메카로 알려진 홍동은 그 명성에 걸맞게 풀무학교와 수많은 협동조합, 마을기업들이 한데 어우러져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홍동마을이 위치한 홍성 지역과 충남을 넘어 우리나라 전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수많은 사람이 홍동의 사례를 보고 배우기 위해 직접 찾아오기도 합니다.

1970년대 중반이라는 이른 시기에 유기농업을 시작하여 폭넓은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홍동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활동들에 비해 유기농업에 대한 기록이 많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기농업에 대한 배경과 실태, 실천현황,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물론이며, 이 곳에서 실제 거주하며 유기농업을 접하고 시작하게 된 토착농민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유기농업 실천에 동참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동안 이런 이야기를 정리하는 작업이 부족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연구원은 홍동의 작은 이야기가 유기농업의 큰 미래를 기대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번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날에 이른 홍동마을의 많은 활동과 노력의 흔적을 담기에는 부족하겠지만, 이 시작이 이후 거대한 작업을 이루는 단초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홍동마을의 다양한 활동들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찾는 작업은 단순히 기록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홍동마을의 선진 사례들이 곧 충남의 여러 지역의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들에게도 참고가 될 것이며, 이것은 다시 국내 농업과 농촌이 처한 현실에 대한 작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의 책임자인 김기홍 박사를 비롯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연구에 아낌 없는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김 호 교수님과 김성훈 교수님, 양장목 충청남도 친환경 농산팀장님, 윤독을 맡아주신 홍승지 교수님, 박정환 박사님, 원내 송두범 박사님과 여형범 박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수행은 홍동마을의 주형로 회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농가들과 여러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그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 2월 27일

충남연구원장 강 현 수

연구요약

제1장 서론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홍동의 유기농업은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홍동의 유기농업 자체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는 홍동의 다른 영역에 비해 소홀한 편이다. 이에 홍동의 유기농업 초기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그 내용을 바탕으로 유기농업의 형성과 변천과정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간의 홍동 유기농업의 경험과 실천의 특징 및 앞으로의 해결 과제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검토

이론적으로는 홍동 유기농업이 갖는 의미에 대해 센의 케이퍼빌리티와의 관련성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유기농업이란 단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쓰지 않는 농법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커뮤니티를 포괄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미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생산비와 생산량과 같은 정량적인 접근 방법이 아닌 농가 개인의 유기농업에 대한 이해와 가치라는 정성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정책적 제언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기농업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케이퍼빌리티 어프로치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초창기 홍동 유기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정리하고, 관련 정보를 이용해 홍동 유기농업의 의미를 케이퍼빌리티 어프로치를 통한 이론적인 고찰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 홍동 유기농업의 변천과정

홍동면 문당리 문산마을의 유기농업 초기 개별 농가들의 조사를 통해 홍동 유기농업의 역사와 당시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 홍동의 유기농업은 태동 당시의 ‘환경과 건강에 대한 우려’, 그로부터 시도된 ‘농약과 화학비료를 대신하기 위한 노력들’, 그러한 과정 중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단합을 중심으로 한 유기농업의 지속적인 실천’, 그리고 그 결과로서 ‘홍동 유기농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로 이어져 현재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

다.

홍동마을은 유기농업 초기인 1975년에 위와 같은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충분한 정서적인 기반을 갖추었다고 평가되지만, 구체적인 효과는 이와 같은 공통의 가치 및 정서가 구조화된 후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지역의 정서적 기반은 풀무학교와 정농회, 협동조합 등과 같은 다양한 자생적인 단체들로 구체화 및 가시화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형성, 변천을 거치며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 또한 90년대 중반 오리농법과 흑미의 도입은 초창기 멤버들의 다양한 노력들이 커뮤니티 전반으로 퍼지게 되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나아가 홍동 유기농업의 급격한 성장에 전기를 마련하였다.

홍동의 유기농업의 변천과정은 ‘지역커뮤니티의 공통된 가치 및 이해의 형성’ - ‘공통된 가치가 자생 단체의 형태로 구체화 및 구조화’ - ‘조합 형태의 자생 단체들의 구조화된 기능(functioning)의 구현’ - ‘구조화된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유기농법의 시연’이라는 전개를 보인다. 이와 같은 전개과정에서 두드러지는 특성은 각각의 단계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이 각각의 이전 단계에 형성된다는 점, 그리고 전개 과정 전체를 아울러 커뮤니티의 공통된 가치 및 이해가 전제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은 홍동에서의 성공적인 유기농업 정착을 설명하고, 타 지역 실패사례를 고찰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고령화와 후계자문제에 의해 유기농업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임은 홍동의 문당리에서도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제4장 홍동 유기농업의 특징 및 과제

홍동의 초기 실천 농가간의 마을공동체적 요소인 ‘단합’은 유기농업에 대한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실천을 가능하게 하였다. 나아가 생산자와 소비자 간, 그리고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연대는 홍동 유기농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유지의 가장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다. 제3장에서 설명된 홍동 유기농업의 변천과정의 각 단계들은 이와 같은 무형의 가치 및 이를 통한 마을과 농가 간의, 그리고 생산자-소비자 간의 단합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며, 따라서 홍동 유기농업 체계의 지속 여부 또한 이와 같은 무형의 기반이 얼마나 공고하게 유지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동의 가치를 형성한 환경보전과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그것을 성취해낸 큰 자부심은 홍동 지역을 나타내는 키워드라고 하겠다.

향후 과제로서는 농법적 차원에서만 거론될 수 없는 오리농법의 다원적 가치와 정서 및 교감, 교육적 역할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고령화 되어 가는 홍동의 농가들의 뒤를 이을 후계자 문제를 홍동 지역의 무형적 기반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귀농정책과 함께 고민할 것인지 그리고 소비자와의 교류와 관련하여 홍동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과 외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을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왜 홍동에서는 1970년대 후반이라는 이른 시기에 유기농업이 시작될 수 있었고, 또 여러 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그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 속에서 현재에 이를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홍동의 유기농업이 선진적 사례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홍동은 오리농법과 흑미의 도입이라는 과정을 거쳐 농가 간에 하나로 뭉치고자 했던 단합, 즉 마을공동체가 큰 역할을 하였으며 홍동 유기농업의 주체인 생산자들이 주도가 되어 이루어 낸 도시민과의 결합과 연대가 큰 몫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책적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지속시켜가기 위한 노력과 오리농법이 충남 브랜드 가치와 지역 이미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후계자 문제와 귀농정책과의 결합, 마지막으로 보다 더 현장에 밀착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함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내용	3
3) 연구방법	4
제2장 이론적 고찰	5
1. 이론적 검토	5
1) ‘케이퍼빌리티’의 개념	5
2) 정보의 제한	7
3) 누스바움의 케이퍼빌리티 리스트	9
4) 불완전순서	11
5) 케이퍼빌리티와 흥동 유기농업 연구의 관련성	12
2. 선행연구 고찰	13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4
제3장 흥동 유기농업의 형성과 변천과정	15
1. 흥동 유기농업의 시작(1970년대 중반~)	15
1) 유기농업의 계기와 애농회	16
2) 유기농업의 실천과 풀무학교	20
3) 유기농업의 확대와 협동조합 및 농가조직	24
2. 흥동 유기농업의 성장(1990년대 중반~)	28
1) 오리농법의 도입과 도시민과의 교류	29
2) 오리농법의 확산과 흑미의 도입	39
3) 오리농법의 정체와 오리의 상징성	48

3. 사례연구: 홍동면 문당리 문산마을	55
1) 개요	55
2) 조사 결과	60
4. 소결	76
제4장 홍동 유기농업의 특징 및 과제	79
1. 유기농업의 개념과 발전 과정	79
1) 유기농업의 개념	79
2) 국내 유기농업 발전 과정	81
3) 일본 유기농업 발전 과정	83
4) 연대를 위한 세계적인 움직임	86
2. 홍동 유기농업의 특징	88
1) 지역공동체: 단합	88
2) 소비자와의 연대	90
3) 지역환경과 안전한 먹거리	91
3. 홍동 유기농업의 과제	92
1) 오리농법	92
2) 후계자 문제	94
3) 소비자와의 교류	96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99
1. 결론	99
2. 정책제언	101
참고문헌	105

표 목 차

<표 2-1> 기초적 기능의 예	7
<표 2-2> 복잡한 기능의 예	8
<표 2-3> 인간의 중심적인 기능적 케이퍼빌리티	9
<표 3-1> 흥동 유기농업의 시작과 관련한 활동	16
<표 3-2> 정농회 흥성지회 사업(1991년)	18
<표 3-3> 정농회 흥성지회 활동 계획(1992년)	19
<표 3-4> 풀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5
<표 3-5> 흥동 유기농업의 성장과 관련한 활동	28
<표 3-6> 오리 보내주기 운동 신문기사	31
<표 3-7> ‘오리 보내주기 운동’ 참여 도시민에 대한 감사 편지	32
<표 3-8> 도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 안내문	32
<표 3-9> 도농일심 행사 감사 편지	35
<표 3-10> 오리 보내주기 행사 안내	36
<표 3-11> 무농약 재배 오리농법 쌀 포장 내용	38
<표 3-12> 유기농 재배 오리농법 쌀 포장 내용	38
<표 3-13> 오리농법의 실시 내용(1994~2000년도)	40
<표 3-14> 2000년도 유기농 쌀 계약처(단위: 가마니)	40
<표 3-15> 2000년도 오리쌀 생산자를 위한 오리 입식지원자금 증서	41
<표 3-16> 관행 및 무농약, 유기 재배의 벼농사 소득 비교(1999년)	42
<표 3-17> 관행 및 무농약, 유기 재배의 벼농사 비용 비교(1999년)	42
<표 3-18> 2000년과 2002년 흥성 오리농 작목회 농가수 및 면적	44
<표 3-19> 2005년과 2015년 흥성 오리농 작목회 농가수 및 면적	45
<표 3-20> 전국 오리농법 실천 농가수 및 면적	46
<표 3-21> 오리농법의 특징	48
<표 3-22> 오리농법의 효과	49
<표 3-23> 오리농법 영농일지(1998년)	51
<표 3-24> 흥성 오리농 작목회 친환경농산물 표시 사용 신고서	52
<표 3-25> 문산마을 조사 대상의 나이 및 인증 면적과 재배량(단위: 평, kg)	59
<표 4-1> 1990년대 이후 친환경농업 관련 추진 정책	82

그림 목 차

〈그림 3-1〉 초창기 정농회 회원들(정농회 제공)	18
〈그림 3-2〉 1990년 직거래운동 교육 사진(2014 우리마을 발표회 중에서)	27
〈그림 3-3〉 1993년 가을걷이 행사(환경농업교육관 제공)	27
〈그림 3-4〉 1999년 도농일심 오리 넣기 행사(홍성환경농업교육관 제공)	33
〈그림 3-5〉 2001년 도농일심 오리 넣기 행사(홍성환경농업교육관 제공)	33
〈그림 3-6〉 2003년 도농일심 오리 넣기 행사(홍성환경농업교육관 제공)	33
〈그림 3-7〉 2006년 도농일심 오리 넣기 행사(홍성환경농업교육관 제공)	33
〈그림 3-8〉 1995년 도농일심 교류회(홍성환경농업교육관 제공)	34
〈그림 3-9〉 2003년 도농일심 교류회(홍성환경농업교육관 제공)	36
〈그림 3-10〉 홍동 오리쌀 브랜드	37
〈그림 3-11〉 홍동농협	39
〈그림 3-12〉 홍동 오리들(환경농업교육관 제공)	48
〈그림 3-13〉 친환경농산물 표시 팻말	52
〈그림 3-14〉 홍동의 유기농 논과 오리 모습(2014년)	54
〈그림 3-15〉 홍동면 지도	56
〈그림 3-16〉 홍동면 문산마을의 여름과 겨울	57
〈그림 3-17〉 문산마을 노인회관과 찜질방	58
〈그림 3-18〉 문산마을 노인회와 부녀회 회원들	60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홍동의 유기농업은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특히 1990년대에 도입된 오리농법이 전국적 유명세를 타며, 충남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유기농업을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2000년대에는 마을만들기 요소로 전환되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졌다. 현재는 풀무학교를 시작으로 여러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실천을 통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은 역시 유기농업이라고 하겠다.

연간 1만 여명의 방문객이 홍동마을을 찾고 있으며 많은 농가들이 유기농업을 배우기 위해 홍동의 유기농업에 대한 강의를 듣고 선진 견학을 하고 있다. 유기농업을 하면서 홍동마을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홍동마을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홍동 유기농업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 배우려고 하는 것이며 홍동의 유기농업이 성공한 사례라고 한다면 어떤 요소들 때문인 것일까. 애초에 이러한 홍동의 유기농업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일까.

지금까지 마을 단위에서 실천되고 있는 홍동 유기농업 자체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는 홍동의 다른 영역에 비해 소홀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홍동의 유기농업에 초점을 두고, 당시의 유기농업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를 바탕으로 홍동 유기농업의 형성과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간의 홍동 유기농업의 경험과 실천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은 충남 유기농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위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흥동 유기농업의 형성 및 변천과정을 알아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사전 자료 조사를 통해 흥동 유기농업과 관련한 1970년대, 80년대 초창기의 많은 자료들이 소실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농가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초창기 유기농업을 시작한 농가들이 이미 고령화에 접어들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해내는 일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제라도 1970년대를 시작으로 80년대, 90년대에 농사를 짓기 시작한 농가들의 기록을 남기는 일은 흥동마을 내에서도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기록은 흥동 지역 자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역사와 발전과정의 측면에서도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흥동마을 전체에 대한 유기농업의 이야기는 여러 매체를 통해 산발적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유기농업을 실천했던 농가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유기농업을 해왔는지 밝혀진바 없다. 이에 실천농가들 자체에 초점을 두고 그들이 실천해온 유기농업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흥동 유기농업의 형성 및 변천과정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론적으로는 케이퍼빌리티 어프로치를 바탕으로 하여 이러한 관점이 왜 흥동 유기농업의 형성과 변천과정을 밝혀내는데 필요한 것인지 그 관련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국 흥동의 사례가 충남의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기농업 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향후 유기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정책적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1970년대 중반 홍동 유기농업의 시작점에서부터 1990년대 오리농법과 흑미의 도입 시기로 변천해가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공간적 범위: 홍성군 홍동면
- 연구 대상: 홍동면 초창기 유기농업 실천 농가 및 홍동면 문당리 문산마을 오리농업 작목반 농가¹⁾
- 연구 방법: 일대일 인터뷰 방식의 면접 조사와 문헌 자료 연구

2) 연구내용

- 이론적 고찰
 - 홍동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 개인의 유기농업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кей퍼빌리티라는 이론적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함
- 홍동 유기농업의 형성과 변천과정 분석
 - 개개 농가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그들에게 있어 유기농업은 무엇인지, 어떠한 유기농업이 이루어졌는지 등 유기농업의 형성과 변천과정을 분석하고자 함
- 홍동 유기농업 사례분석을 통한 충남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 홍동 유기농업의 특성과 과제를 알아봄으로써 충남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보하고자 함

1) 홍동에는 유기농업에서 확장된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 전에 홍동 지역의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 분들의 도움이 바탕이 되어 본 조사가 가능하였으며 그러한 분들의 활동이 모두 큰 의미를 담고 있음은 말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한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었음을 미리 양해드리고자 한다.

3) 연구방법

○ 현장밀착형 인터뷰 조사

현장 방문을 통한 심층 인터뷰 조사를 기본으로 하여 농가 개인의 유기농업의 역사와 유기농업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방향의 인터뷰 조사가 실시되었다.

첫째, 홍동면 전체에서 유기농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에 한정을 두지 않고 1970년대 당시 유기농업을 시작하고 실천한 농가와 당시 홍동마을에서 활동하면서 유기농업의 상황을 알고 있는 관련된 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²⁾.

둘째, 실제로 오리농법이 처음으로 시작되고 널리 확산되었던 마을 단위의 토착농가들은 유기농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해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문당리를 선택하여 오리농업 작목반 단위인 문산마을 농가들을 대상으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³⁾. 이들 가운데서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를 인터뷰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 중 총 20명의 농가와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홍성환경농업교육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농가 리스트(1999년)에 올라와 있는 농가
- 당시 유기농업을 실천했던 농가
- 현재도 문당리 문산마을에 살고 있는 농가

○ 이론에 기반한 연구

이론적으로는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의 케이퍼빌리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홍동 유기농업이 갖는 의미에 대해 케이퍼빌리티와의 관련성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2) 처음부터 이러한 분들을 한정하기란 쉽지 않았고 한 분을 소개받아 인터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분을 소개받아 인터뷰 조사 대상이 확대되어 갔다.

3) 이는 지역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기본 단위를 '자연부락' 즉 마을이라 여겼기 때문이며 그 가운데서도 오리농 작목반은 마을 단위로 조직되어 있다.

제2장 이론적 고찰

1. 이론적 검토⁴⁾

1) '케이퍼빌리티'의 개념

유기농업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쓰지 않음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생산자 본인은 물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유기농업은 기존의 농업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평가해오던 대로 생산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제대로 평가되어질 수 없으며, 이것이 유기농업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또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는 유기농업을 통해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해 왔다. 이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척도인 케이퍼빌리티 어프로치(Capability Approach)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면에서 유기농업은 케이퍼빌리티 어프로치를 통해 평가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들이 소득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에 의해 재화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며, 재화를 구입하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손에 넣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음식을 소유하는 것에 의해서 사람은 굶는 것을 피하고 영양을 섭취하며 먹는 즐거움을 얻어내고 사교적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음식물이 가지는 모든 특성을 손에 넣을 수 있다' (Sen 1988, p.21). 이처럼 재화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무언가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능(functioning)' 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자전거가 가지고 있는 '운송성' 이라고 하는 특성은 그 사람이 실제로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한다' 라고 하는 기능으로 연결된다. 반대로 자전거를 탈 수 없다면 '이동한다' 라고 하는 기능은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사람은 재화에서 직접 효용

4) 본 연구의 이론적 검토는 본 연구자의 박사논문(2009)의 기본적인 이론적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이를 재구성하여 집필한 것이다.

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재화를 이용한 결과, 효용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단 하나의 재화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화를 가지고 있다. 이를 재화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재화 벡터를 사용함으로써 효용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는 재화 벡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재화 벡터의 이용 방법에 따른 기능 벡터는 집합의 형태로 표현된다. 이러한 기능 벡터의 집합을 ‘케이퍼빌리티’ 라고 부른다. 소득은 어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에 대한 지배권(권한)을 말하는 것으로 그 지배권의 범위 안에서 사람은 다양한 조합의 재 벡터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한 다양한 재의 조합에서부터 기능 벡터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기능 벡터의 집합을 케이퍼빌리티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서 케이퍼빌리티란 사람이 ‘달성가능한 기능의 다양한 조합’(Sen 1999, p.75)을 말한다. 즉 ‘무엇을 할 수 있는가 (doing)’,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being)’의 선택지의 폭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케이퍼빌리티는 인간의 자유를 나타내고 있다. 개발이 자유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Development as Freedom)라는 것은 다양한 선택지를 늘임으로써 인간 생활이 나아져 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약하면 케이퍼빌리티란 인간 삶의 모습의 좋음을 다루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한편 효용은 최종적으로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것이 효용을 최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케이퍼빌리티로 표시되는 선택사항에 대해 사람은 각각의 평가를 하게 된다. 그 평가는 효용과는 다르다. 더욱이 사람은 가장 높게 평가해야 하는 것을 선택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여기서의 평가는 자기 자신의 Well-being에 관한 평가이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Well-being을 최대화하도록 행동한다고 할 수 없다. 자신의 Well-being을 희생해서라도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 이를 ‘Agency’라고 한다. 노동의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환경을 위해서는 유기농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된다.

이것은 선택 가능한 선택 사항과 실제로 선택한 선택 사항 사이에 갭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먹을 것이 충분히 있는데도 단식을 하는 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충분히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두 가지인데 그 가운데 단식을 선택한 것이 된다. 효용 측면에서 따지자면 ‘충분히 먹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평가가 높지만 실제로 택한 것은 평가가 낮은 ‘먹지 않는 것’이 된다. 이것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인 ‘먹지 않

는 것’이라는 유일한 선택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선택 가능한 선택지(케이퍼빌리티)와 선택한 선택지(실현한 Well-being)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소박한 생활을 선택한 사람들은 케이퍼빌리티의 면에서는 가난하다고 할 수 없다.

2) 정보의 제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케이퍼빌리티란 사람이 ‘달성 가능한 것 (doing)’, ‘되는 것 (being)’을 나타내고 있다. 사람의 케이퍼빌리티를 측정하기 위한 이러한 정보량은 손에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을 누리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보는 제한된 것에 그친다. ‘케이퍼빌리티 어프로치는 평가를 위한 적절한 기능을 특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평가에 이용이 가능한 모든 기능이 (평등하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더라도)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Sen 1999, pp.45-46). 센이 평가에 쓰여야 하는 기능으로서 제시하는 ‘기초적 기능’은 표2-1과 같다.

〈표 2-1〉 기초적 기능의 예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것2. 피할 수 있는 병에 걸리지 않을 것3. 너무 이른 죽음을 회피할 것4.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5. 비바람을 피할 거주지가 있을 것 |
|--|

출처: Sen(1992, pp. 39~40)

이러한 것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적인 기능만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이 가능할지 없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 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이기도 해야만 하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언급한 기초적인 기능의 예는 강제수용소와 같은 곳에서 자유를 빼앗기고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문화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측면들이 자유와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센은 ‘복잡한 기능’ 이라고 부르고 있다(표2-2).

〈표 2-2〉 복잡한 기능의 예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 2. 자존심을 가질 것 3. 지적수준을 향상시킬 것 4.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가질 것 5. 행복할 것 |
|---|

출처: Sen(1992, pp. 39~40)

여기에서 제시한 것은 복잡한 기능의 하나의 예에 불과하며, 국가나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러한 기능의 내용은 다를 수 있다. 윤택한 삶이란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과 복잡한 기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생활을 의미하며, ‘발전(Development)’ 이라는 것은 이러한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반대로 ‘빈곤’ 이라는 것은 충족되어야만 하는 기본적인 기능이나 복잡한 기능 가운데 어떠한 부분이 결여된 상태를 말하며, 따라서 ‘불평등’ 이란 ‘인간다운 삶’ 을 위해 기본적으로 만족되어야만 하는 기능이 만족된 사람과 만족되지 못한 사람 간의 격차를 말한다.

이러한 기능에는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기능은 그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란 선택지의 수가 늘어나는 것’ 이라고 말하는 것은 각각의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3) 누스바움의 케이퍼빌리티 리스트

이러한 케이퍼빌리티를 리스트화 하는 것에 대해 센은 적극적이지 않았다. 센은 기초적인 기능과 복잡한 기능에 대해 몇 가지 예를 제시했을 뿐이다. 모든 곳에 적용되는 리스트라는 것을 제시하는 순간 또 다시 케이퍼빌리티가 필요했던 초기의 문제의식에 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문제에 따라 기능의 내용은 다시 검토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센은 케이퍼빌리티를 하나의 어프로치로 표현했을지 모른다. 비판적이고 내성적인 평가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안이한 리스트화는 비판적이고 내성적인 속고를 방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센이 리스트를 제시했으면 하는 사람들도 많다. 센과 함께 케이퍼빌리티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누스바움(Nussbaum)은 정치학자로서 정치목표가 되는 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표 2-3).

〈표 2-3〉 인간의 중심적인 기능적 케이퍼빌리티

-
1. 생명 : 정상적인 길이의 인생을 끝까지 누리는 것이 가능할 것. 인간이 살만큼 살기 전에 일찍 죽지 않을 것
 2. 신체적 건강 : 건강할 것(생식에 관한 건강을 포함).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고 있을 것. 적절한 주거에서 살고 있을 것
 3. 신체적 보전 :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가능할 것. 주권자로서 다루어지는 신체적인 경계를 가질 것. 다시 말해 성적 폭력, 아이에 대한 성적 학대, 가정 내 폭력을 포함한 폭력에 대한 위협이 없을 것. 성적 만족의 기회나 생식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선택의 기회를 가질 것
 4. 감각, 상상력, 사고 : 이러한 감각을 사용할 수 있을 것.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읽고 쓰는 것이나 기초적인 수학적 과학적 훈련을 포함하여(물론 이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교육에 의해 자라난 '실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것이 가능할 것. 자기의 선택과 종교, 문학, 음악 등 자기 표현의 작품이나 활동을 행함에 있어 상상력과 사고력을 작용할 수 있을 것. 정치나 예술 분야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됨에 따라 보호된 형태로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 즐거운 경험을 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피할 수 있을 것

5. 감정: 자신의 주위의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애정을 가질 수 있을 것. 우리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 이러한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 통탄할 수 있을 것. 일반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 슬퍼할 수 있을 것, 절망과 감사와 적당한 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극도의 공포나 불안에 의해 혹은 학대나 무시가 트라우마가 되어 인간의 감정적 발달을 방해하는 일이 없을 것(케이퍼빌리티를 옹호한다는 것은 그러한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람과 사람과의 다양한 교류를 옹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실천 이성: 좋은 생활의 구상을 형태로 만들고 인생 계획에 대해 비판적으로 숙고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옹호를 동반한다)

7. 연대 :

A. 다른 사람과 함께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능할 것.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관심을 보이는 것이 가능할 것.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인 교류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상상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입장에서 동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 정의와 우정의 쌍방에 대한 케이퍼빌리티를 가지고 있을 것(이러한 케이퍼빌리티를 옹호한다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양성해 나가는 제도를 옹호한다는 것으로 집회와 정치적인 발언의 자유를 옹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 자존심을 가지고 굴욕을 받지 않는 사회적 기초를 가질 수 있을 것. 다른 사람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존엄이 있는 존재로서 다루어질 것. 이것은 인종, 성별, 성적 경향, 종교, 카스트, 민족 혹은 출신국에 관한 차별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을 최저한 포함한다. 노동에 대해서는 인간답게 일하는 것이 가능할 것. 실천 이성을 행사하고 다른 노동자와 서로를 인정하는 의미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

8. 자연과의 공생 : 동물, 식물, 자연계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것과 관련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 것

9. 놀이 : 웃고 놀고 레크레이션 활동을 즐기는 것이 가능할 것

10. 환경의 컨트롤 :

A. 정치적 : 자신의 생활을 좌우하는 정치적 선택에 효과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 정치적 참가의 권리를 가질 수 있을 것. 언론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을 것

B. 물질적 : 형식적일 뿐 아니라 진정한 기회라는 의미에서도 (토지와 동산의 쌍방의) 자산을 가질 수 있을 것. 다른 사람과 대등한 재산권을 가질 것. 부당한 수색이나 압수로부터 자유로울 것

출처 : 노스바움 (2005, pp.92-95)

누스바움이 제시한 리스트가 모든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케이퍼빌리티 리스트라고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연대(제휴)’ 라고 하는 항목은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제휴의 관계에서 시작된 일본 유기농업의 사례에서 보여지는 지향점과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흥동의 유기농업 사례는 케이퍼빌리티와 어떻게 관련될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흥동의 유기농업을 바라보아야 하고 또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련성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4) 불완전순서

케이퍼빌리티란 인간의 Well-being을 다루는 하나의 유력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소득을 대신하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서 다시 누군가에게 순위를 매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케이퍼빌리티를 리스트화 하는 것에 대한 센의 우려였을 것이다. 소득에 주목하는 불평등론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소득을 얻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사람이 처해있는 상황은 각각 다르며 질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최저한의 생활을 하기 위해 보다 많은 소득이 필요한 사람도 있는 반면, 소박한 생활을 신조로 하는 사람도 있다. 소득이 같다고 해서 동일한 Well-being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사람들의 자유에도 반하게 된다. 또 Well-being 자체에 대해 생각해보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택지 가운데 가장 평가가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의 Well-being을 희생해서 타인을 위해 공헌하려고 하는 행위, 다시 말해 ‘Agency로서의 자유’ 라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각은 다양하기 때문에 실현한 Well-being의 상태가 강제적으로 같도록 하는 평등론도 사람들의 자유에 반하게 된다.

센은 케이퍼빌리티에 의한 모든 상태를 일의적으로 순위매기는 것을 부정한다. 복지의 개인 간 비교에는 불평등의 평가와 같은 불완전성이 따르게 된다. 개인의 복지를 완전히 순위 매기는 어프로치나, 불평등을 애매함과 불완전성의 여지를 두지 않고 비교하려고 하는 어프로치야말로 이러한 생각에 반하게 된다 (Sen 1999, pp.48~49) . ‘만일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가 본질적으로 애매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디어의 엄밀한 정식화는 그러한 애매함을 배제하기 보다는 오히려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 (Sen 1999, pp.48-49) . 이러한 생각을 센은 ‘불완전성의 기본적 근거’ (Sen 1999, p.49) 라고 하였다. 유기농업적 생활과 그렇지 않은 생활

을 비교할 때 의견의 불일치에 의해 순위를 매길 수 없다면 매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다면 이용할 수도 없는 것이 된다. 우리에게서 명확하게 합의 가능한 우선 순위도 있다. 예를 들어 기초적 기능에 관해서 그것이 만족되는 상태와 만족되지 않는 상태를 비교할 때 전자에 높은 순위를 매기는 것에는 합의에 이르기 쉬울 것이다. 여기서 합의가 성립된다면, 예를 들어 기초적 기능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가 (빈곤대책과 같이) 지원하는 것에도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센이 ‘불완전성의 현실적 이유’ 라고 부르는 것으로 ‘완전한 순위 매김이 확실히 형태를 보일 때까지 침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분이라도 명확하게 순위 매김이 가능한 부분까지 이용하자는 것을 말한다’ (Sen 1999, p.49) .

농업에 관해서 말하자면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면 ‘근대적인 것’ 으로 불리면서 ‘우수한 것’ 이라고 여겨지고, 반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뒤쳐진 것’ 으로 여겨진다. 물론 ‘근대적’ 인 것도 ‘과학적’ 인 것도 ‘우수한 것’ 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태국에서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재배방법으로 전환한 후 수확량이 더 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수확량의 측면에서만 비교하더라도 과연 화학비료나 농약이 우수한 농법인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소득이나 ‘근대과학’ 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게 됨에 따라 유기농업을 ‘뒤쳐진 것’ 이라고 보는 편견이 만들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탈피하여 유기농업을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보적 기초를 더욱 더 풍부하게 해 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 중 하나가 센의 케이퍼빌리티를 응용하는 것이다.

5) 케이퍼빌리티와 흥동 유기농업 연구의 관련성

본 연구에서는 흥동의 유기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들, 특히 초창기 흥동의 유기농업을 기억하고 또 실천했다고 여겨지는 분들의 인터뷰 내용과 초창기 유기농업을 실천했던 농가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한 마을로 공간적인 범위를 정하고 당시 흥동 유기농업의 상황들과 실태를 정리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초창기 흥동 유기농업의 다양한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는 작업인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케이퍼빌리티 어프로치를 통해 알아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흥동의 유기농업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대표성을 띠는 이야기 외에 개개인 실천 농가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나아가 문당리 문산마을을 선택하여 그 곳의 토착 농민 개개인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유기농업에 대한 이해와 의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이 본 연구에서 흥동을 바라보는 이론적 기반을 케이퍼빌리티 어프로치에 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고찰

지금까지 흥동에 대한 연구는 ‘풀무학교’ 라고 하는 교육적인 측면이나 ‘흥동마을’ 이라고 하는 마을만들기적 측면, 그리고 ‘협동조합’ 등의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흥동의 유기농업 자체에 초점을 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그나마 유기농업 생산자단체인 풀무생협과 관련한 연구가 손에 꼽힐 정도이며 이러한 연구로는 김호, 조완형(1995), 김홍주(2008), 허남혁(2009) 등이 있다.

김호, 조완형(1995)은 1994년 당시 풀무생협을 중심으로 한 유기농업 생산자회의 조직 운영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면서 유기농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김홍주(2008)는 풀무생협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를 통해 대안농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유기농업 생산자가 갖는 사회경제적 성격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적 특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허남혁(2009)은 한국 생협조직의 변천과정을 짚어가면서 생산자 생협인 흥성 풀무생협의 사례를 통해 대안 농식품 네트워크를 위한 생산과 소비 관계의 변화 과정과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론적 틀과 관련한 연구로 Nussbaum(2000)은 셴의 케이퍼빌리티 어프로치에 대해 구체적인 케이퍼빌리티의 리트스화 측면에서 응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기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Sabina(2002)는 케이퍼빌리티의 이론적 접근과 동시에 세군데의 농가그룹을 사례로 하여 케이퍼빌리티 리스트를 통한 구체적인 평가의 틀을 제시하였다.

池本幸生·金氣興(2008)은 케이퍼빌리티의 개념과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유기농업과 케

이퍼빌리티와의 관련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Kim(2009)은 유기농업 정책의 바탕이 케이퍼빌리티에 기반하여 제시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한국과 일본, 태국을 사례로 연구하였다.

金氣興(2009)은 일본 유기농업의 사례를 통해 케이퍼빌리티 리스트 가운데서도 연대라는 항목이 일본의 유기농업 발전방향과 일치함을 밝혔다.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홍동 유기농업 연구와 관련한 상기의 선행연구들은 홍동 유기농업 생산자단체인 풀무생협을 사례로 하여 홍동의 유기농업 현황과 조직의 성격, 그리고 생산자의 농업경영상의 문제점과 과제 등을 조명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해보는 귀중한 연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들은 대표성을 가지는 조직의 이야기는 가능하였으나 조직 안의 농가 개인을 대상으로 유기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 노력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농가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에 대한 성격과 역할이 아니라 농가 개인이 지향하는 유기농업의 이념과 방향, 그리고 실태를 직접 알아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차별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생산비와 생산량과 같은 정량적인 접근 방법이 아닌 농가 개인의 유기농업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중심으로 정성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별 농가의 유기농업에 대한 지향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홍동 유기농업을 형성하고 변천되는 과정에 기여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기존의 연구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론과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센의 케이퍼빌리티에 대한 개념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으며 최근 들어 구체적인 케이퍼빌리티의 리스트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연구가 행해져 왔다. 또한 유기농업이 케이퍼빌리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일본을 사례로 한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국내에서의 유기농업을 사례로 한 연구는 아직 없다.

제3장 흥동 유기농업의 형성과 변천과정

1. 흥동 유기농업의 시작(1970년대 중반~)

먼저 이 시기의 주요 활동들을 연도별로 정리해보면 표3-1과 같다. 우선 흥동에서는 오랜 풀무학교의 역사와 함께 마을공동체를 중시하는 협동조합의 활동들이 이루어져 내려왔다. 그러던 가운데 1975년 일본 애농회의 고다니씨의 방문을 계기로 풀무학교에서도 유기농업이 실천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유기농업이 마을 내로 전해지게 되었다. 이 시기 전국적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기농업 생산자단체인 정농회가 설립되었으며, 이후에 일본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유기농업에 대한 철학과 기술들을 배우는 기회를 얻게 된다.

1980년대 초에는 이러한 협동조합의 정신 하에 풀무소협과 신탁 내 생산자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며 1980년대 중반부터는 이렇게 생산되어진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위한 노력들이 나타난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일본과의 교류는 계속되었으며 생산자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정농회 흥성지회의 설립으로 이어지게 된다. 1992년에는 처음으로 생산자(정농회 흥성지회 주최) 주도에 의한 가을걷이 행사가 개최되면서 도농교류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같은 해에 풀무생협 안에 생산자모임을 발족하게 되고 다음해에는 풀무학교 내에서도 생활협동조합이 나타나면서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들이 확산되었다.

〈표 3-1〉 흥동 유기농업의 시작과 관련한 활동

연도	내용
1958년	풀무학교의 설립
1959년5월	풀무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교내 구매부에서 협동조합 시작
1960년	교내에 교사와 졸업생 5명이 신용협동조합 시범운영
1969년3월	협동조합 정식 창립총회로 교내 풀무소비조합 발족
1969년11월	학교 교직원과 학생 18명 풀무신용협동조합 시작
1972년10월	풀무신용협동조합 창립 총회 개최 및 정식 업무 시작
1975년9월	일본 애농회 고다니 준이치씨 풀무학교 방문
1976년3월	풀무학교 유기농업 시작. 졸업생 유기농업 시작
1976년	정농회 설립
1977년5월	풀무학교 교사의 일본 애농회 초청 유기농업 연수
1979년	갯골 어린이집 설립
1980년5월	풀무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창립(주민31명, 출자금7만원)
1982년	풀무신협에서 유기농업작목회 결성
1983년12월	풀무생협 발전적 해체 후 45명으로 재창립
1984년	수도권 소비자 단체와 직거래 시작
1987년	여성민우회생협과 풀무생협 직거래 시작
1990년	풀무소비자협동조합에서 생산자협동조합으로 바뀜
1990년6월	일본PHD와의 교류로 농민들 일본 연수(최성봉교사와 흥동 농민 5명 유기농업 연수)
1991년	정농회 흥성지회 설립
1992년	정농회 흥성지회 생산자 가을걷이 행사 개최
	풀무생협 유기농업 생산자회 발족
1993년	풀무학교 생활협동조합 창립

1) 유기농업의 계기와 애농회

흥동에서의 유기농업의 역사는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의 유기농업단체인 애농회와 애농학교의 이사장인 고다니 준이치씨가 부천 소사의 공동체와 흥동을 방문하면서 유기농업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된다⁵⁾. 고다니씨는 한일 역사에 대한 사죄와 더불어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에 대한 위험성과,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하게 된다. 전후 일본에서의 고도경제성장에서 발생한 각종 공해와 환경오염이 먹거리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 농약의 사용 피해에 대응하여 일본에서는 1970년대 초반부터 유기농업운동이 진행된다.

5) 당시 풀무학교의 주옥로씨 하에서 진행된 성서모임에서 풀무학교 후원 모임인 일심회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강의가 이루어졌다.

애농회(愛農會)는 1945년에 뜻을 같이 하는 16명이 모여 애농구국, 인격교육, 애농정신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애농숙(塾)으로 발족되었다⁶⁾. 다음 해인 1946년 2월, 70여명이 모여 애농회를 창립하였고 3월에는 회원수가 200명이 넘는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당시 주된 사업은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농촌 후계자 육성이었다. 그 외에도 의식주 등 소비생활과 사회관습 전반에 걸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사회교육사업으로서 시작된 생활개선운동 등에도 앞장서왔다. 1954년에는 애농교육의 장으로서 애농고등학교의 전신인 애농근본도장을 개설하고, 이듬해에는 애농단기대학을 설립하게 된다. 1963년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업을 보다 전문적으로 실천해줄 농민을 양성하기 위해 애농학원 농업고등학교가 만들어지게 된다.

1969년이 되면서 고다니씨의 친구이기도 한 의사인 야나세 기료씨에 의해 농약의 폐해에 대해 접하게 되면서 고다니씨가 애농학원 내에서는 농약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유기농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야나세 기료씨는 일본유기농업운동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한데 당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병의 원인이 농약 사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러한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본인이 직접 농약에 절여진 과일과 차를 마셔가면서 임상실험을 거쳐 농약의 위험성을 일본 전역에 알리게 된다.

그러던 가운데 고다니씨가 1975년에 홍동의 풀무학교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1976년 국내에서도 이러한 뜻을 이어 정농회(正農會)라고 하는 유기농업단체가 설립되었다. 정농회란 ‘바른 농업을 하는 모임’이라는 뜻으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정농회는 ‘경천애인(敬天愛人)의 진리를 농업으로 구현하여 우리나라 전 농토가 화학적 오염으로부터 벗어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질서를 보전하는 생명농업으로 조속히 전환할 것을 바라고 유기농업을 실천함으로써 전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생활(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6년에 창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민단체’이다⁷⁾. 그림3-1은 정농회 초창기 회원들의 모습이다.

6) 그 후 애농전국대회에서는 참가자가 7천명 가까이 모인 적도 있었다고 한다.

7) 전국에 7개의 지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약 600여명의 회원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정농회 홈페이지 참조). 현재 사무국은 홍성에 두고 있다.



〈그림 3-1〉 초창기 정농회 회원들(정농회 제공)

정농회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1991년에는 흥동에서도 정농회 흥성지회가 창립되었다. 3월 20일 풀무학원 지역교육관에서 개최된 창립총회는 흥순명씨의 말씀을 시작으로 진행되었고 당시 정농회 회장이었던 오영환씨가 참여하였다. 정농회 흥성지회의 창립 목적으로는 ‘정농강령에 입각하여 흥성 지역에 정농을 보급 정착 발전시키는 것’ 이었다. 창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표3-2와 같은 내용들이 거론되었다. 유기농업 자체에 대한 연구와 생산자 및 소비자와의 교류가 중시되고 있으며 국제적 차원에서의 농민 교류를 위한 준비가 일찌감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3-2〉 정농회 흥성지회 사업(1991년)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연구 2. 회원간 상호협력 3. 정농대학 운영 4. 생산 소비자 교류 5. 농업도서 포함 필요한 자료 비치 6. 회지 발간 및 정농총서 출판 7. 필요한 공동사업 추진 8. 국제적 농민 교류 9. 산학 협동 추진 |
|---|

출처: 흥성친환경농업교육관 내부자료에서 발췌 및 정리

〈표 3-3〉 정농회 흥성지부 활동 계획(1992년)

1. 여름모임 개최(전국, 지회)
2. 정기모임계획(월별, 분기별)
3. 지역농산물 지역판매망 개척
4. 객관성 있는 연구 영농 기록 발표
5. 창단 초기(유기농) 교류 기술 습득(외국 포함)
6. 전국 선진 유기농업 현장 견학

출처: 흥성친환경농업교육관 내부자료에서 발췌 및 정리

다음 해인 1992년 1월에는 천북 두레농장에서 열린 제2차 정기총회에서 최성봉씨와 홍순명씨가 고문으로 추대되었고, 정농정신교육이라고 하는 간행물과 번역도서의 출간, 회원작목별·주제별 연구발표를 하는 정농연구, 그리고 선진지 견학 등의 사업계획이 제안되었다(표3-3). 1992년도 정농회 흥성지부의 활동 계획들 중에 ‘지역농산물의 지역판매망 개척’이라는 것이 눈에 띈다. 흥동에서는 1989년 이후 여성민우회 생협과의 직거래 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판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흥동에서는 소비자와의 교류만이 아니라 유기농업이 실천된 이후 농민 간 혹은 단체 간에 다양한 교류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1990년 8월에는 2박 3일에 걸쳐 일본 효고현을 중심으로 하는 PHD (Peace, Health and Human Development)⁸⁾라고 하는 단체의 연수생을 안내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PHD와의 교류는 홍순명씨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고문으로 추대된 당시 풀무학교의 교사였던 최성봉씨가 일본 방문을 계기로 PHD와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는 가운데 아시아청년센터를 통해 유기농업연수가 이루어지고 직거래에 대해 배우기도 했다. 다음해의 행사에는 최상업씨가 농가들과 함께 초청되었다. 최성봉씨와 흥동 농민 5명의 일본 유기농업 연수를 시작으로 2002년까지 농민 50여명이 연수를 다녀왔으며 애농회의 영향으로 아와지시마를 방문하는 등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1996년에는 처음으로 한일 교류 연수회를 개최하게 된다. 그 가운데 6명의 한국인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반대로 일본인 3명이 한국 유학의 기회를 얻기도 하면서 활발한 민간 교류가 이루어졌다. 일본 애농학교에서 실시된 제1회 한일 교류 연수회에서는 ‘21세기의 세계

8) PHD는 1962년부터 네팔을 중심으로 20여년간 해외에서 의료 활동에 종사해온 이와무라 노부루 의사가 스스로의 활동 경위와 활동을 포함해서 ‘물건’과 ‘돈’ 중심의 일시적인 원조를 넘어선 풀뿌리에 기반한 인제교류 및 육성을 제창하여 1981년 6월에 설립되었다(PHD 홈페이지 참조).

적 식량 및 환경위기와 대응책'이라는 주제로 행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연수회의 목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정농운동과 애농운동의 공통의 목적인 “세계평화와 농업을 사수” 하기 위하여 전면적으로 협력한다.

21세기의 지구와 인류의 위기인 지구환경과 인류의 식량확보를 위하여 무농약 유기농법을 한국과 일본 뿐만이 아니라 전 아시아와 세계에 보급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한일 교류 연수회를 금후 충실한 내용으로 하기 위하여 풀무학교와 애농농업고등학교와의 사이에 유학생을 교환하여 양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젊은 인재의 육성에 협력한다.

여기에서는 유기농업을 하나의 농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운동’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으며 비단 한국과 일본만이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주체로서 풀무학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2) 유기농업의 실천과 풀무학교

풀무학교는 1958년에 이찬갑씨와 주옥로씨에 의해 설립되어 사상적이면서도 실천적인 면에서 흥동마을의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⁹⁾. 학교 설립 기원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김영남, 2008). 첫째로는 1907년에 세워진 기독교 민족주의 학교인 오산학교를 계승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둘째로는 1920~40년대 기독교 혁신운동의 일환이었던 무교회주의 운동, 셋째로는 19세기 덴마크 민족주의자 그룬트비히의 사상과 실천을 들 수 있으며, 넷째로 설립자 중 하나인 주옥로씨가 가난한 자신의 고향에서 농촌을 이끌어갈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 학교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풀무학교는 흥동의 농업 전반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왔다. 그렇지만 풀무학교에서 유기농업을 실천하기 시작한 것도 1975년 고다니씨의 강연 이후였다. 그 이전까지는 풀무학교에서조차도 유기농업이라는 것이 실천되지 못했다.

9) 1958년 1월에 학교 설립에 관해 상의하기 시작하여 3월에 풀무학원 발기인 총회를 열고 4월에 풀무공민고등학교로 개교하여 제1회 입학식을 개최하였다. 9월에는 풀무고등공민학교로 인가받았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환경에 대한 개념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깐, 그 당시에 국가는 새마을 운동은 이야기 했지만, 농촌자립 정도의 문제였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농업기술을 지역에 알려준다던가, 벌써 소독 같은걸 해 준다던가, 기존 농업에 대한 열악한 것을 도와 주는 정도였지, 어떤 그 농법에 있어서 새로운 것은 가지고 있지 않았죠(관계자 인터뷰).

이후 유기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풀무학교와 애농학교 간에 적극적인 교류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풀무학교에서는 지역 내에서 유기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당시 증산이 중시되던 분위기 속에서 관공서나 지역 농가들 사이에서도 학교의 유기농업에 대한 실천을 쉽지 용인하지는 못했다.

한편 이러한 풀무학교의 유기농업에 대한 의식 전환과 더불어 고다니씨의 홍동 방문으로 ‘유기농업’에 대해 큰 감명을 받았던 풀무학교 출신 졸업생이 중심이 되어 유기농업이 실천되어갔다. 주형로(2000)도 ‘홍성 지역은 풀무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유기농업을 시작했으며 특히 정농회를 통하여 지역에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들 중 하나였던 주정배씨(68세)는 풀무학교 3회 졸업생으로 졸업 후에 풀무학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유기농업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한국농업인기술자협회를 통해 일본의 애농회 부설 고등학교인 애농학교에서 1년간 연수를 하게 된다. 당시 풀무학교는 협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는데 이러한 인연으로 협회의 일본 견학 프로그램에 합류하여 1977년 1년간 애농회 초청으로 애농학교에서 유기농업을 배우게 되었으며, 낙농부와 화훼부 등 농업의 다양한 방면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유기농업은 생명을 지키고 우주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실천해왔다(주정배씨 인터뷰).

주정배씨는 1978년에 전국 애농회 회장의 후쿠오카 농장에서 1년간 농장 실습의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일본의 다양한 유기농업 방식과 지렁이 양식장 등 시험재배 관련 유기농업기술을 배워왔다¹⁰⁾. 1979년 3월에 귀국한 후에는 협회가 운영하고 있던 전국 단위의 농민대학에

10) 1978년 당시에는 식량증산을 목표로 하던 시절이어서 출국 심사 과정에서 일본에 유기농업을 배우러 간다고 하면 그게 무엇이냐고 되물어보던 일도 있었다고 한다(인터뷰).

서 특강을 하기도 한다. 당시에 주정배씨 이외에도 함께 유기농업에 대해 공부하고 실천하는 농가들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흥동에서 유기농업을 시작한 또 다른 인물 중 하나인 오영남씨(67세)¹¹⁾는 625전쟁에서 부모를 잃고, 1967년부터 전국을 떠돌아다니다 1970년에 조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와서 정착하게 되었다. 귀향 후 관리가 되지 않았던 4~5년 사이에 지력이 심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것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흙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당시에는 유기농업이라는 단어조차 전해지지 않았던 시기로 토양 살리기를 중심으로 한 유기농업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당시에는 유기농이라는 말보다는 무공해, 무농약이라는 표현이 더 일반적이었던 것 같다. 현재는 많은 유기농가들이 돈벌이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유기농업의 시작은 흙 걱정에서 시작된 땅심 살리기였다. 당시 상황을 돌아켜보면, 왜정 때부터 농정의 방향은 다수확하는 농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고 5공 때는 통일벼가 중시되는 등 식량증산의 농업이 주가 되어 있었다. 이미 흙이 죽어 있었고 20~30년이 지나도 살릴 수 없을 것 같았다. 이렇게 해서 망가진 흙을 누가 살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생각은 많았으나 어려운 일임이 분명했다. 그 후 상업적인 방향으로 가게 된 것 같다(오영남씨 인터뷰).

지력 회복을 위해 시작한 일은 풀, 농작물, 음식물 등 부산물을 이용한 퇴비만들기였다. 1970년대 흥성에서는 축산으로 전환하는 농가들이 많았다. 이러한 축산 부산물을 퇴비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질소 함량이 높은 관계로 지력 회복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정배씨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당시의 농업을 떠올려보면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해서 수확량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식량증산이 최대의 목적이었다(주정배씨 인터뷰).

1970년대에는 유기농업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다. 그 대신에 ‘무공해, 무농약’ 농법이라는 말이 더 일반적이었으며 풀무학교 2회 졸업생인 신관호씨에 의하면 당시에는 유축농업이

11) 3년 전에 흥성 내포로 이사하여 도청 교육청의 개발공사 아래 녹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라는 단어를 썼다고 한다¹²⁾. 당시 비료 값은 비싼 편으로 면사무소에서조차도 비용 절감을 위해 거름이 되는 퇴비를 장려했다. 어렸을 때는 농약과 비료를 썼고 제초제도 있었다.

화학비료는 1960년대에, 제초제는 1980년대 이전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초제의 보급에는 베트남 전쟁의 영향도 작용하였다. 그렇게 70~80년대를 거치면서 제초제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제초제는 수확량 증가와 인건비 절감에 기여하였다. 당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초제의 위험에 대한 언급은 없던 시절이었다. 그러다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가들에게는 직간접적으로 건강피해가 나타났고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농약에 의한 피해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기는 어려웠다¹³⁾. 이것은 농사를 직접 짓던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었다고 하겠다.

당시 흥동과 괴산을 중심으로 유기농업이 교육적 차원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유기농 교육에서 강조된 것은 서로 양보하고 신뢰하는 일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유기농업에 대한 교육은 그 사상과 철학적인 면에서 교육 자체로는 중요했지만 실천이라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교육 받은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즉 현실적으로는 소득과 직결되는 점 때문에 실제로 ‘흙 살리기’에 중점을 둔 유기농업의 실천으로 이어지기에는 미약함이 많았다. 초창기 유기농업을 실천했던 주정배씨에게서도 땅 살리기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80년대 당시를 돌아해보면 논 한마지기에서 다섯, 여섯 가마는 생산이 되었으나 유기농으로 는 두 가마를 겨우 생산해내는 정도였다. 소득은 관행농업을 할 때와 비교하면 삼분의 일 정도 수준에 그쳤다. 그리고 땅심 살리기가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과일과 곡식에서 나온 부산물이나 소의 분뇨를 이용하는 순환농법을 중시했다. 순환농법이라는 것은 거창과 임실에서 폐 사용되던 말이었다. 후에 YMCA 회원들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군에서 비료나 발효퇴비를 지원받기도 했으나 발효퇴비는 농가들 스스로 만들어 썼다(오영남씨 인터뷰).

당시 유기농 자재의 기본은 땅 살리기였다. 이를 위해 효소와 미생물 등이 많이 부각되

12) 신관호씨는 유기농 우유로 만든 평촌요쿠르트 대표이다.

13) 일본에서도 1950년대, 60년대에 농약으로 인한 폐해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나 그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낼 수는 없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제2장에서 소개한 대로 의사인 야나세 기료씨는 스스로 농약에 절여진 농산물을 먹어가며 임상실험을 하게 되고 그것이 농약에서 발병함을 밝혔다. 이러한 노력이 바탕이 되어 많은 지식인들과 농가가 함께 1971년 일본유기농업연구회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유기농업에 대한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

었는데 일본에서 시마모토(島本) 미생물 등 미생물을 이용한 농법도 농장실습을 통해 직접 만들어 사용해보기도 했지만 토양을 살리는 반드시 유효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유기농 자재에 대한 관심으로 당시 홍동 이외의 지역에서도 함께 유기 농업에 대해 공부하던 사람이 몇 명 더 있었다(주정배씨 인터뷰).

당시에는 YMCA 하의 농민회 활동 가운데서 농민 교육이 이루어졌다¹⁴. 홍동에서 많은 농민들이 참가했고 그 곳에서는 한국농업의 역사 등 농민의 의식에 관련한 교육들이 진행되었다. 홍성 YMCA는 대전 충남 지역에서 최초로 설립되었다는 점 등 다양한 활동들이 홍성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3) 유기농업의 확대와 협동조합 및 농가조직

홍동에서의 협동조합의 역사는 1959년 풀무학교로 거슬러 올라간다¹⁵. 협동조합은 학교가 세워지고 난 후 초창기부터 풀무학교 교사와 학생들에 의해 교내 구매부에서 시작되었다. 오산학교에서의 경험과 덴마크의 그룬트비히의 정신을 이어 이룬 시기에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실천되어 왔다(풀무교육 5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2008). 1960년에는 학교 안에서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고 1969년이 되면서 교내 풀무소비조합이 발족된다.

같은 해에는 국내에도 신협이 정식으로 생겨나면서 풀무 재학생과 교직원 18명이 4,500원의 출자금을 통해 만들게 되었다. 1972년에 풀무신용협동조합(이하 풀무신협) 창립 총회를 열고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초기에는 정관을 통해 학생과 재학생들만을 회원으로 한 제한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렇게 직장조합으로 시작된 풀무신협은 1996년이 되어 지역조합으로 변모하면서 홍성군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협동조합이 마을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14년 6월 현재 조합원 수는 3,091명이다(풀무신협 인터뷰).

1980년 5월에는 풀무학교 출신 생산자가 지역 생산자와 함께 면소재지에 가게를 열어 풀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창립하여 라면 등 생활용품 판매를 개시했다(표3-4). 하지만 운영상의

14) 서울 아카데미 하우스에서는 정신적이고도 철학적인 면을 강조하는 농민교육이 주로 이루어졌다.

15) 홍동에서의 협동조합과 관련한 연구로는 김정섭(2013)이 있다.

적자로 인해 1983년에 이를 해체하면서 경영진이 교체되고 같은 해 12월에 금평리를 중심으로 45명으로 재창립하게 되었다. 1984년 5월에는 농산물 직거래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85년 1월에 생협중앙회의 회원조직으로 가입하면서 3월에 정관을 개정하였다. 1986년에 접어들면서 제2매장을 개설하고 건재류와 농자재를 공급하게 된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1989년과 1991년에 걸쳐 생협건물을 증축 및 신축하게 된다. 그러다가 1992년에는 35명의 유기농업 독농가를 정회원으로 하는 풀무생협 유기농업 생산자회를 정식으로 창립하였다. 이것은 소비자였던 회원들 가운데 생산자가 늘어나면서 가능했던 일이었다.

〈표 3-4〉 풀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시기	내용
1980년	풀무학교 출신 생산자가 지역생산자와 출자금 7만원으로 창립
1983년	해체하여 12월에 45명으로 재창립
1984년2월	공산품 판매장 개업
5월	'좋은 쌀집' 등과 농산물 직거래
1985년1월	생협중앙회 회원조직으로 가입
3월	정관 개정
1986년4월	제2매장 개설. 건재류와 농자재 공급
1989년9월	건물 증축(매장 19평, 다용도실 19평)
1991년	2차 건물 신축(매장 39평, 농산물 작업장 24.3평)
1992년	35명 유기농업 독농가를 정회원으로 하는 유기농업 생산자회 창립

출처: 김호, 조완형(1995)에서 발췌 및 정리

풀무생협 활동이 진행되던 가운데 조합원 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게 되고 이를 위한 소식지를 만들고자 1988년에 홍성신문을 발간하게 된다. 처음에는 흥동소식을 전하는 월간지로 조합이 주도가 되어 발간되었고, 한달에 한번 지역 소식을 전했으나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강제로 폐간되었다. 이에 대한 대항으로 탄압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면 단위에서 정부와 싸워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군 단위 조직을 만들려는 움직임 가운데 1987년에 6월 항쟁의 영향으로 언론자유에 대해 관대해지면서 신청 허가가 떨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주간신문을 만들기로 하면서 1988년에 주주를 모집하는 광고를 한겨레 신문 창간호에 신게 되었다. 그 영향으로 400여 명이 모이시고 1988년 12월 1일에 최초의 지역신문인 홍성신문이 창간되었다. 당시 홍성신문은 치과의사로 지역에 내려와 활동을 했었던 고광성씨¹⁶⁾를 대표로 하고 이병영씨는 편집국장을 맡았다.

16) 농민운동과 교육 등 재야활동을 주로 하였고 10년간 활동하였다.

이렇게 생산된 유기농산물은 초반에는 서울 아파트 단지에서 직거래로 판매되었다. 이는 경실련 생협 대표가 소비자단체를 묶으면서 함께 진행되었던 일이었다. 쌀 20가마니를 성남의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직접 방문하는 형태로 팔았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에게 유기농업이라는 것이 충분히 이해되지는 못하던 시절이라 소비자 중에는 쌀을 짊어지고 가면 배달원쯤으로 여기고 쌀독에 직접 부어달라는 소비자도 있었다고 한다. 가격 면에서 기존의 쌀값보다 조금 더 받은 정도였다(이번영씨 인터뷰).

오영남씨에 의하면 초기 3-4년간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홍보해서 팔았으며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직거래, 회원제로 서울에 있는 정농회와 풀무원의 회원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중가격보다 조금밖에 더 받지 못하는 등 제대로 소비가 자리잡히지는 못했다. 직거래를 통해 농가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정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안정적인 소비자 조합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했는데 정농회는 생산자가 주인 모임이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비층의 확보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1989년에 한국여성민우회생협이 생기면서 풀무생협에 유기농산물을 위탁하게 되면서 교류가 시작되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진보적인 여성단체로 1987년에 창립되었는데 당시에는 정치적인 성향이 강했다. 이후 1989년 12월 16일에 ‘함께 가는 생활소비자협동조합’을 새로 창립하게 된다¹⁷⁾. 이는 초기의 민우회가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해나가는 가운데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져감에 따라 먹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여성민우회생협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¹⁸⁾(생협 초창기 멤버 인터뷰).

이후에는 한살림과도 교류를 가졌다. 한살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생산자소비자단체로 1986년부터 1987년까지 1년 반 동안의 준비모임을 거쳐 1988년에 한살림소비자협동조합으로 자리잡게 된다¹⁹⁾. 당시 한살림은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전국의 농가그룹들을 방문하는 등 교류를 갖게 되는데 그 가운데 홍동마을에도 견학하는 등 생산자들과 교류하기도 했다(한살림 초창기 멤버 인터뷰).

이후 생산된 유기농산물은 버스로 운반되어 서울에 판매되었다. 당시에는 소비자그룹과의

17)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에서는 ‘함께 가는 생활소비자협동조합’의 결성으로 표기되어 있고, 구 여성민우회 홈페이지에서는 12월 16일 창립총회(조합원 220세대, 출자금 1,300만원)라고 표기되어 있다.

18) 현재 행복중심생협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활동하고 있으며 홍성에도 점포를 두 개 열었다. 이로써 생산자 중심이던 생협에서 소비자 회원의 생협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19) 이는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이것과는 별도로 장일순 선생님의 아이디어에서 힌트를 얻어 박제일씨가 따로 1986년에 한살림농산이라는 것을 만들어 농산물을 판매하기도 했다.

만남을 적극적으로 가졌었다. 여성민우회 회원들에게 유기농업에 대해 교육하고 또 빈번하게 모임을 가짐으로써 유기농업을 알렸다. 이를 통해 유기농 생산자와 소비자는 정신적인 유대관계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했다²⁰⁾.



〈그림 3-2〉 1990년 직거래운동 교육 사진(2014 우리마을 발표회 중에서)

홍동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교류를 위한 행사는 1992년에 ‘가을걷이’ 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정농회 생산자가 주체가 되어 홍동 저수지 뚝방에서 화신리 회원농가의 땅을 빌려 소비자들과 함께 메뚜기를 잡는 등의 행사로 진행되었다²¹⁾. 그림3-3은 1993년 가을걷이 행사의 모습이다. 이것은 이후 오리농법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도농교류의 시작이었다고 하겠다.



〈그림 3-3〉 1993년 가을걷이 행사(환경농업교육관 제공)

20) 이에 대해 당시의 한 농가는 현재는 유기농산물이 고급화, 차별화되고 있으며 유통전문화되어 농가수입의 증대 측면이 더 부각되어 가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

21) 이 행사는 1980년대 말 마을 출신분이 서울에서 가게를 내게 되는데 가게의 손님들에게 알리면서 홍동의 유기농산물을 소개하게 된 것이 시작이었다고 한다.

2. 흥동 유기농업의 성장(1990년대 중반~)

이 시기의 활동들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 표3-5이다. 1993년에 일본 오리농법이 처음으로 흥동 지역에 소개되면서 이를 계기로 1994년에 문당리에서 오리농법이 시작되었다. 1995년에는 오리농법을 시행하는 문당리 지역 농가가 19농가로 늘어나면서 오리농업작목반을 결성하고 단체로 무농약 인증을 획득하게 된다. 같은 해 도시민과 함께 하는 오리 보내기 행사와 함께 오리널기 행사, 수확제와 같은 도농일심 교류행사 등이 개최되었다. 1996년에는 흑향미가 도입되면서 많은 농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고 흥동농협과의 계약으로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었다. 1996년부터 매년 아시아 오리벼농사 대회가 개최되며 다음 해인 제2차 대회는 풀무학교에서 개최되었다. 1998년에는 무농약 단체 인증에 이어 유기농 단체 인증을 받게 된다. 그 후 1999년에는 농가들과 농협, 유통업체의 삼자 계약재배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이 시기는 유기농업에서 시작하여 마을만들기 측면에서의 활동들이 부각되기도 한다. 환경기금의 적립(1996년)을 시작으로 환경농업시범마을(1999년)이 조성되었으며, 적립 기금을 토대로 환경농업교육관(2000년)이 설립된다.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 계획서’ (2000년)의 수립과 함께 본격적으로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사업들이 실시되어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부), 정보화시범마을(행정자치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기에 이른다. 2010년에는 문당환경농어촌체험휴양마을 선정 및 제7회 친환경농업대상 공로상 수상 등 다양한 활동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표 3-5〉 흥동 유기농업의 성장과 관련된 활동

연도	내용
1993년	일본 오리농법 실천 농가 후루노씨 창녕 방문(홍순명씨, 최상업씨 참여) 주형로씨 ‘현대농업’에 게재된 우리농법 기사를 접함
1994년	문당리 주형로씨(9,000평), 광민기씨(1,000평), 이동준씨(1,000평) 오리농법 시작
1995년	문당리 19농가(31,900평) 오리농법 작목반 결성 무농약 단체 인증 획득
1995년4월	도농일심 오리 보내기 행사 중앙일보 게재
1995년6월	도농일심 오리널기 행사 개최
1995년10월	도농일심 교류행사 개최
1996년	흑향미 도입
	오리농법 작목반과 흥동농협 단지 계약
	오리농법 작목반 환경기금 적립
	제1차 아시아 오리벼농사 농민대회 참가
1997년3월	흥동 지역개발연구회 14명 일본 시모고 농협 방문
7월	제2차 아시아 오리벼농사 농민대회 풀무학교에서 개최

1998년4월	문당리 오리농벼 유기재배단지 단체 품질 인증
1999년	생협법 시행으로 풀무소비자협동조합이 풀무생활협동조합으로 재창립
	제3차 아시아 오리벼농사 농민대회 개최(베트남 하노이)
	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
	생산자와 농협, 유통업체 삼자 계약재배 실시 풀무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 설립
2000년	문당리, 환경농업교육관 준공(강당 80평, 식당 80평, 숙소 90평)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 계획서 수립
2001년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전공부 환경농업과 제1회 입학식
2002년	홍성오리농법 단지 약 120만평 돌파(유기인증 472농가)
2003년	문당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농림부)
	정보화시범마을 선정(행정자치부)
	문당리, 농촌마을 가꾸기 대상 수상(농림부)
	문당리 벼 전문 도정공장 운영(지구조성사업비)
2004년	홍성군 친환경 쌀 작목 연합회 홍동초등학교, 홍동중학교에 친환경농업 쌀 공급을 위한 급식비 지원
	문당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구 선정(문당리, 금평리, 화신리 5개 마을. 2005~2009년. 73억6천만원)
	제4차 아시아 오리벼농사 농민대회 개최(중국 진강시, 7월)
2005년	홍성군의회 '홍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
	연간 마을 방문객 2만명 돌파. 홍동면 오리농업 약 900농가(230만평)
	홍성유기농영농조합 생산자 45명으로 창립
	풀무신협 미생물 공장 준공
2007년	농협 DSC(건조 및 저장 시설) 설치 운영
2009년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2010년	문당환경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제7회 친환경농업대상 공로상 수상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 설치(환경농업교육관)

1) 오리농법의 도입과 도시민과의 교류

홍동의 유기농업이 전기를 맞게 된 것은 오리농법이 도입되면서부터다. 오리농법은 일본의 현대농업이라고 하는 농업 전문 잡지를 보고 홍순명씨가 번역하면서부터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일본에서 오리농법을 처음 시행한 후루노 다카오씨가 한국에서 강연을 하게 되어 그 곳에서 두 사람이 직접 만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오리농법은 1994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때마침 우루과이 라운드로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농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주위 농가들을 설득한 끝에 오리농법 참여자는 2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났다.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단연 주형로씨²²⁾다. 주형

22) 풀무교육 5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2008)에서는 주형로씨를 '농사열정과 야생적 에너지로 충만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

로(2000)는 오리농법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²³⁾.

환경보전농업에서의 유기농업은 발효퇴비를 이용하여 지력이 증진되었고 병충해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으나 농촌 인력의 부녀화, 노령화 등으로 인력으로만 해결하던 제초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상태이므로 지속적인 환경보전형 농법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처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오리농법은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또한 믿을 수 있는 농산물 생산 및 판매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주형로, 2000)

당시 흥동에서 오리농업을 시작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은 도시민과 함께 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도시민과의 적극적인 교류가 시작되었다. 1995년 당시 오리농법을 위해서는 오리를 구입해야 했는데 도시민들과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오리 값 보내주기 운동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도농일심(都農一心) 함께 짓는 농사’의 정신으로 시작한 일이었다. 표3-6은 중앙일보에 실린 오리 보내주기 운동 기사이다. 당시에는 유기농업이라는 말 대신에 ‘무공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었고, 생산자와 함께 오리를 방사하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시민과의 교류가 가능했던 것은 이미 1990년대 초반에 ‘가을걷이’라는 행사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형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적극적인 생산자단체의 노력이 지금의 흥동 유기농업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당시 이를 주최한 단체는 정농회 흥성지회로 흥동에서는 다양한 생산자단체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유기농업을 실천하면서 같은 의지와 생각을 가진 농가들이 중복되어 참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오리 보내주기 운동 결과 약 500명의 도시민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었고 도시민들로부터 며칠 동안에 600여통의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 전국의 250여 소비자 가족이 도움을 주었으며 당시 모금한 돈은 1,95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자금으로 오리 1만여 마리와 오리땅 등의 자재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농가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다.

23) 흥동의 오리농법과 관련해서는 ‘충남의 농어업유산 후보자원 분석’ 연구(강마야, 2014)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표 3-6〉 오리 보내주기 운동 신문기사

중앙일보기사(1995.4.1)

잡풀/벌레 먹어치우는 무공해농사 일꾼
가을엔 포장육 만들어 보내줘

농촌에 오리일꾼을 보내주세요!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모임인 정농회 흥성지회는 1일 중앙일보를 통해 도시민에게 오리를 보내달라는 이색적인 주문을 했다.

오리농법으로 무공해 버를 생산하기 위해서다. 모내기가 끝난 6월 초쯤부터 논에서 오리를 기르면 오리는 잡풀과 벌레들을 먹어치운다. 따로 제초제와 살충제를 쓸 필요없이 무공해 쌀을 생산할 수 있다. 비료는 오리배설물만으로 충분하다. 정농회 흥성지회장(주형로, 37, 충남홍성군 밀알농장)은 도시 사람들을 농사 일에 간접적으로 참여시켜 도농일심이 되어보자는 것이라고 말한다. "오리 한마리의 책임구역이 약 10평이기 때문에 오리 한 마리를 보내주는 사람은 논 10평을 농약 공해로부터 해방시키는 셈이 됩니다."

농민들은 논에서 키운 오리를 8월말쯤 보신용 포장육으로 만들어 도시민에게 다시 보내줄 예정이다. 오리고기를 못 먹는 사람에게는 추수가 끝난 늦가을에 오리가 지은 홍주골 오리쌀을 포장해 보내준다.

무엇보다도 뜻깊은 일은 6월초에 열릴 도시민 초청 행사다. 오리를 보내준 도시가족들을 초청, 직접 오리를 논에 방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리 한 마리 가격은 1천 5백원 안팎.

출처: 흥성친환경농업교육관 내부자료

표3-7은 이러한 도시민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 글이다. 당시에도 농촌의 고령화와 1994년의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의 열악한 환경, 그리고 농약과 제초제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염려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도시민이 환경을 지키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감사의 내용이 담겨있다.

다음해인 1995년 6월에는 예정대로 도농일심 오리 넣기 행사가 진행되었다(표3-8). 그림 3-4에서 그림3-7까지는 1999년과 2003년, 2006년의 도농일심 오리 넣기 행사의 모습이다. 1999년에는 다섯 번째로 행사가 진행되었고 흥동농협과 풀무생협, 정농회가 주관이 되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그림3-4).

〈표 3-7〉 ‘오리 보내주기 운동’ 참여 도시민에 대한 감사 편지

1995 도시민과 농민이 함께 짓는 농사

함께 해 주신 가족분들께

도농일심 오리 보내주기 운동에 함께 해 주신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을 지키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자 뜻을 같이 한 25농가는 정농 환경보전형 농법을 확대 실시하려고 오리를 이용한 무농약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날로 농촌은 노령화되어가고 또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촌 현실과 농약과 제초제에 의한 환경오염문제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 문제, 안전한 먹거리 문제는 농민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이 함께 해결해야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리 보내주기 운동에 참여해주신 가족 여러분께서는 환경을 지키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한 부분을 담당하셨습니다. 처음 시작한 이 운동이 작은 시작이지만 한 해 두 해 많은 가족이 참여할 때 메뚜기 뛰놀고 새들이 노래부르며 시인이 숨쉬고 푸르름이 넘치는 아름다운 땅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 가족의 정성에 감사드리며 저희 농민들은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연구 개발하고 우리 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빌며

1995년 5월 1일

정농환경보전오리농업단지 단원일동

출처: 홍성친환경농업교육관 내부자료

〈표 3-8〉 도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 안내문

도시민과 농민이 함께 짓는 농사 행사 안내

자녀분들과 함께 오셔서 논에 오리를 직접 넣어 주시는 일에 참여하여 함께 짓는 농사에 함께 해 주세요

일시 : 1995년 06월 06일

장소 :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오리농법 단지

준비물 : 도시락, 큰 접시, 컵, 젓가락(일회용은 사용하지 맙시다.)

농민나눔잔치 : 떡, 우리밀 부침, 유정란, 야채효소, 김치를 준비하겠습니다.

출처: 홍성친환경농업교육관 내부자료



〈그림 3-4〉 1999년 도농일심 오리 날기 행사(흥성환경농업교육관 제공)



〈그림 3-5〉 2001년 도농일심 오리 날기 행사(흥성환경농업교육관 제공)



〈그림 3-6〉 2003년 도농일심 오리 날기 행사(흥성환경농업교육관 제공)



〈그림 3-7〉 2006년 도농일심 오리 넣기 행사(홍성환경농업교육관 제공)

도시민에 대한 고마움으로 그 해 9월에는 도시민을 초청하여 지역민과 함께 교류회를 갖기도 했다. 농가들은 손수 지어낸 농축산물을 선뜻 내주었고 도시민과 함께 하는 나눔의 축제가 되었다. 또한 농촌과 농업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교육적인 가치도 중시한 행사였다. 그 후 시민으로부터 감사의 편지가 오기도 했는데 교육관의 귀한 자료로 남아있다. 그림3-8과 그림3-9는 1995년과 2003년에 열린 도농일심 교류회의 모습이다.



〈그림 3-8〉 1995년 도농일심 교류회(홍성환경농업교육관 제공)

〈표 3-9〉 도농일심 행사 감사 편지

도농일심 행사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

들녘에는 벼가 익어가고 아침 저녁 서늘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행사에 함께 참여해주신 가족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오리는 5/20 구입하여 6/6 오리 넣기 행사에서 지역 기관장들과 먼 곳에서 오신 가족들까지 약 500명이 참여하여 눈에 넣는 행사를 했습니다. 농민들이 처음 진행하는 행사였기에 부족하고 서투른 것이 많이 있어 참석하셨던 식구들께 불편을 끼쳐드렸던 것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을 농민들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작업을 함으로써 협동의 중요성과 공동 의식을 가질 수 있었고 또한 오리 숫자보다는 보내주신 마음에 더욱 흡족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리들이 일을 마치고 8월 말 경에 논에서 나왔는데 저희들이 작업이 늦어져서 이제야 연락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산에 나무를 베어다 불을 때지 않기 때문에 산이 우거져 들짐승이 많아져 안타깝게도 오리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내린 집중호우(홍성 홍동면 760mm 전국최고)로 인하여 오리가 물에 떠내려가고 벼 이삭 위까지 물이 차올라 오리가 벼 이삭을 먹어 피해를 입었고 둑이 무너져 잘 지은 농사의 절반은 흙으로 덮어버린 피해 입은 농가도 있습니다. 지난 번 많은 비로 인하여 길이 끊기고 농토가 망가져 복작 작업 등으로 추석 전까지는 보내드려야 했는데 이렇게 미루어짐을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위로의 전화도 하시고 안부의 전화도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성의껏 보내주신 오리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께서 흡족할 만큼 많은 오리를 보내드릴 수 없어 죄송하고 또한 각 가정마다 덕으로 보내드릴 수 없는 불편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약 5만평의 땅에 농약도 제초제도 쓰지 않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가족 여러분의 마음에 저희 농민들은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며 땅을 지키고 올바른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95. 9. 14

정농환경보전오리농법단지 단원 일동

출처: 홍성친환경농업교육관 내부자료



〈그림 3-9〉 2003년 도농일심 교류회(홍성환경농업교육관 제공)

오리 보내주기 행사와 오리 넣기 행사 후에는 도시민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생산자들의 오리 고기 보내주기 행사가 진행되었다. 표3-9는 감사의 편지와 더불어 농사의 경과, 그리고 당초 약속한 오리고기 보내주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1995년에는 들짐승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소비자에게 오리고기를 전해주는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생산자가 처한 상황을 구체적인 메시지를 통해 도시민에게 전함으로써 이해를 얻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는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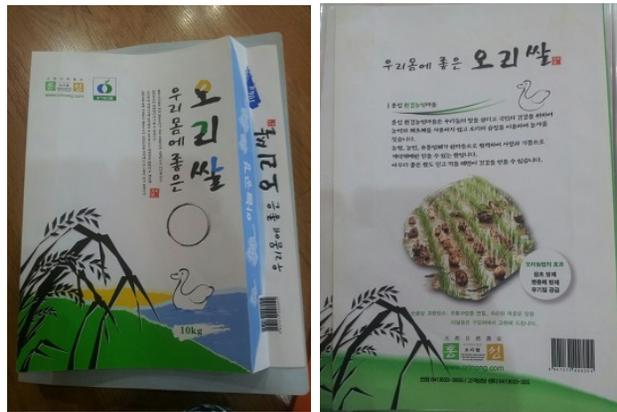
그리고 며칠 뒤인 9월 22일과 23일에 어렵게 농사를 마친 오리를 고기로 보내주는 행사가 마련되었다(표3-10). 생산자단체에서 오리를 직접 가지고 서울로 가서 경실련 정농 생협에서 소비자에게 나누어주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표 3-10〉 오리 보내주기 행사 안내

오리 보내주기 행사 안내	
일시	1995.9.22 12:00~22:00 1995.9.23 10:00~18:00
장소	가락동 경실련 정농 생협
위치	경실련 정농 생활협동조합

출처: 홍성친환경농업교육관 내부자료

오리농법으로 생산된 쌀은 그림3-10과 같이 포장되어 판매되었다. 무농약 쌀과 유기농 쌀 등 두 종류로 판매되었는데, 오리농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포장에 담아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표3-11과 표3-12). 즉 환경이 되는 땅과 건강에 대해 강조하면서 농협과 농민, 유통업체가 하나가 되어 협력을 통한 믿을 수 있는 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성분 분석 등이 담긴 단순히 판매물로의 쌀이 아니라 마을에 관한 안내와 오리농법 그리고 ‘농민의 양심’을 다지는 결의문이 담겨진 다양한 스토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그림 3-10〉 홍동의 오리쌀 브랜드

〈표 3-11〉 무농약 재배 오리농법 쌀 포장 내용

무농약 오리농법 쌀 포장 내용
홍동농협 무농약 오리농법쌀

농약과 제초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청둥오리가 농사지은 쌀
충남 홍성 홍동농업협동조합 20kg

홍성환경농업마을

홍성환경농업마을은 우리들이 땅을 살리고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농약과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오리의 습성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습니다. 농협, 농민, 유통업체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사랑과 기쁨으로 계약재배한 믿을 수 있는 쌀입니다. 아무리 좋은 쌀도 믿고 먹을 때만이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리농법 모습 :효과) 잡초방제/병충해방제/유기질공급
농민의 양심 소비자의 믿음 우리 땅과 우리 건강 지켜진다.

출처: 홍성친환경농업교육관 내부자료

〈표 3-12〉 유기농 재배 오리농법 쌀 포장 내용

우리 몸에 좋은 오리 쌀 / 땅사랑

홍성환경농업마을은 우리들의 땅을 살리고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농약과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오리의 습성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습니다.

농협, 농민, 유통업체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사랑과 기쁨으로 계약 재배한 믿을 수 있는 쌀입니다.

아무리 좋은 쌀도 믿고 먹을 때만이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출처: 홍성친환경농업교육관 내부자료에서 발췌 및 정리

2) 오리농법의 확산과 흑미의 도입

1996년에는 일반미와의 차별성을 위해 중국에서 들여온 검정 흑향미 재배를 시작하게 된다. 흑미의 도입은 부가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져 더 많은 생산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두 농가만 시범적으로 흑미 재배를 시작하였으나 향과 맛이 좋고 세포를 재생한다는 기능적 측면까지 부각되면서 주위 농가들로 확산되어 갔다. 당시 흥동농협과 최초로 계약재배하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판로의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1977년에 설립된 흥동농협은 당시 쌀의 정부수매만 담당하였고, 주요 취급 품목은 표고버섯과 잡곡이었다. 이후 농협 간 합병의 움직임으로 사업적으로 위기를 느끼고 있을 무렵, 흥동 지역의 흑향미를 매취하기 시작하면서 사업 규모가 확대되어 갔다. 한때 연간 4만 3천 톤이던 쌀 취급 물량은 흑향미를 취급하고 나서는 10만 톤으로 늘어났다²⁴⁾. 당시 흑벼(쌀이 아닌 벼의 상태로 취급)는 30kg에 10만원이었는데, 현재 일반벼가 40kg 당 7만 8천원에 판매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가격이었다. 유기농 흑향미의 반응이 좋아지자 유기농 일반벼도 취급하게 된다.

농협과 안정적으로 계약이 성사되면서 흑미를 짓겠다는 농가수가 늘어나게 되자 문당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을 내에서 검정쌀을 짓는 순서를 정하는 ‘검정쌀 규약’을 만들게 된다. ‘검정쌀 규약’은 우선적으로 농토가 적은 사람과 지역 외부 사람, 지역 사람의 순으로 나누어주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흑미 30kg 조곡 쌀 한 가마니 당 1만원의 적립금으로 마을공동체를 위한 환경기금으로 조성하게 된다²⁵⁾. 이 환경기금으로 1998년에 문당리 환경농업교육관 부지를 시는데 쓰이게 된다.



〈그림 3-11〉 흥동농협

24) 2015년 현재 전체 수매량은 약 120톤으로 그 가운데 흑미는 약 25톤을 취급하고 있다.

25) 공동의 마을 기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 계획’(2000)에도 잘 나와 있는데 보고서의 제안보다도 이른 시기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리농법은 1994년에 1만평, 1천 마리로 시작되어 2000년에는 30만평, 2만 6천 마리까지 늘어나게 된다(표3-13). 10평에 한 마리 정도로 오리를 방사했다. 실천 농가수는 1994년 2명에서 시작하여 1995년에 문당리를 중심으로 19농가로 늘어났고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0년에는 127명으로 확대되었다.

〈표 3-13〉 오리농법의 실시 내용(1994~2000년도)

연도	면적 (평)	오리수 (마리)	농가수 (호)
1994	10,000	1,000	2
1995	40,000	4,000	19
1996	90,000	9,000	30
1997	150,000	15,000	50
1998	180,000	18,000	60
1999	210,000	20,000	80
2000	300,000	26,000	127

출처: 주형로(2000)

2000년에는 본격적으로 계약 판매를 하게 되는데 쌀이 아닌 벼의 상태로 계약하고 있으며 지역 생협과 회사만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회사와도 계약을 맺게 된다(표3-14). 일반벼는 총 10,500가마니로 420톤을, 흑벼는 4,000가마니 120톤, 찰벼는 1,000가마니 40톤으로 총 580톤의 쌀을 계약 판매하게 되었다. 대금은 흥동농협에 납부하도록 했으며 공급시작일은 2000년 10월 이후로 하고 있다. 이는 수확 단계 이전에 이미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여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 하겠다.

〈표 3-14〉 2000년도 유기농 쌀 계약처(단위: 가마니)

계약처	일반벼(단량 40kg)	흑벼(단량30Kg)	찰벼(단량40kg)
P생협	3,000		500
P사	2,000	1,000	500
D사	1,000	2,000	
C사	1,000	1,000	
G사	1,000		
M사	1,500		
S사	1,000		
총계	10,500	4,000	1,000

출처: 흥성친환경농업교육관 내부자료에서 발췌 및 정리

〈표 3-15〉 2000년도 오리쌀 생산자를 위한 오리 입식지원자금 증서

지원자명	금액(원)
한국여성민우회생협	2,520,000
부천생협	540,000
성남주민생협	936,000
안산생협	396,000
천안생협	414,000
푸른생협	792,000
인천생협	280,000
석왕사생협	60,000
바른생협	360,000
땅모임생협	432,000
한누리생협	1,800,000
일반 개인	162,000
총계	8,692,000

출처: 홍성친환경농업교육관 내부자료

표3-15는 생협에 의한 오리쌀 생산자를 위한 오리 입식지원자금 증서이다. 한국여성민우회 생협을 시작으로 11개 생협과 일반 개인으로부터도 지원을 받고 있다. 총 869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오리와 오리망 구입이 가능했다.

1999년 당시 관행 재배와 무농약 재배, 유기 재배로 생산된 쌀의 생산량, 수매 단가, 총수입, 비용, 소득 등은 표3-16과 같다. 생산량에서 보면 관행 재배와 무농약 재배는 차이가 나지 않으며 유기 재배의 경우는 10% 정도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매 단가는 관행 재배가 40kg 한 포대에 54,240원인데 반해, 무농약 재배는 70,000원으로 약 1.29배 비싼 값에 수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기 재배의 경우는 관행 재배에 비해 약 1.4배 비싸다. 생산량과 수매 단가를 곱한 총수입은 관행에 비해 유기 재배가 약 1.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농약과 유기 재배를 비교하면 총수입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비용은 무농약 재배가 관행 재배보다 약 4배 높았고, 유기 재배는 관행 재배보다 약 4.6배가 더 높았으며, 무농약과 유기 재배의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소득은 무농약 재배가 관행 재배에 비해 수매 단가는 높으나 비용면에서도 높은 관계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유기 재배는 관행과 무농약 재배와 비교해서 소득이 조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16〉 관행 및 무농약, 유기 재배의 벼농사 소득 비교(1999년)

	관행 재배	무농약 재배	유기 재배
생산량	50	50	45
수매 단가	54,240	70,000	76,000
총수입	2,712,000	3,500,000	3,420,000
비용	250,000	1,006,360	1,156,360
소득	2,462,000	2,493,640	2,263,640

출처: 홍성친환경농업교육관 내부자료

- 주: 1. 기본 공통적인 생산 비용(경운 작업, 로타리 작업, 이앙 작업, 콤바인 작업 등)은 제외함
 2. 생산량은 40kg 한 포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표3-17은 표3-16에서 제시된 비용을 구체적인 항목별로 관행 재배와 무농약 재배, 유기 재배로 구분하여 비교한 것이다. 무농약과 유기 재배에 쓰이는 오리값을 살펴보면 한 구간인 900평에 90마리가 투입되고 마리당 1,800원이 소요되어 전체 비용의 약 14%인 16만 2천원이 소요되었다. 오리와 관련된 비용으로 제시되어 있는 오리망 시설과 오리집, 망 작업비 등 총 비용은 526,360원으로 전체 비용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다. 무농약과 유기 재배의 비교에서는 퇴비값에서 유기 재배의 경우 무농약에 비해 3배가 많이 들었고 효소 살포 부분이 더 추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7〉 관행 및 무농약, 유기 재배의 벼농사 비용 비교(1999년)

	일반 재배	무농약 재배	유기 재배	비고
오리망시설		52,360	52,360	망, 와이어, 기둥
오리집		20,000	20,000	5년 사용기준
망 작업비		40,000	40,000	남자1인
오리관리		100,000	100,000	물관리 포함
오리값		162,000	162,000	90*1800원
오리사료		112,000	112,000	5kg*70일
오리망제거		40,000	40,000	
인력제초 작업		300,000	300,000	식대포함
비료	50,000	30,000		
농약	150,000			
제초제	50,000			
퇴비		100,000	300,000	
효소 살포			100,000	
기타		50,000	70,000	
합계	250,000	1,006,360	1,156,360	

출처: 홍성친환경농업교육관 내부자료에서 발췌 및 정리

- 주: 1. 못자리에서 수확까지의 공통 작업 비용은 제외함
 2. 900평 기준

2000년으로 넘어서면 372농가가 유기농업을 하게 된다(표3-18). 당시 홍동면에서 유기농업은 문당리, 금평리, 홍원리, 효학리, 운월리, 원천리, 화신리, 구정리, 팔괘리, 월현리, 대영리, 신기리, 금당리, 수란리로 법정리 14개리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총 23개 마을에서 실시되고 있었다. 다시 2년 후인 2002년에는 약 100농가가 더 늘어 472농가가 홍성 환경보전 오리농 작목회 회원으로 되어 있다. 이 시기에는 장곡면의 37농가, 청양군 화성면의 18농가, 보령시 청라면의 32농가가 홍성의 오리농 작목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유기농업이 타지역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타지역으로의 확대는 농가 전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양군과 보령시 농가들은 홍성에서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이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한편 전체적인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홍원리와 운월리 상반월, 구정리 동막, 원천리 증원은 농가수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금당리 성당의 경우는 4농가에서 모두 없어졌다.

표3-19는 2005년과 2015년의 오리농법 실시 농가수 및 면적을 보여주고 있다. 2005년에는 총 315농가, 약 331만²m에서 오리농법이 이루어졌고 2015년 현재는 211농가, 약 222만²m에서 오리농법이 실천되고 있다. 2005년에는 참여 농가수가 15개 마을만으로도 315농가에 달해 실질적으로 농협 회원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다. 2002년과 비교하면 2005년의 농가수는 전체적으로 비슷하거나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신기리의 경우 급격히 늘었다. 2005년과 2015년을 비교하면 11년 사이에 홍원리 하원과 효동, 팔괘리 석산은 회원 농가가 없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고령화로 인한 농가수의 감소가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 운월리 운곡과 상반월, 대영리와 신기리에서도 농가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하겠다. 그 외의 마을에서는 미미한 감소가 나타나는 정도로 농가수가 유지되고 있다.

2005년은 농협만의 회원으로 새롭게 정비하게 된 해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생협과 농협에서 동시에 농가들을 관리해 왔는데 생협 쪽에 납품하는 농가들과 분리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또 먼 거리에 위치해 있는 장곡면을 비롯하여 청양군과 보령시의 농가들은 각각 독립하게끔 하였다. 이는 2005년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하던 국가 인증에서 흡살림이 하는 민간 인증으로 바꾸면서 인증을 강화하게 되고 이를 통해 회원농가들의 자체 정화가 맞물리면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다. 이로써 13개 마을의 현 체제가 마련되었다. 2000년부터 2005년에 걸쳐 오리농법은 홍동에서 피크로 2005년까지 약 5만수의 오리를 방사했다. 이러한 성장세는 2008년까지 지속되었다.

〈표 3-18〉 2000년과 2002년 홍성 오리농 작목회 농가수 및 면적

개수	마을이름	2000년		2002년	
		농가수	면적(m ²)	농가수	면적(m ²)
1	문당리 문산	38	425,165	40	447,391
2	문당리 동곡	9	82,295	10	119,643
3	금평리 상하중	25	244,593	24	293,609
4	금평리 김애	18	255,756	18	159,074
5	홍원리 모전	30	289,467	29	292,309
6	홍원리 상원	26	147,003	23	133,880
7	홍원리 하원	11	49,552	11	55,935
8	효학리 효동	17	129,873	18	141,623
9	효학리 학계	11	72,318	11	67,252
10	운월리 창정	14	119,134	13	110,932
11	운월리 운곡	24	198,399	26	185,995
12	운월리 상반월	19	202,233	13	139,190
13	월현리 개월	20	148,853	24	168,921
14	화신리1	14	197,654	22	278,155
15	화신리2	11	124,776		
16	구정리 동막	23	117,484	19	90,376
17	팔괘리 송정	6	19,510	11	72,157
18	팔괘리 석산	7	30,736	7	32,068
19	원천리 중원	13	66,199	10	44,302
20	대영리	23	94,115	8	25,833
21	신기리 신촌	8	62,700	9	68,404
22	금당리 성당	4	33,700		
23	수란리 산양	1	13,806	2	24,885
24	구정리 고요			8	79,115
25	신기리 만경			5	47,893
26	금마면 장성리			24	217,472
27	장곡면 가송리			10	70,051
28	장곡면 대현리			19	86,303
29	장곡면 도산리			8	64,569
30	청양군 화성면			18	116,116
31	보령시 청라면			32	264,800
	총계	372	3,125,321	472	3,898,253

출처: 홍성친환경농업교육관 내부자료에서 발췌 및 정리

〈표 3-19〉 2005년과 2015년 홍성 오리농 작목회 농가수 및 면적

개수	마을이름	2005년		2015년 현재	
		농가수	면적(m ²)	농가수	면적(m ²)
1	문당리 문산	54	680,704	39	458,731
2	문당리 동곡			11	121,783
3	금평리 상하중	27	299,975	25	291,920
4	홍원리 모전	30	380,503	27	413,763
5	홍원리 상원	31	231,433	26	183,880
6	홍원리 하원	13	91,768		
7	효학리 효동	17	185,108		
8	효학리 학계	13	138,820	8	51,868
9	운월리 창정	12	121,672	11	116,770
10	운월리 운곡	27	291,472	17	156,401
11	운월리 상반월	20	281,728	11	124,850
12	운월리 송풍	5	52,418	8	61,610
13	팔괘리 석산	15	124,825		
14	대영리	24	195,043	12	91,704
15	신기리 신촌	27	237,112	11	105,410
16	금당리 성당			5	38,161
17	금평리 김애(생)				
18	월현리 개월(생)				
19	화신리1(생)				
20	화신리2(생)				
21	구정리 동막(생)				
22	팔괘리 송정(생)				
23	원천리 중원(생)				
	총계	315	3,312,581	211	2,216,851

출처: 홍동농협

주: (생)은 생협에 납품하는 곳으로, 2005년에 완전히 분리되었다.

이러한 홍동에서의 오리농법의 도입은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기에 이른다. 표3-20은 전국의 2004년 오리농법 실천 농가수와 면적을 나타내고 있다. 2004년에는 6,071농가가 4,731ha에 걸쳐 오리농법을 실시하였고 2005년에는 7,409농가, 6,253ha에서 실시할 계획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경기와 충남 및 강원지역에서 큰 실적을 보이고 있다.

〈표 3-20〉 전국 오리농법 실천 농가수 및 면적

구분	시기	농가수(호)	면적(ha)
합계	2004년 실적	6,071	4,731
	2005년 계획	7,409	6,253
부산	2004년 실적	12	10
	2005년 계획	12	10
대구	2004년 실적		
	2005년 계획		
인천	2004년 실적	88	91
	2005년 계획	100	109
광주	2004년 실적	5	2
	2005년 계획	6	2
대전	2004년 실적	14	2
	2005년 계획	26	9
울산	2004년 실적	86	78
	2005년 계획	111	93
경기	2004년 실적	1,485	1,243
	2005년 계획	1,440	1,304
강원	2004년 실적	1,053	873
	2005년 계획	1,273	1,123
충북	2004년 실적	149	87
	2005년 계획	148	99
충남	2004년 실적	1,052	1,041
	2005년 계획	1,307	1,258
전북	2004년 실적	368	270
	2005년 계획	478	378
전남	2004년 실적	571	452
	2005년 계획	940	1,007
경북	2004년 실적	1,035	501
	2005년 계획	1,327	721
경남	2004년 실적	153	81
	2005년 계획	241	140

출처: 홍성친환경농업교육관 내부자료에서 발췌 및 정리

한편 오리농법의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2005년이 되면서 흑미는 그전까지의 증가세가 지속되지는 않았다. 2005년에는 흑향미가 예전만큼 팔리지는 못했고 2006년에는 적자가 발생했다. 쌀을 350g 소비한다고 하면 약 10%에 해당하는 30g을 흑향미를 섞어 먹게 되는데 이미 판매되고 있는 양만으로도 포화상태였다. 이 시기는 또한 전국적으로 유기농 쌀이 확산되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한 이유로 2005년부터는 쌀 소비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쌀

소비량 자체에 대한 감소 경향도 한 몫을 차지했다. 이 때문에 농협에서는 농가로부터 매취하던 쌀을 수량으로 제한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2007년 당시 농협과 계약하고 있던 농가수는 270농가에서 225농가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50여 가구에는 고령화로 인해 농사를 그만둔 농가들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는 유기농 일반벼가 주를 이루고 있고 흑향미는 일부만이 남았다. 연간 수매되는 1,500톤 가운데 20톤 정도가 흑미이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흑미 종자가 퇴화되어 간 것도 한 몫했다. 다시 말해 F1에서 F2로 점점 섞여가버림으로써 흑향미의 질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나중에는 향도 많이 사라졌다고 한다²⁶⁾.

문당리에서는 지구조성사업 가운데 하나로 마을 내에 친환경벼전문 도정공장을 설립하게 되는데 2002년부터 운영과 부지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어 2003년에는 이미 도정에 의한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정미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4~5인 정도의 인원으로 운영되었으며 마을 교육관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다. 풀무생협도 2008년 2월에 자신들의 전용 도정 시설을 만들기 전까지 문당리의 정미소를 사용해왔다. 문당리 정미소는 2008년이 되면서 유기농 쌀 생산의 증가로 취급량이 늘어남에 따라 흥동농협으로 이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편 초창기에는 오리농법을 하는 농가 간의 국제적인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1996년 8월에는 흥동 농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차 아시아 오리벼농사 농민대회가 일본 큐슈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97년 7월에는 풀무학교에서 제2차 대회가 열렸다. 여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베트남 등지에서 약 200명이 참가했다. 1999년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3차 대회가 열렸으며 2004년에는 제4차 대회가 중국 진강에서 열렸다. 여기에 참석하기 위한 일본 농민들 20여명은 흥동에서 흥동 농민들과 만난 후에 중국 대회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 또 2004년부터는 효고현의 시모고 농협(下郷)²⁷⁾과도 활발한 교류를 가지는 등 많은 국제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26) 2012년부터 새롭게 종자 개량하여 보성흑찰을 재배하게 된다.

27) 시모고농협은 오이타현 야마케초(大分縣耶馬溪)에서 60년 가까이 '지산지소, 신선, 안전, 안심'을 중심으로 직거래를 통한 농산물 판매를 해오고 있다.

3) 오리농법의 정체와 오리의 상징성

그렇다면 오리농법이 갖는 의의와 특성 및 효과는 무엇인지 표3-21과 표3-22를 통해 알아보자. 주목할 만한 대목은 잡초와 해충이 오리의 먹이로서 자원이 된다는 점과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논둑을 오리의 사육 공간으로서 활용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수확에 초점을 두었던 지금까지의 관행농업과는 달리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종합적인 기술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로써 오리는 벼와 함께 동반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기술하고 있다. 단지 제초와 병해충을 제거하는 기술적인 측면이 아닌 유기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측면에의 중요한 요소로서 오리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1〉 오리농법의 특징

- 가. 벼농사에 있어서 방해물인 잡초와 해충이 자원(오리의 먹이)으로 전환
- 나. 그동안 이용하지 않았던 공간인 논둑을 오리 사육 공간으로 이용
- 다. 화학비료와 농약을 이용한 다수확 벼농사의 재배적 관점에서 자연생태계 보전 등 전체적 효과, 종합적인 기술
- 라. 환경농업기술로 적은 면적에서만 가능했으나 넓은 면적도 가능
- 마. 농약 등의 위험에서 탈피
- 바. 벼와 오리와의 동시적이면서 동반적인 관계

출처: 주형로(2000)



〈그림 3-12〉 흥동 오리들(환경농업교육관 제공)

〈표 3-22〉 오리농법의 효과

가. 잡초방제효과

- 1) 오리가 직접 폭넓은 부리로 잡초를 먹는다
- 2) 진흙 속에 있는 잡초 종자를 먹는다
- 3) 발이나 부리로 흙탕물을 일으켜 싹트기 시작한 잡초 종자를 수면에 뜨게 하거나 작은 풀을 밟아 버린다.
- 4) 오리의 배설물과 흙탕물이 잡초의 싹틈을 억제한다.
- 5) 각반한 흙탕물이 잡초나 잎 위에 뿌려져 가라앉아 풀이나 종자가 흙탕물에 묻힌다.
- 6) 계속된 오리의 썩레질과 중경탁수효과에 의해서 흐린 물이 논면에 내려 쪼이는 태양광선의 조도를 내려가게 하여 잡초의 광합성을 저해한다.

나. 해충방제효과

오리가 해충을 방제하는 것이 농약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익충과 해충의 구분 없이 모든 벌레를 방제하는 것이 농약이라면 오리는 벌레를 완벽하게 없애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벼멸구, 거미, 진딧물 등의 마리 수를 비교하면 거미 수가 오리를 방사한 논에서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리가 벼 포기를 흔들어 위쪽에 붙은 벌레도 수면으로 떨어뜨려 잡아먹는 것을 볼 수 있다.

다. 썩레질과 탁수효과

오리는 부리, 발, 가슴으로 논흙을 각반, 중경한다.

- 1) 논물을 저어주기 때문에 논물에 녹아들어가는 산소량이 증가
- 2) 흐린 물의 각반으로 분해 촉진
- 3) 가스 장애 완화
- 4) 수온이 올라 보온 효과
- 5) 발아한 잡초싹을 덮어 생장 억제

라. 양분공급효과

오리는 해충과 잡초 등을 먹고 배설물을 논에 유기질 비료로 공급한다.

마. 벼잎자극효과

오리가 부리로 포기 사이를 쪼거나 몸으로 건드리므로 벼 포기가 자극을 받아 강해진다.

바. 병균방제효과

오리가 벼 사이를 활동하며 늘어진 잎을 제거하게 되어 통풍이 잘되므로 병균이 발생하지 않는다.

출처: 주형로(2000)

오리농법을 이용한 쌀 농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최OO씨의 1998년 당시의 오리농법 영농일지를 통해 그 과정을 알아보려고 한다(표3-23). 3월 18일 자가 발효 퇴비 살포를 시작으로 못자리 상토를 준비하게 된다. 삼일 정도의 시간을 가진 후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논에 퇴비를 뿌리는 일을 한다. 4월 6일에 종자 침종을 하고 있는데 관행농업의 경우 이 단계에서 이미 종자를 농약에 절이며 소독을 하게 되지만 유기농업에서는 농약 대신에 현미 식초를 50배액 한 것으로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일주일 정도 지난 후인 4월 14일에 종자를 파종하고 5월에 트랙터로 로터리 작업을 한 후에 5월 17일부터 삼일에 걸쳐 이앙기를 이용하여 모내기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모를 파종한 후 35~45일 이상이 지난 후에 모를 심어야 한다는 것이다(주형로, 2000). 이렇게 해야 튼튼한 성묘로 자랄 수 있어서 오리가 헤집고 다녀도 쓰러지지 않는다.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는 너구리나 삵 등이 등 야생 동물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해 대나무 말뚝을 준비하고 오리망을 수선한 후에 설치하게 된다. 잘 키워진 육모가 빨리 활착되도록 한 후 오리 넣을 준비를 하게 된다. 육모가 자라는 시기와 함께 피의 씨앗도 모내기 후 보름 사이에 발아하여 자라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에 새끼 오리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8년에는 6월 7일에 풀무학교 운동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한 가운데 오리 입식 행사가 열렸으며 금평 오리 농법 단지를 견학하고 함께 오리 입식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날인 6월 8일, 모심은 지 20일만에 마리당 2,000원에 구입한 오리 400마리를 논에 방사하고 있다. 그 후에는 오리가 하지 못하는 제초 작업을 틈틈히 인력으로 충당하고 있다²⁸⁾.

벼 이삭이 나오면 오리를 논에서 내어야 한다(주형로, 2000). 흑향미의 경우 7월 28일에, 일반미의 경우는 그보다 20일 정도 늦은 8월 15일에 오리를 잡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²⁹⁾. 이렇게 잡은 오리는 마리당 3,000원에 다시 업자³⁰⁾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해서 흑향미는 9월 10일에 콤바인을 이용해서 수확을 하고 일반미는 10월 5일에 수확을 하게 된다.

28) 문당리 유기농업 실천 농가 인터뷰 가운데서도 오리로써 모든 제초 작업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틈틈이 손으로 풀을 뽑아줘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이 농가들에게 육체적인 노동력으로 부담이 가중된 부분이라고 하겠다(제3장 3절 참고).

29) 보통은 2주 후에는 오리를 잡아야 한다.

30) 오리는 농협을 통해 오리 농장에서 농가로 넘어온다. 농협이 새끼오리를 분양하게 되는데 중간 거래를 담당하면서 200원의 이자를 챙겨가게 된다고 한다. 우렁이도 농협을 통해 받게 되며 kg당 4,800원이다. 900평에 20kg의 우렁이를 방사해야 한다.

〈표 3-23〉 오리농법 영농일지(1998년)

날짜	작업명	영농기록
3월 18일	못자리 상토 준비	자가 발효 퇴비 살포
3/21~27	본답 퇴비 내기	
4월 6일	종자 침종	현미 식초 50배액 소독
4월 14일	종자 파종	
4월 15일	본답 갈이	
4월 16일	본답 갈이	
4월 17일	못자리 설치	
4/18~19	본답 갈이	
5/11~14	본답 로터리 작업	트랙터 로타리
5월 16일	못자리 비닐/활대 제거 작업	
5/17~19	모내기	산파 4조식 이앙기 이용 모내기 작업 실시
5월 21일	결주보식	
5/29~6/5	오리망 설치	대나무 말뚝 준비, 오리망 수선, 오리 막사 신설 및 보수
6월 7일	오리 입식 행사	풀무학교 운동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참석 금평 오리 농법단지 견학 및 오리 입식
6월 8일	본답 오리 넣기	풀무학교에서 마리당 2,000원씩 400수 구입 후 논에 방사
7/2~15	본논 제초 작업	오리가 하지 못하는 제초 작업을 틈틈히 인력으로 제초
7월 28일	흑향미 논 오리 붙잡기	마리당 3,000원씩 판매
8월 15일	일반벼 논 오리 붙잡기	
9월 10일	흑향미 수확	콤바인 이용 수확 후 건조 저장
10월 5일	일반벼 수확	

출처: 홍성친환경농업교육관 내부자료

표3-24는 오리농법으로 지어진 농사에 대한 1999년도 당시 홍성 오리농 작목회의 친환경농산물 표시 사용에 대한 신고서이다. 그 내용을 보면 유기농 쌀에 대한 재배면적 총 229,999평과 생산계획량은 97.9톤으로 하고 있으며, 발효퇴비와 오리 이용으로 토양관리를 하고 화학비료 대신에 오리를 이용하고 있다. 오리 분뇨와 함께 소와 돼지 분뇨를 톱밥과 섞어 퇴비를 만들어 사용하였고, 농약을 대신해서는 현미 식초와 목초액을 혼합하여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인증을 받게 되면 그림3-13과 같이 친환경농산물 표시 팻말을 사용할 수 있다.

〈표 3-24〉 홍성 오리농 작목회 친환경농산물 표시 사용 신고서

항목	내용
사용량표시	: 유기농
품목	: 쌀
재배면적	: 229,999평
생산(계획)량	: 97.9톤
생산기간	: 5월~10월
출하기간	: 12월~9월
토양관리방법	: 발효 퇴비, 오리이용
비료사용방법	: 오리이용, 오리분 및 퇴비 시비(우분, 돈분, 톱밥)
농약사용방법	: 현미 식초와 목초액 혼합 사용

환경농업육성법 제 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의 표시 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원 홍성 청양출장소장

출처: 홍성환경농업교육관 내부자료



〈그림 3-13〉 친환경농산물 표시 팻말

이후 오리농법은 2008년부터 발생한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그해 완전히 멈추게 되었다. 쌀 값 하락을 우려하여 많은 농가들이 오리로 농사짓는 것을 포기했는데 한 해 안 지어보니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후에는 오리를 사육하거나 관리하는 부담으로 인해 오리농법을 그만

두는 농가가 늘어나게 되었다. 약 1,500명 가운데 68%가 65세 이상이고 그 가운데 약 80%가 70세 이상인 현실을 감안하면 오리 밥주기나 오리망 설치 등은 농민에게는 큰 부담이었다고 하겠다(홍동농협 인터뷰). 그러나 이에 대한 아쉬움도 크게 남았다. 오리농법은 단지 농법만이 아니라 교감과 교육적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리는 매년 6, 7월이면 농가가 아니더라도 가족 단위의 도시민들이 구경 올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오리와의 교감을 통한 교육적인 접근이 줄어들어는 현실에 아쉬움이 남는다(농가 인터뷰).

오리농법을 대신해서 85%의 농가가 우렁이 농법으로 전환하게 된다³¹⁾. 우렁이 같은 경우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논에 넣는 적절한 시기 등 관리체계에 대한 공부가 부족했다. 시기적으로 우렁이는 6월 초부터 중순 즈음에 넣고 7월 10일경에 우렁이가 빠지지 말라고 도구를 치게 된다. 열대성이기 때문에 더운 때를 피해서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논에 넣어야 했으나 이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서 넣기도 전에 죽어 있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했다. 그 결과 14톤 중에 6톤 정도가 폐사하여 다시 투입해야만 하는 일도 있었다. 우렁이 농법이 정착되는 데는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제초의 면에서는 우렁이가 오리농법을 대신할 만 하다고도 하지만 병충해와 관련해서는 역시 오리농법이 더욱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농가 인터뷰). 충남쌀은 경기쌀과 경쟁관계에 있는데 충남 지역에서는 주로 추청을 재배하고 있다. 추청은 일반적으로 벳짚이 약해서 오리로 재배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우렁이만으로는 벳락을 맞은 것처럼 노랗게 되는 병이 발생하여 50% 밖에 이삭이 안 나오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200평 한 마지기에서는 9~10가마니가 나와야 하는데 그 해에는 6가마니밖에 생산하지 못했다. 이는 수확량의 감소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벳가 충분히 수확되지 못하면서 퇴비로 사용하기 위한 벳짚이 확보되지 못해서 부족한 양을 외부에서 사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면 유기농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순환농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오리농법은 홍동마을에서는 상징적인 활동으로 남게 되었지만 2013년부터 오리농법

31) 우렁이는 당진에 있는 업자에게서 받아왔는데 2013년에 업자가 홍성군 금마면으로 이주해 오면서 더욱 가까이 연계 해가면서 농협이 직접 맡아 우렁이를 담당하게 되었다(홍동농협 인터뷰).

을 지켜 나가기 위해 농협작목회 회원들은 세 구간 중 한 구간(900평)은 오리농법으로 한다는 의무사항을 원칙으로 세우게 되었다. 다섯 구간이면 두 구간을, 열 구간이면 세 구간은 오리를 방사해야 한다³²⁾. 또 하나, 오리농법을 실천하는 농가에게만 부담이 가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에서 오리농법을 고수하는 사람에게는 오리 한 마리당 760원을 보전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³³⁾.

오리농법은 힘은 들지만 농협에서도 원하며 그 원칙만은 지키자는 생각이다(농협작목 회장 인터뷰).



〈그림 3-14〉 흥동의 유기농 논과 오리 모습(2014년)

2014년 현재 농협작목회³⁴⁾에서는 150구간, 135,000평에서 오리농법을 시행하였으며, 총 3천 2백 마지기에서 3만 2천 가마니를 생산했다(농협작목회장 인터뷰). 2015년 현재 농협작목회에서는 오리 3,185마리와 우렁이 14,440kg을 사용하였다. 전년도인 2014년의 경우 오리가 4,030마리가 사용된 반면 우렁이는 14,210kg가 사용되었다(흥동농협 인터뷰). 오리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그 대신에 우렁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2) 농협작목회장인 박병운씨 같은 경우에는 14 구간을 농사짓고 있는데 세 구간이 의무사항이지만 여섯 구간을 오리농법을 해왔고 2014년에는 네 구간에서 오리농법을 했다. 매년 오리를 40일간 기르고 난 후 다시 농장에 팔기도 했는데 2011년부터는 오리를 수거해가려고 하지 않아서 다음 해에 새끼오리로 교환하는 조건으로 오리를 넘겨주게 되었다. 박병운씨의 마을인 흥원리에서는 2014년에 1,900여 마리의 오리를 방사했다.

33) 작년 쌀에 대해서는 한 가마니당 78,000원을 받았다.

34) 작목회 총회는 매년 2월말에 열리며,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의 5명으로 구성된 임원이 중심이 되어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회의를 열고 있다.

3. 사례연구: 홍동면 문당리 문산마을

본 조사는 홍동에서의 유기농업의 시작부터 변천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초창기 홍동에서 유기농업을 시작한 농가들은 언제, 어떤 생각으로 유기농업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유기농업을 하면서 힘든 점은 무엇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된 점은 무엇이었는지 등 유기농업과 관련된 당시의 실태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특히 지극히 일반적인 토착 농민들은 당시 유기농업의 도입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였는지, 또한 어떠한 농업을 실천하였는지를 알아보려고 홍동면 문당리 문산마을 유기농업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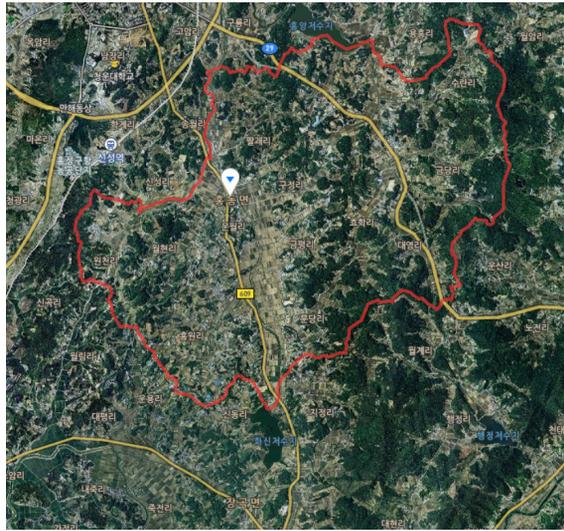
1) 개요

홍성군 홍동면의 지정학적 위치 및 일반적인 농업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홍성군은 2014년 12월 현재 2개읍, 9개면 총 443.93km², 인구 88,415명, 37,536가구로 구성되어 있다³⁵⁾. 그 가운데 홍동면은 아래 지도의 하얀 선 부분으로 법정 14개리, 행정리 33개 마을, 69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면적은 36.26km²로 그 가운데 농경지는 전(밭)이 729ha, 답이 936.7ha이며, 대지가 98ha, 임야는 1,721ha이다. 총 가구수는 1,629호로 그 가운데 농가가 1,347호 약 83%에 달하며 인구수는 3,772명이다. 전국 최대 규모의 축산단지답게 축산을 하는 농가의 경우, 한우를 키우는 농가가 436호로 6,351마리를 키우고 있으며 돼지를 키우는 농가는 52호로 48,383마리, 닭은 38농가가 263,251마리를 사육하고 있다³⁶⁾.

홍동면은 문당리와 금평리, 구정리, 운월리와 홍원리(일부)로 펼쳐지는 평야와 주위를 둘러싼 낮은 산들에 마을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평야 사이에는 삼교천의 줄기인 홍동천이 흐르고 있다. 남쪽으로는 행정구역상 장곡면 화신리로 넘어가는 홍동저수지(화신저수지라고도 함)가 위치하고 있다.

35) 홍성군 홈페이지 참고

36) 홍동면 홈페이지 참고



〈그림 3-15〉 홍동면 지도

그 가운데 문당리는 문산, 동곡, 서근터(안말), 원당이라는 4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문산과 원당이라는 이름을 따서 문당리라고 한다. 현재는 문산과 동곡이라는 2개의 행정부락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서근터와 원당마을까지 행정구역상 문산에 포함된다.

2015년 2월 현재 문당리 문산마을에는 80여 가구 약 160명이 살고 있으며, 그 중에 귀농인구는 열사람 정도 된다³⁷⁾. 한 가구를 제외하고는 74가구 정도가 농사를 짓고 있고 그 중에서 유기농업을 안 하는 농가는 여섯 가구 정도이다(문당리 이장 인터뷰).

본 연구에서는 문당리 가운데서도 문산마을에서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홍성환경농업교육관이 가지고 있는 내부 자료 가운데 가장 오래된 오리농업작목반 회원(1999년 7월)으로 되어 있는 농가들을 중심으로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가 홍동의 유기농업의 시작과 변천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37) 동곡마을에 거주하는 가구는 서른이 채 안된다.



〈그림 3-16〉 흥동면 문산마을의 여름과 겨울

조사 대상

인터뷰 대상 지역으로는 제1장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오리농법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문당리와 금평리 일대 중에서도 문당리의 문산마을을 선택하였다. 이것은 지역 내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기본 단위가 ‘자연마을’이기 때문이다³⁸⁾. 흥동면에서는 이처럼 마을 단위로 오리농법을 실천하는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으며 총 33개의 작목반이 존재하고 있다. 동시에 흥성환경농업교육관이 가지고 있는 내부 자료 가운데 가장 오래된 1999년 7월 흥성 오리농업작목반 회원 리스트(문당리 전체)를 바탕으로 당시에 유기농업을 했으며, 현재도 문당리 문산마을에 거주 중인 농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는 농가 회원의 명부로 남아있는 것이 ‘오리농업작목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오리농법을 사용하는 쌀농사를 짓는 농가로 한정하였다³⁹⁾.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조건 안에 드는 농가들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8) 충남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희망마을만들기’를 위한 연구 조사의 기본적인 단위가 된 것도 이러한 자연부락을 기반으로 하는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상으로는 대표인 이장을 중심으로 ‘리’ 단위의 활동들이 전개되나, 물리적으로 떨어진 마을 간에는 반드시 공통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번 흥동면 문당리 조사에서도 유기농가가 많았던 문산마을에 비해 지리적으로 멀리 위치한 동곡마을에서는 유기농업 실천 농가 수가 현저히 적었다.

39) 인터뷰 과정을 통해 쌀 이외의 밭농사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으며 대상 농가들이 들려주었던 유기농업에 대한 이야기는 논농사를 포함한 유기농업에 대한 의견으로 생각할 수 있다.

- 홍성환경농업교육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농가 리스트(1999)에 올라와 있는 농가
- 당시에는 유기농업과 무농약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서도 유기농업의 실적이 있는 농가
- 현재도 문당리 문산마을에 살고 있는 농가

1999년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총 32명 가운데 동곡마을 주민 한 명을 제외했고 이미 돌아가신 분이 네 명 있었다. 그리고 이주한 네 명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다섯 명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⁴⁰⁾. 홍성 오리농업작목반 회원 리스트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된 18명 이외에 1999년 이후에 유기농업을 시작한 두 명이 추가되어 총 2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실시한 20명의 평균 나이는 약 72세(최소값은 48세, 최대값은 86세)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1명, 50대가 3명, 60대가 2명, 70대가 10명, 80대가 4명으로 70대가 가장 많았다. 유기농업을 시작할 당시의 논 면적은 평균 약 3,540평(최소값 1,800평, 최고값 9,000평)이고 전체 20농가 가운데 16농가는 밭농사를 함께 짓고 있었다.



〈그림 3-17〉 문산마을 노인회관과 찜질방

40) 그들 가운데 두 분은 마지막까지 인터뷰 일정이 조율되지 못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밝힌다.

1999년 7월 현재 유기인증 논외 평균 재배면적은 약 1,062평(최소값 500평, 최고값 1,800평)으로 평균적으로 평당 약 1.39kg(최소값 1.32kg, 최고값 1.50kg)을 생산해내고 있었다. 무농약 인증 벼의 경우 유기 인증 논에 비해 약 2배 가량 넓은 평균 2,341평(최소값 800평, 최고값 4,840평)에서 재배되었다. 1999년 7월 당시 문당리에서는 유기농업과 무농약농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중 무농약농업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수확량은 농가간에 차이 없이 기술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3-25〉 문산마을 조사 대상의 나이 및 인증 면적과 재배량(단위: 평, kg)

	이름	나이	유기농시작 당시		1999년7월			2015년1월 현재	
			논 면적	밭 면적	유기논 면적	유기벼 수확량	무농약 논 면적	논 면적	밭 면적
1	강OO	74	9,000	1,000	883	1,170	3,420	1,000	2,000
2	김OO	75	2,000	0	600	800	920	3,400	300
3	곽OO	75	3,000	800	900	1,230	2,700	3,000	800
4	곽OO	80	4,000	700	1,800	2,520	2,700	4,000	700
5	김OO	67	3,000	2,000	500	660	2,900		
6	김OO	76	3,000	900	840	1,200	800	1,600	800
7	김OO	48	3,000	0	1,800	2,610	4,200	14,000	600
8	유OO	56	4,000	1,000	600	840	1,200		
9	유OO	75	4,000	500	600	840	2,800	4,000	500
10	이OO	56	4,000	2,000	1,400	2,100	1,900	10,000	4,000
11	이OO	75	5,200	1,500	1,600	2,180	1,600	임대	임대
12	이OO	81	2,000	1,000	900	1,260	900	3,900	300
13	이OO	69	4,000	조금	900	1,260	4,840		
14	이OO	78	3,000	1,500	950	1,290	2,630	0	
15	임OO	58	3,000	3000	1,740	2,320	1,920	2,000	3,000
16	정OO	81	5,000	1,500	1,300	1,850	1,500	4,000	3,000
17	황OO	75	2,400	0	1,000	1,400	2,400	4,500	400
18	황OO	75	2,400	0	800	1,060	2,800	4,000	1,800
19	신OO	77	1,800	500				0	0
20	이OO	86	3,000	1,500				3,000	1,500

출처: 인터뷰 조사



〈그림 3-18〉 노인회와 부녀회 회원들

2) 조사 결과

유기농업의 시작⁴¹⁾

졸업 후 마을을 떠났다가 귀향 후 농업에 뛰어든 두 농가를 제외하고는 인터뷰 대상 농가의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농사를 거들었으며, 학교를 졸업한 후부터는 생업으로 농사를 지었다. 유기농업의 시작은 주형로씨의 권유로 이루어졌으나 초반에는 선뜻 함께 나서지 못하고 오리농법이 시작되던 1994년 이후 많은 농가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농업으로의 전환 계기

문당리 문산마을의 모든 농가가 유기농업으로 전환한 계기는 주형로씨의 권유였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온전히 주형로씨의 권유에 의해서만은 아닌 사회적 배경도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농가들이 유기농법으로 전환하게 된 데에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농업과는 차별화된 농업을 모색하고자 했던 사회적 배경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농산물 개방화와 관련한 위기 의식이 농가들 사이에서 고조되던 당시 주형로씨가 제시한 유기농업은 설득력 있는 해결책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다.

41) 처음에는 몇 년도부터 농사를 지었냐고 질문을 드렸으나 대부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주위에 몇분이 함께 하셨나요?” “오리농법이 들어오기 전인가요, 후인가요?”로 바꾸어 질문하게 되었다.

당시 우루과이 라운드 등 개방화 물결에 따라 수입 농산물이 늘고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사에 대한 기대가 많이 꺾인 것은 사실이다(농가 인터뷰).

제조 작업 등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했던 점은 유기농업을 처음 접하게 된 농가들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또한 유기농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해 농약을 쓰는 농가도 발생하는 등 유기농업의 정착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처음 유기농업을 시작한 농가들이 수익성을 입증하면서 이를 인지한 농가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유기농업으로 전환해 가는 사람들이 늘면서 농촌커뮤니티 특유의 같이 협조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종자를 직접 가져다주기도 하고 마을을 상대로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주형로씨의 노력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의 분위기는 젊은 친구들이 하고자 했던 의지가 강했는데 이들을 선배 입장에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식들이 강했다(농가 인터뷰).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을 결심한 계기로는 ‘주형로씨를 중심으로 한 젊은 층의 노력’ 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농약으로 인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건강상의 피해’ 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박정희 정권 때부터 다수확 정책이 시작되면서 농가에 농약과 화학비료를 이용한 농법이 널리 자리잡았다. 이는 농약과 화학비료로 농사를 짓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웠으며 충분한 소득⁴²⁾을 올릴 수 있는 농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가의 농약에 대한 이해 부족은 과도한 농약 사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한 예로 4번의 살충과 8번의 살충이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병충해가 시작되면 농약을 사용했다. 특별한 방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주위에 기계를 사용해서 전문적으로 농약을 쳐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는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농약을 사용

42) 당시 동진벼와 추청을 1마지기 농작했을 때 3가마니의 수확이 가능했다. 당시 쌀 가격은 소비자 가격이 1가마니당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벼농사를 통해 충분히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1,000평 농사에 200만원의 수입을 올리던 시기였다.

해 재배한 것이 건강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생각이 농가들 사이에서 널리 확산되었다. 이와 함께 당시 농가 중 단명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농약인 것으로 느껴졌다고 한다. 물론 농약의 사용과 질병 발병의 역학 관계를 밝히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1950년대, 60년대는 이러한 질병이 없었으나 농약과 화학비료의 도입 이후 늘어난 직접적 피해나 암 등의 발병은 농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농약과 화학비료를 대체할 새로운 농법에 대한 필요를 가중시킨 것으로 생각된다⁴³⁾.

또한 유기농법 전환 계기에는 오리농법과 흑향미의 연계도 있다. 유기농법이 흥동마을에 최초로 보급된 것은 몇몇 농가들을 통해 시작된 오리를 활용한 비교적 간소화된 농법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리사육시 발생하는 부수적 비용의 증가는 유기농 쌀의 부가가치를 상회하였고, 타산이 맞지 않는 오리농법의 운영은 경제성 측면의 어려움을 동반하였다. 더불어 오리 사육에 대한 부담도 동시에 존재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흑향미가 등장하는 2~3년 후까지 지속되었다.

흑향미의 등장은 위에서 언급한 경제성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나아가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농가의 증가로 이어졌다. 수확량은 적었지만 판로가 확보되어있는 기능성 쌀인 흑향미는 비싼 가격에 팔렸으며, 높은 부가가치는 부가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이윤을 발생시켰다. 이윤증대를 증명한 오리농법과 흑향미의 연계는 유기농업에 대해 반신반의하던 농가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며, 나아가 해당 유기농업을 수용하게 하였다.

흑향미의 수확량은 기존의 쌀에 비해 적어서 벼로 40kg 푸대에 다 담아지지 않아서 30kg 정도만 찻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쌀 한 푸대가 20만원선이었는데 흑향미는 70-80만원 정도로 팔렸었다.

흑미가 아니었으면 유기농은 어려웠을 것 같다.

(이상 농가 인터뷰)

당시의 안정적인 판로는 농협에 의해 확보되어 농민들은 생산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농민들은 새로운 종자를 가지고 새롭게 접한 농법의 농사에 전념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흑미를 농가들이 앞다투어 농작하게 되면서 이른바 ‘유기농업 붐’ 이

43) 이와 관련해서는 제3장 제1절 오영남씨의 사례에서도 소개한 바 있다.

시작되었다.

그 외에 전환 계기로 유기농업이 가지는 ‘환경’에 대한 고려라는 측면도 있었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유기농업으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토양이 살아나고 토질이 개선되는 등 생산 환경이 나아져갔던 것도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전환 이유로는 유기농업이 가지는 철학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물론 생태계에도 피해를 주는 화학비료와 농약 없이 농사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유기농업을 실천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 외에 후손에 대한 마음이 유기농업을 시작하게 하였다.

임대차

대부분의 농가는 당시 자신이 소유한 논밭에서 농사를 지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교적 젊은 농가들은 주위의 논밭을 임대해서 규모를 늘려가는 경향을 보인 반면, 고령화로 인해 농사짓기가 어려워진 농가들은 농사 규모를 줄여가고 있었다. 임대를 늘려가는 농가 중에는 밭농사를 위해 하우스 재배를 늘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농자재

농자재라는 것은 농가에게 있어 직접적인 비용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유기농업이라고 해서 딱히 특별한 농업기술이 있다기보다는 예전에 농사짓는 방식을 그대로 응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적으로는 벼농사를 짓고 나서 남은 부산물을 이용하여 짚을 썰어 퇴비를 직접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유박을 사서 쓰는 경우도 있었고, 유기농 비료를 농협에서 사서 쓰기도 했다. 유박은 한 구간당 약 10포대기를 뿌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유박 같은 경우 20kg 한 포대기에 85,000원이라고 한다. 자운영을 직접 심기도 했는데 자운영 씨앗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농약이 범벅되어 오염되는 일이 발생해서 사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보통은 축분 가운데서도 소똥을 사용했다. 우분은 벼짚과 함께 거름으로 사용하였다. 당시

볏짚은 거름으로도 사용하고 소의 사료 대신에 사용해왔다. 자신이 경작한 논에서 나온 볏짚의 양보다 소의 수가 더 많으면 볏짚 대신에 사료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소를 키우는 규모는 농사짓는 양과 맞추어야 했다. 그야말로 자원이 순환되는 적정량의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우분의 사용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유기농 축산의 개념이 없던 시절이어서 처음에는 소를 키우는데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퇴비로 사용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후에 오리농법이 도입되면서 농약과 제초제를 대신하게 되었다. 논 한 구간(900평)에 40여 마리 오리를 방사했다⁴⁴⁾. 오리와 오리 자재값은 처음에는 도시민들의 도움으로 마련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농업기술센터의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았고, 기술 보조와 더불어 도와농림부에서도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오리망을 치고 말뚝 박는 등의 작업과 아침, 저녁으로 오리에게 사료를 주어야 하는 일 등은 부담이 되었다. 농사를 짓고 난 후에는 사가려는 사람이 없어서 처치 곤란인 경우도 있었다. 그러다가 2008년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오리농법을 그만두게 되면서 많은 농가들이 우렁이농법으로 전환하게 된다. 우렁이 농법 같은 경우 토종 우렁이는 미생물을 먹고 자라는 반면, 수입 우렁이는 풀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수입 우렁이를 제초제 대신에 사용할 수 있었다. 우렁이는 한 구간당 6kg를 사용하게 된다.

잡초는 물 관리를 잘하면 잘 자라지 않아 기술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즉 육묘를 크게 키워서 심고 또 논에 물을 많이 대는 방법을 통해 풀이 잘 자라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모심는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가능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 규모가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관리들이 소홀해지기 때문에 적정량의 농사 규모가 필요하다.

유기농업은 삼원일체가 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첫째로 모를 잘 키워야 하고 둘째로 논바닥을 평평하게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물관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잡초들이 자라게 된다. 풀들이 많이 자라난 논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농가 인터뷰).

돌이켜보면 유기농업에 관한 특별한 기술이라는 것은 딱히 없었다. 서로의 방법을 공유하고 제안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았다. 주위 농가들과 의논해서 유기농업 자재에 대해

44) 오리농법에 드는 비용은 이미 앞에서 소개한 바 있다.

고민하고 연구하기도 했다. 또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을 받기도 했다. 그러다가 오리농법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나아졌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유기농 단지가 조성될 수 있었다⁴⁵⁾.

농사 인력

농사는 대부분의 농가의 경우 부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부모 혹은 아들 내외가 함께 넷이서 짓는 경우는 네 농가 정도에 불과했다. 따라서 인력이 필요한 김매기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위탁하는 일이 많아 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인건비로 하루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 외에 트랙터와 이앙기, 콤바인 등을 이용한 작업에는 한 마지기 200평당 13만원 정도에 위탁하고 있다.

유기농업이란

유기농업의 개념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것인데, 유기농업에 인증제도가 시작된 것은 1999년의 일로 그 전에는 무농약이나 무공해 농산물이라는 개념이 더 크게 자리잡고 있었다. 흥동에서도 처음에는 무농약과 유기농업을 동시에 하는 농가들이 많아서 소량이지만 비료를 사용하는 농가도 눈에 띈다. 1999년 이후 유기농업 인증이 나오면서 비로소 ‘유기농업’이라는 말이 인증을 전제로 하여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흥동에서도 무농약에서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늘어나게 되었다. 실제로는 무농약과 유기농업을 동시에 실천하다가 유기농업의 비율을 늘려갔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1977년 이후 풀무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유기농업’이라는 단어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농가는 알지 못했다.

유기농업이란 매우 광범위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유기농업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기술적으로 화학비료와 농약만 안 쓰면 되는 농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자연을 지켜내고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는 건강한 농업임과 동시에 양심에 기반을 둔 농업이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45) 유기농 단지의 조성은 많은 농가들이 함께 하면서 이웃 농가가 어떻게 농사짓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하지만 유기농업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쌀 맛이 더 좋아졌던 것은 아니다. 다만 인체에도 해롭지 않고 성인병 예방에도 좋았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근본적으로는 토양을 살려서 그 안에 건강한 미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일련의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에는 없던 메뚜기도 나오고 사라진 미꾸라지가 다시 나타나는 등 생태계가 살아나면서 자연의 변화도 체감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토양 환경을 유지해가려고 한다면 이러한 농법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해되고 있었다. 건강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자녀들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원동력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이를 통한 자부심이 컸던 것으로 짐작된다.

유기농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객지에 나가 있는 식구들에게 농약을 치지 않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 마음이 흐뭇해짐을 느낀다(농가 인터뷰).

사실 유기농업은 완전히 새로운 농업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우리의 전통적인 농업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어렸을 적에는 지게질하고 논을 직접 매는 등의 농사를 해 왔으나 농약의 도입으로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농약의 도입은 건강상의 위험을 가져오게 되면서 다시 유기농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면서 흥동에서는 유기농업이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유기농업은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어서 이런 것이라는 특별한 것으로 얘기할 것도 아니다(농가 인터뷰).

힘든 과정을 통해 생산된 유기농 쌀이 제값에 팔리고 고정적인 판로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은 농가들에게 유기농업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어 유기농산물 간에도 경쟁구도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며,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유기농산물 가격도 하락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계속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가져가는 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힘들게 지은 것이 제 가격에 팔리는 것만으로도 큰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 같다.

유기농업은 가격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농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 같다.

지금도 그렇지만 쌀 값 자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힘든 일인 것 같다. 노력은 많이 들었지만 타산이 맞는 편이었다.

(이상 농가 인터뷰)

유기농업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 한쪽에서는 유기농업을 실천한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농약을 써버리면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기농업은 사람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농가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마을 구성원들은 서로를 설득하고 교육해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흥동에서는 유기농업을 통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상부상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이는 힘든 일이었다.

유기농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

유기농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김매기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지금처럼 농약을 대신 할 만한 농업기술이 발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수작업을 통해 잡초를 제거하고 벌레를 잡는 등의 일은 농민들에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병충해는 큰 어려움이 아니었으나, 논매는 일은 모든 유기농업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농사 자체가 너무 힘이 많이 드는 일이라 농사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새도 없었다(농가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약의 위험성을 생각하면 이제는 더 이상 농약은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는 대답도 있었다. 이것은 유기농업으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와도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기농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 면에서 오리농법의 등장은 흥동 유기농업의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오리를 도입 하면서 제초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오리를 도입하고 나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우선 오리의 도움으로 제초의 수작업이 훨씬 수월해진 것은 사실 이지만 오리의 경우 담수의 양이 적기 때문에 흙이 드러나는 곳에는 풀이 많이 자라서 사람의 손으로 직접 잡초를 뽑아야 하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했다⁴⁶⁾. 다시 말해 한 두 해는 오리만으로 제초 작업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음으로 오리의 사료에 대한 문제가 존재했다. 한꺼번에 많이 줘서는 안 되며 아침 저녁로 조금씩 주어야 했고, 오리망을 치고 말뚝을 박는 등 오리 사육 자체에 손이 많이 가는 것과 적지 않은 비용 등으로 사육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는 농가가 많았다. 그러다가 2008년 조류독감이 발생하면서 오리농법 대신에 우렁이농법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우렁이가 오리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는 등의 이유로 최근에는 대부분의 농가가 우렁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렁이의 경우에도 폐사가 문제가 되었다. 논에 풀어놓기만 하면 제초는 간단하게 해결 되었으나, 우렁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논에 방사하기 이전에 죽는 게 반 이상이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유기농업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에 충실하고자 하는 농가도 존재했다.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면 김매는 작업이 많아져서 힘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것보다는 욕심을 버리는 일이 매우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해 너무 욕심내지 말고 작부 계획 단계에서 덜 심어서 땅에 부담을 많이 주지 말고 미생물들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농가 인터뷰).

이러한 오리농법은 이제 흥동마을에서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사실 오리농법은 단지 기술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기술과 문화를 혼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다양성의 측면이 평가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초기 제초 작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고 오리농법의 메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하게 한 것도 오리농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리농법과 흥동의 유기농업을 어떻게 함께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46) 제3장 표3-23의 영농일지 가운데 ‘본논 제초 작업’이라는 부분에서도 알 수 있다.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유기농업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점

이렇게 힘들게 지은 농사임에도 불구하고 유기농업을 해서 가장 보람된 점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통한 ‘건강’에 대한 보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안전하게 생산한 쌀을 통해 우선 농가인 생산자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소비자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의 제공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었다.

순천향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했었는데 보통 연령대보다 더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았던 때를 잊지 못한다. 아마도 쪽 유기농업을 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공해로 인한 피해라는 것도 거론되지만 농약을 사용한 음식에서 입는 피해도 크다고 생각한다.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최근에는 농약 성분 검사를 거치게 되면 어느 논, 밭에서 나온 어떤 성분인지와 수치까지도 다 나오는 시절이다. 거짓말을 해서도 안되지만 할 수도 없는 환경이다.

(이상 농가 인터뷰)

다음으로 유기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문당리에서의 유기농업만큼은 원칙에 입각해서 철두철미하게 안전한 농사를 해왔다는 뿌듯함과 안심, 그리고 돈을 많이 벌지는 않지만 심적인 만족감을 보람으로 느끼는 농가가 많았다.

논농사 말고 밭농사의 경우에도 초창기부터 제초제는 일절 치지 않았고 농약도 10% 미만으로 사용해왔다(농가 인터뷰).

한편 수확량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다수확을 할 수 있는 품종을 쓰면 되는 일이었지만 맛과 질을 따지는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맞추어 가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렇게 유기농업의 경험이 쌓여가면서 기술도 향상되면서 안정되어 갔다.

현재 논 200평당 400kg을 수확해내고 있는데 유기농업을 시작하던 당시에는 300~350kg

정도로 수확량이 적었다. 수확량만 따진다면 ‘새누리’ 라고 하는 다수확 품종을 이용하면 되는 일이었지만 소비자들은 추청을 선호했다. 추청은 대가 약하고 키가 크며 이삭이 잔 편이라 수확량만 생각한다면 다수확 품종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농가 인터뷰).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자부심과 신념이 바탕이 되어 소비자의 건강과 선호를 고려한 결과, 소비자 누구라도 제값을 내고 유기농산물을 사가려고 했던 점은 유기농업으로 전환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현실적으로 말해서 농가소득이 오르고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되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기농업으로 지은 쌀이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쌀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서 소득은 괜찮은 편이었다.

그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은 별로 좋은 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30kg에 12만원에 팔리기도 했다.

(이상 농가 인터뷰)

힘들게 지은 농사에 대한 대가는 노력한 만큼 적절한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다. 생협과 농협 등 판로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출하가 가능했다. 처음에 유기농업을 시작하던 당시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영향으로 값싼 수입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경제적인 타격이 우려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유기농업의 도입으로 안전함에 대한 차별화를 통해 ‘제대로 된 가격’ 을 받고 안정적인 판로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 농민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농사지어서 버리거나 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것은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 매우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다.

먹고 살 정도만 직접 지어낸다는 생각으로 농사를 지어야지 농사를 통해 큰 수익을 얻겠다고 생각한다면 안된다.

(이상 농가 인터뷰)

유기농업을 통해 흙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다. 오리농법을 바탕으로 쌀겨를 넣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왔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수확량이 안정적으로 나오기까지는 7~8년의 시간이 걸렸다. 수확량은 관행농업과 비교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즉 당시 유기농업을 하던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기술적으로 많이 향상되고 안정되었다고 하겠다.

관행농업이 10이라고 하면 유기농으로는 8~9정도의 수량은 확보된다. 토양이 좋아진 것인지 기술적으로 좋아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한 마지기당 두 섬이 생산되었는데 지금은 세 섬을 수확하고 있다(농가 인터뷰).

지금도 유기농 쌀이 아니면 농협작목반에는 출하할 수도 없다고 한다. 관행재배 쌀과는 가격 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서 40kg에 약 2만원 이상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제는 오랜 유기농업의 경험으로 토양의 질도 많이 개선되어 수확량에서도 관행농업과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은 유기농업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유기농업에 매진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점

홍동의 유기농업도 당시 안정된 유기농법을 찾을 때까지 고민의 시간도 많았고 그만큼 힘들게 농사를 지어야 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홍동 유기농 쌀이 좋은 평판을 얻게 되고 또 도시민과 도농교류를 해가면서 농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유기농업의 원칙만은 고수하고자 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행복지수라는 것은 부족할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가 힘들고 많이 가지지도 못했지만 더 행복했던 것 같다.

농업 자체도 삶이라서 어떤 삶을 살 지에 대한 고민이 유기농업으로 이어졌는데 유기농법에 대해 고민하고 의논하고 배워가면서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기농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상 농가 인터뷰)

그러한 과정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을 농가들과의 단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마을공동체적인 인식 혹은 두레정신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문당리의 유기농업의 성장은 농사짓는 일을 나 하나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이 아닌 함께 한다는 의식 가운데 소통과 공유, 그리고 융합의 정신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마음인 것 같다. 마음이 투명한 것이 중요하다. 지역의 연대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는 유기농업을 하기가 어려웠지만 단합이 잘되었던 것 같다. 함께 하는 정신이 바탕이 되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희망이 느껴졌고 재미도 있었다. 특히 다른 마을보다 젊은 사람들이 나이든 분들을 잘 따라주고 있는 점은 자랑할 만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을 내 농가 간에 단합은 잘되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역시 뭉치면 되는 것 같다.

소통의 장을 늘려가면서 욕심을 버리고 배워가면서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서로에 대해 인정하게 된다. 나중에는 70세대 가운데 두 세대가 유기농업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농가는 농가대로 인정해주었다.

초반에 유기농업을 할 때는 마을 주민이 다 같이 함께 해보자는 마음이 컸다. 그렇게 협동하면서 마을 전체 단합심이 좋아졌다. 한편 지금과 비교하면 그때가 유기농업을 함께 해보자는 측면에서 단합이 더 잘되었던 것도 같다.

(이상 농가 인터뷰)

하지만 이러한 단합의 정신은 유기농법에 대한 안정적인 기술의 향상과 판로의 확보로 이어지면서 서로간의 소통적인 면에서 소홀해져가는 경향을 띠기 마련이다. 더 이상은 농약을 대신해서 제조하는 기술이나 화학비료를 대체할 만한 토양 비옥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농가간에 의견을 나누거나 정보를 공유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판로의 확보라는 측면도 마찬가지이다. 안정된 판로의 형성은 더 이상 농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유기농 쌀을 팔기 위해 의기투합해야 하는 과정을 상쇄시키고 만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처음 할 때는 마을 전체적으로 큰 기대감으로 함께 이야기 하는 등 소통의 시간들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안정적으로 자리잡게 되어 소통이 줄어들고 있다.

지금도 유지는 잘되고 있는 편인데 모두가 같은 마음이지는 힘든 부분도 있다.

(이상 농가 인터뷰)

문산마을은 여전히 마을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서로 상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당리는 유기농업이 최초로 시작된 곳으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측면이 농가들에게 유기농업에 대한 애정과 더 노력하자는 실천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타 지역으로의 확산

이렇게 문당리 일대에서 시작된 유기농업이 문당리를 넘어서 홍동으로, 그리고 장곡을 넘어 다른 충남 지역으로 확산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뿌듯함’이며 ‘큰 자랑’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그런 면에서 ‘홍동마을은 풀무학교와 유기농업, 환경이 함께 하는 곳’이라고 하는 지역공동체가 갖는 상징성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⁴⁷⁾.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4년에는 홍성군이 유기농업특구로 선정되었다.

홍동은 유기농업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며 상징적인 측면이 필요한 것 같다.

사실 오래되어서 무뎠지기도 했으나 보람차고 성취감도 맛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이상 농가 인터뷰)

귀농자에 대한 인식

홍동은 풀무학교라고 하는 지역적 기반과 협동조합이라는 다양한 활동의 근거지이면서 유기농업의 빠른 정착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마을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자들의 수가 많은 편이다. 이러한 귀농자들을 바라보는 토착 농민들의 시선은 다음과 같다.

최근에 많은 귀농자들이 홍동을 찾고 있는데 이미 유기농업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들에게 홍동은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47) 반면, 오리농법이 갖는 홍동에서는 상징성은 또 다른 측면이라고 하겠다.

이들이 정말 농사를 지을까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 조금 더 큰 사명감으로 마을에 들어왔으면 좋겠고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노력이 아쉽다. 다시 말해 마을 귀속감을 더 느끼고 소통도 더 필요하다.

귀농자들은 밖에서 교육도 많이 받았고 또 재능도 많은 것 같다. 이러한 재능을 잘 활용함으로써 토착 농민이 풀기 어려운 점들을 해소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귀농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미 풀이 깊은 상태인 것 같다. 마을의 일 같은 경우도 풀무학교 출신 귀농자들이 중심이 되어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고 지역민 일부만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서로의 바램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일이 필요할 것 같다.

(이상 농가 인터뷰)

귀농자에 대해 큰 기대가 없다고 하는 한편, 마을 주민들과 서로 왕래하면서 더 많은 교류의 장을 만들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있기도 했다. 유기농업을 통해 마을을 찾아주는 귀농자에 대해서는 호뭇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을 느끼는 농가도 있었다. 이렇듯 귀농자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반반 섞여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앞으로의 농업

앞으로 농업에 대한 농가들의 생각은 걱정과 우려의 의견들이 많았다. 농업이 점점 더 거대화되고 기업화됨에 따라 소농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기본적으로는 농업의 현실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여 앞으로의 농사에 대해 걱정하는 농가가 많았다.

이제는 농사의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유기농업을 잘 해가면서 다음 세대에 농사를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자식들이 후계자로 나서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라도 농사를 지을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넘겨줄 생각이다.

풀무학교 출신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학교의 역할이란 마을 안에서 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풀무신탁과 생협, 교육관 등 문당리에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고 또 그런 생

각으로 살아온 것 같다.

이제는 여유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농업도 할 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더 바라는 것은 없다.
(이상 농가 인터뷰)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흥동의 농업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연간 약 2만명의 방문객이 마을을 찾고 있는데 다른 지역과 차별화 하기 위한 부분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흥동이 갖는 교육적인 부분과 흥동의 다양한 단체와의 연대, 즉 친환경농업과 사회단체와의 연계, 생협과 농협 등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흥동의 다양한 인재들에 대한 활용 방안이 과제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도에 바라는 점

가장 많은 의견은 유기농업에 한정된 부분이라기보다 농업 자체에 대한 요구였다. 즉 제대로 된 쌀값, 적정 쌀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또 이렇게 힘들게 농사지은 농산물이 판매가 잘되도록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는 점을 들었다. 유기농업의 확산 과정에서도 역시 유통의 문제 즉 판로 확보는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비용과 관련해서 여전히 농기계나 자재가 농가가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농기계나 자재에 대한 지원을 부탁하는 농가도 있었다. 최근에는 사업단이 조성되어 있어서 농기계로 대신 농사를 지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인건비로 하루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그 외에 트랙터와 이앙기, 콤바인 등의 이용에 마지기당 약 13만원의 위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⁴⁸⁾.

또 후계자 양성을 위한 노력에 힘써주기를 요청하였다. 즉 앞으로 농업은 젊은이들에게 기대할 수 밖에 없는데 그들을 양성해내기 위한 지식과 실기, 교육과 실천이 함께 하는 농업기반 조성에 힘써달라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농업대학 인력 활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있었다. 그 외에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농민의 소리를 들어주는 농정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의견과 농업이 직면해있는 위기의 시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조금을 좀 더 늘려줬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다.

48) 김호, 조완형(1995)에서도 농업기술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금 더 특화된 곳에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을 가꾸기 사업 같은 이벤트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면 홍성환경농업교육관 같은 경우 개보수작업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 생태적으로 지어져서 더 그렇다. 이런 부분은 마을 단위에서 감당하기가 힘들다(농가 인터뷰).

4. 소결

홍동의 유기농업은 일본 애농회의 영향으로 시작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유기농업단체인 정농회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풀무학교 내의 실천과 풀무학교 졸업생들의 실천 등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당시에는 유기농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던 시절로 일본과의 국제적인 교류 아래 유기농업 철학을 비롯하여 기술적인 측면 등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다. 농업 여건으로는 화학비료와 제초제 등 근대농법들이 들어오면서 토양과 수질 등 환경과 일반농가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유기농법들이 시도되기도 하였고, 이러한 환경은 유기농업 실천 농가 간의 협력 구조를 만들어내어 다양한 협동조합 형식의 농가조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홍동에서의 유기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은 어떠한 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시 비슷한 생각과 사상, 그리고 실천 아래에서 여러 인물들이 당시 생겨났던 여러 단체의 다양한 활동들에 연계되어 있다(관련자 인터뷰). 이번 조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현재 홍동마을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협동조합을 포함한 여러 단체들의 활동의 상황과 매우 닮아있는 일들이 이미 오래 전에 홍동에서 벌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런 맥락이 여전히 홍동마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농사지은 농산물은 직거래를 중심으로 판매되었으나 초창기 일반 소비자의 유기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것은 아니었다. 이후에 우리나라 초기 생협 단체들이 생겨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만남은 생산자 측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1992년의 단계에 이미 ‘가을걷이’ 행사가 마련되어 오리농법 이후의 많은 도농교류 활동의 시초가 된다.

이러한 시작을 넘어서 홍동 유기농업이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오리농법이다. 우루

과이 라운드라는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농업에 대한 요구들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던 무렵, 제초에 대한 부담으로 선풍 유기농업으로 전환하지 못하던 농가들에게 오리농법의 도입은 농법상의 큰 전환기가 되었다. 다음으로 이 시기는 도시민과의 적극적인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오리는 농법 외에 교육과 정서의 교감이라는 새로운 가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부가가치를 이끌어냈던 흑향미의 도입은 다시 홍동에서 많은 관행농가들에게 유기농업으로의 전환 계기로 작용하였고, 농협과의 계약 판매는 홍동 유기농업에 큰 성장을 가져다 주었다. 오리농법은 매년 늘어나 2005년에는 홍동의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으며 한편 이러한 확산은 농가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유기농업 자체에 대한 인증 강화가 이루어지면서 농협과 생협으로 완벽하게 분리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오리농법은 봄을 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기농업의 성장은 쌀 소비 둔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안정적인 판매로 이어지는 못하고 고령화 속에서 유기농업을 그만두는 농가가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조류독감으로 인해 그간 고령화된 농가들 사이에 노동력 부담으로 작용해오던 오리농법은 정체기를 맞게 되고 현재 홍동에서 오리는 상징적인 존재로 남게 되었다.

사례 조사로 알아본 문당리 문산마을에서는 대부분의 농가가 1994년 이후 오리농법의 도입과 함께 유기농업을 시작했으며 유기농업으로의 전환 계기는 당시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유기농업을 시작했던 주형로씨의 노력 때문이었다. 거기에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위기 의식을 느끼던 농가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농업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유기농업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처음에는 유기농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측면도 있었으나 실제로 유기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지역의 자연과 생태계를 지키고 안전한 먹거리로서 건강을 유지하게 한다는 등의 자부심으로 양심에 기반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다.

한편 당시에는 유기농업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던 시절로 다양한 방식의 자체적인 시도와 노력으로 농자재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수 김을 매야하는 작업은 유기농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때문에 오리농법의 도입은 유기농업으로 인한 노동력 절감 효과를 가져왔고 흑향미의 도입은 부가가치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오리농법이 다시 필요 노동력을 가중시켜 농가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통한 건강에 대한 보장은 보람된

점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홍동의 경우 안정적인 판로의 확보는 힘들게 지은 농사에 대한 대가로 이어져 농가들에게는 든든한 힘이 되었다.

이러한 유기농업을 오랫동안 지속하게 한 것은 역시 마을 내 농가간의 단합이 있었기 때문이다. 함께 고민하고 배워가면서 서로 간에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남에게 ‘폐’가 되지 않는 공동체적 요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타 지역으로 확산되어간 유기농업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으며 귀농자들에 대해서는 기대와 아쉬움의 의견들이 동시에 나오기도 했다. 농업 자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홍동이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며 홍동 내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해갈 수 있을 것인지, 또 귀농자와는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사례 조사에서 드러난 공통점들을 홍동의 유기농업의 태동과 연관시켜보면 당시의 ‘환경과 건강에 대한 우려’, 그로부터 시도된 ‘농약과 화학비료를 대신하기 위한 노력들’, 그러한 과정 중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단합을 중심으로 한 유기농업의 지속적인 실천’, 그리고 그 결과로서 ‘홍동 유기농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로 이어져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홍동마을 유기농업 초기인 1975년의 지역의 정서적 기반은 위와 같은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효과는 이와 같은 공통의 가치 및 정서가 구조화된 후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지역의 정서적 기반은 풀무학교와 정농회, 협동조합과 같은 다양한 자생적인 단체들로 구체화 및 가시화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형성, 변천을 거치며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 또한 90년대 중반 오리농법과 흑미의 도입은 초창기 멤버들의 다양한 노력들이 커뮤니티 전반으로 퍼지게 되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나아가 홍동 유기농업의 급격한 성장에 전기를 마련하였다.

홍동의 유기농업의 변천과정은 ‘지역커뮤니티의 공통된 가치 및 이해의 형성’ - ‘공통된 가치가 자생 단체의 형태로 구체화 및 구조화’ - ‘조합 형태의 자생 단체들의 구조화된 기능(functioning)의 구현’ - ‘구조화된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유기농법의 시연’이라는 전개를 보인다. 이와 같은 전개의 두드러지는 특성은 각각의 단계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이 이전 단계에서 형성된다는 점, 그리고 전개 과정 전체를 아울러 커뮤니티의 공통된 가치 및 이해가 전제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은 홍동에서의 성공적인 유기농업 정착을 설명하고, 타 지역 실패 사례를 고찰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고령화와 후계자 문제에 의해 유기농업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임은 홍동의 문당리에서도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제4장 흥동 유기농업의 특징 및 과제

1. 유기농업의 개념과 발전 과정

흥동 유기농업의 특징과 과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유기농업이란 무엇이고 국내외적으로는 유기농업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먼저 알아보기로 하겠다. 이를 통해 흥동 유기농업이 가지는 특징과 과제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1) 유기농업의 개념

유기농업의 정의

유기농업이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유기농업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쓰지 않는 농법으로 이해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3년 이상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쓰지 않는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만이 유기농산물로 인증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유기농업’이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은 농법적인 측면만을 감안한 판단기준으로 기술적인 방법론의 범주를 넘지 못하는 유기농업에 대한 편협한 정의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런 협의를 넘어선 광의적인 유기농업의 정의란 무엇일까? 유기농업은 ‘사람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에 부하를 주지 않으며 식⁴⁹⁾의 안전과 지역환경 보전을 지향하는 생산 시스템’을 일컫는다. 이와 같은 생산 시스템에서는 그 주체가 생산자에게 국한되지 않으며, 소비자와 지역주민들에게까지 확장되게 된다. 확장된 주체들은 생산에 함께 참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커뮤니티(공동체) 전체의 기능이 지속가능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 내의 상호연관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해야만 한다.

49) 여기서 말하는 ‘식’은 식품에 한정된 것이 아닌 먹거리 전체에 대한 포괄적 의미를 뜻한다.

이러한 광의적 차원의 유기농업 개념은 국내외, 그리고 국제 지원 분야에서도 널리 적용되는 추세이다. 국내 활동으로는 ‘로컬푸드와 학교급식’, ‘마을만들기 운동과 투어리즘’, ‘지역활성화를 위한 활동’, 그리고 소수의 농가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재래종자보전활동’ 등이 이에 해당되며 운동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국제적으로는 ‘공정무역(Fair trade)’ 과 ‘로하스(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윤리적 소비(Ethical consumerism)’, ‘기업의 사회적책임(CSR)과 사회적기업(Social business)’ 등과 같이 다채로운 활동이 광의적 유기농업의 개념을 토대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의 원조 사업의 경우, 그 지원 내용이 유기농자재의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지역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문화와 환경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광의적인 유기농업의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유기농업의 두가지 발전 방향

유기농업이 대처하고자 하는 문제는 ‘식의 안전’ 과 ‘환경보전’ 이라는 두 개의 큰 맥락을 포함한다. 식의 안전 문제는 생산과정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정보를 소비자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불완전정보’ 의 문제를 포함한다. 한편 환경문제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관행농업이 환경에 높은 부하를 주게 되는 ‘외부불경제’ 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시장에 맡겨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 ‘시장 실패’ 의 전형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액셀로드(Robert Axelrod)는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라벨(Label)과 영역성(Territoriality)이라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유기농업의 경우, 라벨은 인증제도에 해당되며, 영역성은 지역밀착형 유기농업과, 생산자와 소비자가 제휴하는 형태의 유기농업의 두가지로 대응된다⁵⁰⁾.

유기인증에 의한 라벨이 유기인증제도의 법적 보장을 받음으로써 인증을 받은 유기농가들의 광역적인 시장개척이 가능해진 한편 대규모 유기농업이 촉진되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이익지향적인 성격이 강하여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으며, 인증 기준에는 부합하지

50) 본 연구자는 이러한 유기농업의 두 가지 방향에 초점을 두고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박사논문을 집필하였다. “유기농업의 역할과 과제: 한국과 일본 비교연구(2009)”

않는 지역문제에 대한 대응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

엑셀로드가 말하는 ‘영역성’의 개념은 ‘지리적 근접성’뿐만 아니라 공통된 의식을 가지는 자 사이의 ‘심리적 근접’ 또한 포함한다. ‘지리적 근접’은 실제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대면 가능한 즉 ‘얼굴과 얼굴이 보이는 관계’가 유지되는 물리적인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유기농업을 뜻하며 이를 ‘지역밀착형 유기농업’이라고 부른다. ‘심리적 근접’으로 연결된 커뮤니티의 경우,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공통된 관심사를 통해 연결되며 따라서 다양한 공통 관심사에 대해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긴밀하게 유지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하려 노력하게 된다. 이는 특히 일본 초창기 유기농업의 발전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 ‘제휴’라는 형태로 나타나며, 유기농업에서는 이를 ‘제휴형 유기농업’이라고 부른다.

실제적으로는 ‘지리적 영역성’이 ‘심리적 영역성’을 창출하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심리적 영역성’이 지리적으로 가깝게 하기도 한다. 공통적인 것은 둘 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관계가 토대가 되어 영역성 안에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유기농업은 라벨과 영역성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시장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이것이 유기농업이 단지 농법의 문제가 아닌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의의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2) 국내 유기농업 발전 과정

국내 유기농업의 시작

유기농업은 1970년대부터 선구적인 농민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정농회와 한국유기농업협회로, 전자는 일본 애농회의 영향으로 1976년에 설립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생산자단체이고 후자는 관행농업에 대한 반성으로 의식있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모임으로 1978년에 만들어졌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내 유기농업은 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직매를 통한 판로의 확보를 모색하지만 당시에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1980년대 말, 소비자 협동조합 단체인 한살림과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생겨나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직거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움직임과 함께 지역에 있는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간의 교류도 이루어지게 된다. 그 시기 농업정책은 성장과 경제성을 중시하던 사회적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되어 화학비료와 농약을 중심으로 한 식량 증산 정책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와 같은 정책은 대규모 농가를 주축으로 1990년대까지 이어졌다.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이로에서 열린 세계회의에서 발표된 리우선언을 계기로 전세계가 환경농업과 관련된 국제적인 협약에 주목하게 되며, 국내에서도 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에 이른다. 마침 이 시기는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거치면서 오염된 환경이 문제화되기 시작하던 때로, 민주화운동의 영향으로 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민운동과 농민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를 고려하여 정부는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정책에서 환경 중시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여 농정에서 처음으로 ‘환경농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에 이른다.

1990년대에 들어서 다양한 유기농업 정책들이 정부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표4-1은 1990년대 이후 정부가 추진한 친환경농업 관련 정책들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정책들의 특징으로는 저농약에서 무농약, 최종적으로 유기농업을 지향하는 단계적인 발전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이다. 이후, 1997년 12월에 제정된 환경농업육성법은 법이 제정되어 법제적인 틀 안에서 다양한 정책 계획을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사업들로 발전시키게 되었다. 그 외에도 환경농업시범마을사업이나 친환경지구육성사업, 광역친환경단지육성사업 등과 같이 마을과 지구 또는 단지가 조성되어 농가 간의 협조 아래에서 유기농업을 포함하는 친환경농업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표 4-1〉 1990년대 이후 친환경농업 관련 추진 정책

연도	내용
1991년	농림부 산하에 유기농업발전기획단 설치
1993년	농정에서 처음으로 환경농업 도입
1994년	대통령자문기관인 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환경보전형농업’이라는 용어 쓰기 시작
	농림부 산하에 환경농업과 설치(12월)
1995년	환경농업 실천자 대상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사업 실시
1996년	21세기를 향한 농림수산환경정책 마련
1997년	환경농업육성법 제정
1998년	친환경농업원년 선포 및 친환경농업육성정책 발표
1999년	친환경농업육성계획 책정 및 친환경농업직불제도 도입
2001년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및 친환경농업5개년계획 마련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농산물의 품질관리는 민간차원에서 추진되어 지역농협이 그룹 단위로 지역특산물에 대해 품질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형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1992년에 농산물품질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차원의 관리로 바뀌게 된다. 1993년에는 농수산공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유기, 무농약재배 농산물의 품질인증이 법률적 기반을 토대로 실시되었으며, 저농약재배농산물에 대해서는 1996년부터 품질인증이 실시되었다. 1997년에 친환경농업육성법의 발효와 함께 친환경농산물표시 및 신고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의 인증제도에 신고제도가 더해지게 되었으며 생산자는 이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원화된 친환경농산물품질관리제도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친환경농업육성법이 2001년에 개정되며, 이후 신고제도를 폐지하여 2003년에 인증제도로 일원화된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의 종류는 초기에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세 가지로 시작되었다. 이는 관행농업에서 농약을 줄여나가고 농약을 쓰는 않는 무농약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화학비료와 농약을 완전히 쓰지 않는 유기농산물로 유도하고자 하는 단계적인 발전 방향을 보여왔다. 그러던 중, 유기농산물만을 인증하는 세계적인 흐름과 일반적인 농가들의 농약 사용량 감소 추세는 저농약농산물을 폐지하고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 두 가지만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1년 6월에 바뀌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3) 일본 유기농업 발전 과정

일본 유기농업의 시작

일본 유기농업은 1950년대 이후 고도경제성장의 폐해로 나타난 각종 공해문제와 그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이타이이타이병과 미나마타병 등이 나타난 시기가 이때이다. 이와 같은 공해병들은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서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 속에서 환경오염문제는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 것

인가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게 되며 농약에 노출되지 않은 먹거리를 찾고자 하는 적극적인 소비자 운동이 형성된다. 대도시의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지방에서 안전하게 생산된 농산물이면 모두 구매하겠다는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제휴’의 방식으로 일본 유기농업이 시작된 것이다.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유기농업은 일반 소비자에게도 널리 알려지며 전문유통사업자의 등장으로 전국적으로 시장이 확대된다. 기존 농산물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유통되는 유기농산물은 부가가치 창출의 키워드가 되었다. 그러던 중, 유기농산물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악덕업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1980년대 후반에 유기농산물 위조표시문제가 발생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문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면하며 거래를 하던 ‘얼굴이 보이는 제휴 관계’ 시절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유기농산물의 유통이 확대되면서 간접 거래가 일반화되고 따라서 표시가 필요하게 된 것이 부당표시문제의 발생 여지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1988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농약, 완전유기재배 등 부당 표시 농산물을 적발하게 되고 이를 시작으로 정부를 중심으로 인증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1989년에 유기농업대책실을 설치, 유기농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환경보전형농업 정책을 내놓게 되며, 1992년에는 부당표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기농산물 등에 관한 청과물 등 특별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유기 등’의 표시는 유기농산물만이 아니라 저농약 농산물을 포함하여 오히려 유기농산물의 경계를 애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후 1996년에 해당 가이드라인의 일부를 개정하여 ‘유기농산물’과 ‘특별재배농산물’ 두 가지로 분류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다.

1999년에는 유기농산물 표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을 개정하게 되면서 제3자에 의한 인증을 받지 않으면 ‘유기’라는 단어를 쓸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이전의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에서 발생하던 혼란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제재가 가해짐을 뜻하며, 이에 따라 규제의 색이 강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인증제도는 근본적으로 유기농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부당표시문제의 해결만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인증을 받기 위해 드는 비용과 노력이 크다는 단점 때문에 많은 농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대규모 농가들의 경우에는 인증 비용의 지출이 가능하였고 인증된 농산품을 통해 원거리 시장을 개척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한편 인증제도를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인증을 포기하는 소농가들을 중심으로 인증에 대처하기 위해 소비자와의 관계를 통해 ‘제휴’를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소비자와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인증은 필요없어지기 때문이며 이는 인증제도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관계’의 형성임을 잘 보여준다.

유기인증의 도입은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제휴’를 통한 소비자와의 소통 및 신뢰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관심과 노력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는 1970년대의 유기농업운동의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계기를 만들어주었으며, 일본 내의 유기농업이 유기인증을 이용하는 그룹과 소비자와의 제휴를 중시하는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져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6년이 되면서 일본에서도 처음으로 유기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7년에는 각 지자체별로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계획’을 만들면서 지원책이 정비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환경농업지구사업을 본받아 전국적으로 지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12년부터 유기농업을 포함하는 환경보전형농업 직접지불 추진 교부금이 시작되어 직불제가 도입되기에 이른다.

일본의 제휴

일본의 유기농업 역사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제휴’의 방식은 유기농산물 인증 제도의 대안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일본에서 제휴는 1970년대에 야마가타현의 다카하타, 효고현의 이치지마, 치바현의 미요시무라 등 지역의 생산자 그룹이 동경, 고베, 요코하마 등 대도시의 소비자그룹과 안전한 농산물을 매개로 직접 만나게 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일본 유기농업 발전의 선구적인 역할을 해온 일본유기농업연구회(1971년 결성)는 1978년에 개최된 제4회 전국유기농업대회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제휴의 방법’이라고 하는 제휴의 열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80년대에 제휴를 통한 유기농업은 지방의 도시에서도 유기농산물을 요구하는 소비자그룹이 생겨나면서 지역의 다양한 생산자 그룹과의 제휴운동으로 확산된다.

90년대에는 이러한 단체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지역 특성과 참가자들에게 맞는 다양한 제

휴의 형태와 운영방식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제휴의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유기농업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000년 이후 일본의 제휴는 이를 주도했던 소비자단체 내외부적인 문제 즉, 활동의 주역이었던 리더의 고령화와 사회적 운동을 이끌어 온 전업 주부의 감소 및 직장 여성의 증가 등으로 운동적 요소가 크게 사라지게 되면서 제휴 자체의 정체기 및 쇠퇴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소비자단체의 주도가 확연히 줄어들었음에도 제휴를 지향하는 개인 소비자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자와 일대일 관계를 통한 제휴 관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소비자단체라는 매개를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생산자와의 제휴가 활발하던 이전과는 달리 본인의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지역 내에서의 제휴가 활발해져 ‘지역’이라는 요소에 집중하는 특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현재 일본의 제휴를 통한 유기농산물의 유통은 지역 안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4) 연대를 위한 세계적인 움직임

현재 세계적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거리를 줄이고 직접 만나는 과정을 통해 연대를 구축해 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 초반 유기농업이 시작되는 과정에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얼굴과 얼굴이 보이는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제휴(TEIKEN⁵¹⁾’를 추구해왔으며 지금도 일본의 유기농업을 대표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90년대 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지역이 지지하는 농업), 2000년대 초기부터 시작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AMAP(Associations pour le Maintien d’ une Agriculture Paysanne: 농업과 농민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와 스위스의 ACP(Agriculture Contractuelle de Proximite: 생산자와 소비자 근접 계약 농업)를 통해 지역의 농가와 농업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연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제3자 기관에 의한 유기인증 제도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움직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51) 일본의 ‘제휴’는 영문으로 TEIKEN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고유명사가 되어 있다.

(IFOAM: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⁵²⁾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생산자의 인증에 참여하고자 하는 PGS(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s: 참가형인증 시스템)를 보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기농업의 가치인 생태계의 보전과 장기적인 경제적 지속성, 그리고 사회적공정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인증과정에도 참가함으로써 보다 더 ‘지역’에 초점을 두어서 양자 간의 신뢰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유기농업운동을 추진해 온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PGS의 활동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인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PGS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소비자에게 유기농산물에 대한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유기인증제도는 본래 유기농업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가치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였다. 이는 ‘안전농산물’이라는 성능 중심의 품질 정보만을 중시하게 되어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환경과 인권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 ‘윤리’적인 가치를 중시하고자 하고 있다(中嶋, 2004). 예를 들어 도상국의 아동 노동의 억제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고 받자는 취지의 공정무역(Fair trade), 상품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등이 잘 알려진 윤리를 바탕으로 한 경제 활동이라고 하겠다.

윤리적 요소의 포함 여부는 인증제도에 따라 다르다. 커피의 경우에는 다양한 인증제도가 운용, 실시되고 있으며 이 제도들은 생산자의 노동 조건과 최저 생활 수준의 유지, 환경을 배려한 농법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인증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와 같은 윤리적 요소는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어 이것이 상품의 브랜드 이미지와도 밀접히 관련된다. 최근 영국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윤리적소비(Ethical Consumerism)’는 인간적 권리(Human rights)나 동물복지(Animal welfare), 환경보호 등을 중시여기는 소비자층이 윤리적 기준으로서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를 판단하는 소비행동을 잘 보여준다. 유기농업도 이제는 기존의 인증제도를 활용하면서도 이러한 윤리적인 요소를 농가그룹 내에서 부가하는 작업을 통해 소비자의 연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52) 1972년에 세계 각국의 유기농 소농들의 연대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2. 흥동 유기농업의 특징

흥동 유기농업의 시작과 성장 과정 및 흥동면 문당리 문산마을 유기농업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한 사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흥동 유기농업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공동체: 단합

흥동 유기농업의 첫 번째 특징은 지역공동체로 대변되는 단합이다. 흥동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지역공동체적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마을 단위의 요소이고, 또 하나는 마을을 넘어선 흥동이라는 단위의 공동체적 요소로 다양한 농가조직 설립의 형태로 나타난다.

흥동의 문당리 문산마을과 같이 마을 단위에서는 지리적인 영역성이 나타나며, 심리적 영역성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나 의식의 공유가 마을 단위를 넘어 농가 간에 형성되는 흥동 전체의 대표성으로 나타난다. 크게 보자면 후자의 경우에도 큰 틀에서 ‘흥동’의 지리적 영역성을 띠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마을 단위의 지리적인 영역성과 흥동 전체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영역성으로 구분하여 지역공동체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지리적 영역성: 마을

우리나라의 농촌은 자연부락, 즉 마을이라는 단위를 통해 ‘마을 일’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각각의 마을은 다른 마을과 구별되는 정보 및 의견 공유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산이나 강, 하천 등 자연생태계의 영향을 공통적으로 받는 지리적 특성은 마을 간의 경계로 작용하여 그 너머의 마을과의 교류 및 정보의 공유를 어렵게 하였을 것이다. 흥동의 유기농업도 문당리, 금평리, 화신리, 운월리로 이어지는 평야의 경우에는 확산되는 정도와 이해도가 비슷하였으나 산을 넘어야 하는 마을의 경우에는 잘 전파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⁵³⁾.

이러한 기본적인 농촌 마을의 정서를 바탕으로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들이 가장 중시한 것은 ‘단합’이었다. 홍동면 문당리 문산마을의 사례 조사 결과, 문당리에서 유기농업을 처음으로 실천하게 된 대부분의 농가들의 계기는 ‘주위에서는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폐가 될 것 같았다,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 생각이었다. 더불어 ‘유기농업을 통해 마을이 하나로 단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했다. ‘단합’이란 지역공동체 혹은 마을공동체라는 의미로 대변되는 가장 보편적이고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가치로 생각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농가들의 기본적인 정서는 유기농업을 하지 않은 농가, 더 엄밀히 말하면 유기농업을 했으나 도중에 그만 둔 농가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나타나며, 이는 문당리 문산마을 전체의 단합을 유지하는 한편, 나아가 유기농업을 지속해올 수 있었던 밑바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⁵⁴⁾. 이러한 단합이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실천의 바탕이 되어 문당리를 넘어 홍동으로 확장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심리적 영역성: 협동조합 및 농가조직

이러한 단합의 요소는 홍동 유기농업의 확산 초기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처음 유기농업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는 개인의 철학적 신념 등이 강하게 작용하여 주위의 비호의적인 분위기에서도 몇몇 농가가 유기농업을 실천하게 된다. 당시에는 유기농업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였으므로 많은 농법들을 직접 만들어 실행해가면서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다가 하나 둘 마음이 맞는 유기농업 실천 농가들 간에 교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것은 문당리 문산마을과 같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형태에서 이루어진 마을 단합적 요소는 아니지만 같은 의식을 가진 농가 간에 끈끈한 연대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홍동에는 유기농업 초창기부터 협동조합적 요소를 가진 다양한 농가조직들이 하나 둘씩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동일한 문제 의식을 가진 농가를 포함한 주민들이 모여 함께

53) 홍동의 관련자 인터뷰 과정에서 이것이 ‘홍동천’ 문화권을 조성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54) 이러한 마을공동체 정신은 항상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금방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농촌마을의 강력한 마을공동체 정신으로 인해 마을 단위의 공동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유기농업을 실천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기도 한다. 춘천의 한 유기농 포도 농가는 유기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농약을 쓰는 게 일반적인 포도로 유명한 고향을 떠나 춘천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고민하고, 함께 출자해서 꾸려가보자는 정신이 바로 흥동 내의 다양한 협동조합 및 농가조직의 기본적인 철학이었다고 하겠다. 그것이 지역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유기농업’이라는 공통된 의식 속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조직들이 도중에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해갈지언정 농가조직의 설립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인식이 공유되는 순간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실천력이 따라 주었다. 이러한 즉각적인 액션은 흥동의 정신적인 기반이기도 한 풀무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각종 협동조합의 다양한 실험들로부터 학습되어 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형태의 다양한 협동조합적 요소를 가진 단체의 설립은 현재에도 흥동의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의료조합에서 나아가 지역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스스로 만들기 위한 경제협동체, 즉 지역은행격인 도토리회가 창립되었다.

2) 소비자와의 연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나아가 생산자와 시민과의 적극적인 연대는 흥동의 유기농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유기농업이 시작된 1980년대 후반에는 흥동의 생산자가 서울에 직접 쌀을 가지고 올라가 거래하는 방식으로 농산물이 유통되었고 1992년부터는 소비자가 흥동을 방문하여 메뚜기 잡기 등의 ‘가을걷이’ 행사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소통이 이루어졌다. 1994년에 도입된 오리농법의 경우, 도시민이 보내준 오리값으로 오리농법의 생산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것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생산자-소비자 간의 유대와 소통이 환경과 안전, 지역을 생각하는 유기농업의 철학을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흥동 유기농업의 큰 전환점이 된 1994년의 상황을 엄밀히 따져보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유기농업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가 확연하게 존재한다. 당시 흥동의 유기농업 실천 농가는 사상과 철학적인 측면에서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신념 아래 유기농업을 이해하고 또 실천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소비자의 경우, ‘무공해, 무농약’이라는 개념만이 자리잡기 시작하던 시기로 유기농업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유기농업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안전’ 하고도 ‘건강’ 한 먹거리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공통적인 목표가 ‘오리농 쌀’로 구체화되어 행동으로 발전하였으며, 그 근간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두 집단 사이에 쌓인 ‘신뢰’가 존재하였다.

‘신뢰’라는 것은 지속적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가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신뢰관계라도 한번의 작은 실수로도 회복불가능한 상태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던 흥동의 유기농업 생산자들이 소비자와의 신뢰를 지속하기 위해 유기농업의 철저한 실천에 만전을 기했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소비자들 또한 믿을 수 있는 생산자 그룹으로부터 안전하고도 건강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일은 간단한 작업이 아닐 수 있다⁵⁵⁾. 더욱이 유기농업을 포함한 친환경농업 인증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인 당시에는 안전한 먹거리를 구하는 일이 더욱 어려웠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자 측은 농산물이 안전하게 재배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어하게 되고 소비자들 역시 수고를 무릅쓰고라도 직접 농장을 방문하여 생산자 환경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흥동의 초기의 유기농업에는 일찍부터 이러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구축 과정이 존재하였으며, 그 과정 중에 발생한 여러 가지 형태의 생산자-소비자 간의 교류는 흥동의 유기농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신뢰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3) 지역환경과 안전한 먹거리

흥동 지역의 초창기 유기농업에는 지역환경보전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여러 곳에서 눈에 띈다. 농가 인터뷰 중 ‘유기농업은 생명을 지키고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라 믿고 실천해왔다’고 하는 구절이나 ‘유기농업의 기본은 흙과 토양 만들기’이며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것이라는 믿음과 자부심은 흥동 유기농업 실천 농가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치이자 대표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당시의 농업은 다수확 생산 위주의 농법으로 농약과 제초제 및 화학비료로 인한 자연 생태계 파괴와 토양의 산성화 등이 발생하였으며, 농가들에게는 ‘땅심외 소실’이라는 직접적인 피해로 나타났다. 더불어 살포 과정 중 농약과 제초제에 의한 건강상의 피해 역시 농가가 가장 먼저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건강에 대한 우려는 유기농업으로 전환하

55) 일본에서는 1980년대 후반 유기농업 붐이 일어나면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유기농업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약덕업자들에 의해 가짜 유기농산물이 유통되는 등의 과정을 겪기도 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유기농업 인증제도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초창기 유기농업 실천 농가들에게 유기농업의 도입이 가지는 의미가 단지 경제적인 번영이었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지속적인 유기농업의 실천이 유지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홍동의 초창기 유기농업의 성공은 철학적 신념에 기반을 두고 그 신념이 다양한 농법적인 시도로 이어지며, 이러한 노력이 공통된 신념을 가진 농가 간에 공유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여기에 소비자를 포함한 도시민과의 교류를 통해 유기농업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었고, 더 나아가 그러한 공감대에 대한 확신은 농가 간의 단합을 더욱 더 강하게 하는 구심점이 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 바탕에는 그들이 실천하고 있는 유기농업이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농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물론 소비자들에게까지 안전한 먹거리로 연결되고 있다는 믿음이 자리잡고 있었다.

3. 홍동 유기농업의 과제

홍동은 유기농업의 성공적이고 모범이 되는 사례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동의 유기농업이 지속되고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과제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홍동마을 유기농업 관련자 및 문당리 문산마을 농가 인터뷰를 통해서 나타난 홍동 유기농업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해결 과제와 현안들은 다음과 같으며 그 해결책을 홍동 내부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다.

1) 오리농법

내부적 과제

초창기 많은 농가들이 유기농업을 해나가는 가운데 가장 힘들어한 부분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제초 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부담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오리농법의 도입은 유기농업이라는 새로운 농법에 따르는 제초의 부담을 상쇄시키는데 획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직접 손으로 풀을 매야하고 병충해에 대한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일반 농가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오리가 이를 대신해 줄 수 있다는 인식은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이 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오리 사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함께 고령화된 농가들에게 오리망의 설치와 같은 노동은 높은 강도로 다가왔다. 더불어 조류독감에 대한 피해는 오리의 폐사뿐만 아니라 경작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어 농민들이 오리농법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같은 오리농법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우렁이 농법은 오리농법을 포기하는 농가의 증가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동의 오리농법은 유기농업의 전국적인 확대의 매개체 역할을 하였으며 여전히 홍동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오리농 쌀의 메카로 일컬어지는 홍동이 어떻게 오리농법의 명맥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방안의 모색이 절실하다. 현재 홍동농협과 같이 오리농법 의무조항을 제시하여 제도적으로 그 상징성을 지속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힘들더라도 오리농법 자체를 유지, 시행해 나갈 것인지, 또 그 외에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홍동의 선택은 충남과 그 외 지역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오리농법 유지를 위한 고민은 농가의 소득 또는 홍동의 상징성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문당리 농가들은 7~8년 이상 오리를 이용함으로써 땅이 재기능을 되찾고 미생물들이 살아나면서 토질이 확연히 좋아지는 것을 경험했다. 이와 같은 토지의 변화는 이후에 우렁이 농법만으로도 제초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였으며 나아가 안정적인 농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따라서 오리농법에 의한 혜택은 비단 농가나 지역의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생태계⁵⁶⁾의 기능을 자연생태계에 더욱 가깝게 복원시켰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생태계의 일부인 농가들이 이를 선형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음은 대단히 중요하다.

오리는 단순히 제초의 기능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과의 정서적인 교감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오리 입식 행사에는 많은 도시민들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어린 참가자들에게 농업과 자연과 생태에 대한 교육적 효과는 매우 컸다. 이와 같이 오리농법이 홍동의 유기농업에서 가지는 의미는 소득과 농법을 넘어서 농업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들과 이어져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56) 특히 이것을 순치생태계라고 한다. 생태계(ecosystem)는 특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들과 그 생물들이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을 합쳐서 일컫는다. 이러한 생태계는 크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져서 태양의 힘에 의해서 그 기능이 유지되는 자연생태계(natural ecosystem)와 인간이 만들고 인공적으로 그 기능이 유지되는 인공생태계(artificial ecosystem)로 구분할 수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 자연생태계와 인공생태계 사이에 반자연생태계(semi-natural ecosystem) 또는 순치생태계(domestic ecosystem)를 정의하기도 하는데 농업, 산림업, 양식업 등을 위하여 인간이 자연생태계에 변형을 가하여 인간이 필요한 생물을 산물로서 얻으면서 관리해가는 생태계를 말한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참고).

외부적 과제

농가들은 농번기가 지난 후 오리를 처리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사용된 오리는 고기로 사용하게 되더라도 일정 기간은 다시 살을 찌워야 했으며, 이와 같은 사육 과정은 농번기 중의 오리 관리와 함께 농가에게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즉 오리농법에는 오리를 오리고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사육 과정이 필요하였으며, 이는 농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오리의 중간 사육 과정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브랜드화 된다면 친환경적인 상태에서 사육된 오리고기는 프리미엄화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들이 함께 다녀갈 수 있는 오리농장을 충남도 차원에서 만들어 ‘오리농 유기농 쌀을 지어낸 오리들’ 이라는 브랜드를 실시한다면 충남은 ‘유기농 오리의 고장’ 이라는 지역 특산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법 차원을 넘어선 오리가 가지는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바탕되어야 한다. 단순히 오리농장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의 집계나 제조 작업을 하는 오리의 역할 외에도 토양의 복원과 같은 오리의 다원적 기능이 잘 설명되어야 방문객들에게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오리가 충남의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즉 오리를 중심으로 한 생태충남의 이미지 형성이 프리미엄 브랜드화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 하겠다.

홍동의 오리농법은 문당리에서 시작되어 충남의 여러 마을로, 나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하나의 큰 축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전국적으로 오리농법이 사라진 상태이다. 이러한 시기에 다시 문당리에서 오리가 가지는 의미를 되새겨보고 나아가 충청남도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오리농법의 본고장인 홍동을 품고 있는 충청남도의 응당한 역할이라 하겠다.

2) 후계자 문제

내부적 과제

홍동면 문당리에서 유기농업을 해 오던 농가들은 이미 고령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문당리 문산마을의 인터뷰 대상 농가들의 평균 나이는 71세였으며 80세 이상인 농가도 셋이나 되었

다. 이미 고인이 된 농가는 네 명이 있었다. 이는 문산마을에서 유기농업이 시작된 1999년 무렵의 농가 평균 나이가 56세였음을 뜻한다. 대부분의 농가는 자손이 농업을 이어받지 않아 유기농업 시작 때부터 현재까지 부부가 농사짓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평균 연령이 71세에 달한 문당리 농가의 후계자 문제는 문당리의, 나아가 흥동면의 유기농업의 명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의 농업’에 대한 공통적인 대답은 ‘지금 나는 몇 년간은 관찮을 테지만 그 후에는 누가 농사를 지을지 걱정이야’라는 것이었다. 다행스럽게도 흥동에는 귀농을 결정하고 마을로 돌아온 후계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의 속도를 늦추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한편 흥동은 타 지역으로부터 많은 귀농자들이 정착하는 곳이기도 하다. 타 지역의 귀농자들은 유기농업에 매력을 느낀 사람들로, 흥동에 정착 후 기본적으로는 유기농업을 통해 자급자족을 이루는 한편 다채로운 사회적 활동들을 통해 자신들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또 실현해가고 있다. 특히 장곡의 경우 이미 많은 젊은 귀농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유기농업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⁵⁷⁾.

문당리의 경우에도 최근에 젊은 귀농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두 개의 단체가 자리를 잡게 되어 젊은 농가의 증가는 귀농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마을의 새로운 인력의 유입은 그들에게 적절한 역할을 제시하여 젊은 농가를 활용한 흥동 후계자 문제의 해결책과 직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흥동은 다른 농촌 마을들이 시도해보지 못한 다양한 도전과 실험들이 계속되어온 곳이다. 이와 같은 흥동의 문화적 토양은 고령화되어가는 흥동 유기농업의 후계자 문제를 흥동의 귀농 정책으로 연결지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제 조금 더 지나면 흥동에서 초창기 유기농업 실천 농가들의 역사를 듣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올 지도 모른다. 그들의 초창기의 경험은 어떠한 측면에서건 처음 시작하는 귀농자들에게는 표본이 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초창기 유기농업 실천 농가와 젊은 귀농층이 어떻게 함께 유기농업을 지속해갈 수

57) 조사과정을 통해 흥동의 많은 귀농자들을 접하는 기회를 얻기도 하였으나 본 연구의 목적상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으로서 제외하게 되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문당리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마을에 정착하는 일은 주택과 농지의 문제로 인해 매우 힘든 일임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비교적 주택과 농지 면에서 여유가 있는 장곡면에서의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렇게 모인 귀농자들 간의 네트워크로 인해 장곡면에서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있을지 그래서 흥동에서 계속해서 유기농업의 실천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외부적 과제

농촌 마을의 고령화와 후계자 문제는 비단 한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다. 흥동의 유기농업 실천 농가들에게 있어서도 고령화로 인한 노동의 과중한 부담과 농업을 믿고 맡길 후계자와 관련한 문제는 큰 과제로 남아있다. 내부적인 차원에서의 노력과 더불어 지자체 차원의 해결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유기농업을 실천하고자 농촌 마을로 유입되는 귀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는 귀농인구는 농법 이외에도 교육과 자체적인 활동으로 기능하는 커뮤니티, 그리고 자연환경을 모두 포괄하여 귀농을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화된 농가와 귀농 인구를 연결해 주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귀농귀촌 인큐베이터 사업으로서 빈 방을 내어주고 실제로 몇 달에 걸쳐 유기농업을 실습해 보는 프로그램은 마을의 토착 농가와 귀농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또 이것은 결과적으로 힘들게 농사짓는 고령 농가에게는 노동력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처음으로 마을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낯선 귀농자들에게는 선배 농부에게서 다양한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소비자와의 교류

내부적 과제

마지막으로 흥동의 과제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소비자와의 교류에 대한 부분이다. 소비자와의 연대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흥동 유기농업의 형성과 변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었으나 한편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흥동은 소비자를 포함하는 도시민과 직접 만나는 ‘가을걷이’라는 행사를 통해 교류의 장을 열기 시작하였으며 도시민과의 연대를 중시하는 이러한 측면은 오리농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이 후에도 소비자를 포함한 도시민과 함께 하는 오리 넣기와 가을 나눔의 잔치 행사를 통해 오리

고기를 나누고 수확제를 즐기는 행사가 매년 이어졌다. 그 중에서도 오리를 논에 넣는 행사는 도시민들이 오리를 직접 접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교감과 오리를 통한 다원적인 가치에 대한 공감, 그리고 이를 통한 교육적 효과를 동시에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조류독감을 계기로 오리 농법을 포기하게 되면서 이러한 오리를 통한 교류 행사는 몇 년간 그만둘 수 밖에 없었으며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홍동의 오리농 쌀은 농협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였으며 이는 생산자 입장에서 안심하고 지속적인 생산 태세를 갖추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으로 이는, 오리농 쌀에 대한 ‘신뢰관계의 구축’ 활동을 홍동농협이 대신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⁵⁸⁾. 이와 같이 양자 간의 신뢰관계가 이미 안정적으로 자리잡혔다고 인식되는 순간,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작업은 배제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더 이상 홍동의 유기농업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지 않게 되며, 홍동마을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홍동마을 브랜드’ 만으로도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 도시민과의 교류의 장이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인증제’의 확립에 의한 원인도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면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연스레 그 두 집단의 관계는 멀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생산자 소비자 간의 배려와 충성심의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홍동만의’ 소비자 팬들을 확보하는 일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유기농산물 시장의 확대와 함께 지역 간, 농가조직 간 경쟁구도가 심화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 싸고 질 좋은 유기농 쌀들이 제공되었을 경우 불특정 소비자들이 홍동의 유기농 쌀을 계속해서 구입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을 단지 안정적인 판로의 확보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홍동만의’ 소비자그룹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은 체험활동이나 선진 견학지로 마을을 찾는 방문객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홍동이 그간에 오랫동안의 시간과 노력을 통한 교류로 쌓아온 경험을 살려서 이제라도 홍동을 제품 이상의 가치로 이해하는 팬들을 확보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방안이 홍동 내에서 고민되어야 한다.

외부적 과제

58) 이것은 초장기에 형성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관계와는 그 형태와 특성을 달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양자간의 신뢰관계가 어떻게 변형되어 갔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홍동의 소비자는 크게 보면 충남 지역의 소비자로 가깝게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소비자일 수도, 멀게는 충남을 찾는 소비자일 수도 있다. 이는 홍동의 오랜 경험을 통해 만들어낸 소비자 교류가 단지 홍동 지역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전자의 경우 지역 소비자를 확보하는 일은 지역 먹거리의 소비를 지역에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로컬푸드와 진정한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먹거리가 식탁에서 먼 곳에서 올수록 환경부하가 더욱 크게 발생한다는 푸드 마일(Food mile)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다. 또한, 먼 지역으로부터 충남을 찾는 후자의 경우, 충남 지역 브랜드에 대한 팬 층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홍동 유기농업으로 충남을 찾는 소비자들을 위해 충남은 유기농업 이외에 농촌관광이나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지역의 매력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충남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홍동은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역사와 함께 해 온 곳으로 유기농업의 메카로 불리는 곳이다. 초창기 유기농업 단체인 정농회의 많은 회원들은 이곳에서 유기농업의 뜻을 함께 하였으며 오리농법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리농법을 정착시킨 정농회 회원들은 대한민국 유기농업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으며 전국적으로 유기농업이 확산되는 계기와 근간을 마련하였다. 오리농법의 확대는 전국 유기농업단지 어디에서나 오리집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붐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오리농법은 토질을 살리기 위한 유효한 방법 중 하나로 후에 우렁이 농법을 통한 제초가 가능한 토양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4년 9월에 홍성군은 국내 최초로 유기농업특구로 지정되었다. 지역특구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설정해 선택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로 ‘유기농업특구’ 지정은 홍성군이 처음이다. 2013년말 기준 홍성군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재배면적은 717ha로 이 가운데 유기농업 인증 재배면적은 전체의 약 81.7%인 586ha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친환경농업인증 재배면적 대비 유기농업인증 재배면적 비율로는 전국 최고치이다(홍성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015).

본 연구는 이러한 홍동의 유기농업이 어떻게 시작되어 형성되고 변천되어 왔는지 살펴봄으로써 홍동의 유기농업의 특징과 향후 해결과제를 찾아보고자 실시하였다. 홍동에서 타 지역보다 앞서 1970년대 후반에 유기농업이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여러 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노력과 실천으로 현재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홍동의 유기농업이 선진적 사례로 여겨지는 이유를 찾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타 지역의 오

리농법이 흥동마을만큼의 명성을 얻지는 못한 이유와 그로부터 오리농법의 도입 이외에 성공적인 유기농업에 필요한 인자들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흥동마을 문당리의 사례를 통해서 밝혀진 흥동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농가들의 단결을 이끌어낸 마을공동체의 역할이다. 같은 마을의 의사 결정, 주변 농가들의 동향 파악, 그리고 자신이 참여하는 시점 등에 대한 고민이 문당리의 경우 동료 농가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본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⁵⁹⁾. 또한 이와 같은 영역성이 흥동의 경우, 마을을 넘어서는 지역 단위에서도 발견되었으며 그로부터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다양한 농가 조직의 설립으로 연결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흥동에서의 오리와 흑미의 도입은 하나의 수단과 과정에 불과하였다. 흥동에서의 유기농법 정착의 보다 근본적인 성공 요인은 생산자들이 주도하여 이루어낸 도시민과의 결합과 연대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업을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소비자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소비자가 믿고 안전한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생산자로 인식되어짐을 뜻한다. 양자 간의 이러한 관계의 바탕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흥동의 유기농업의 성공 요인 중 다른 하나는 이와 같은 소비자-생산자 간의 성공적인 신뢰관계 구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연대가 바로 오리와 흑미의 도입이며, 이는 단기적인 경제적인 성공이 아닌 지속적인 유기농업의 실천에 필수불가결한 원동력임을 알 수 있다.

초창기 흥동 유기농업에서 나타나는 원동력들은 충남의 다른 지역의 유기농업 발전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초기 흥동에서 이루어낸 지속가능한 유기농업의 근본적인 요소들에 대한 교훈과 학습은 타 지역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전국적으로 유기농업이 증가하는 현 추세를 감안할 때,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유기농업을 달성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 제시되더라도 흥동이 보여준 주민들 간의 연대와 소비자와의 신뢰구축은 그 저변에 존재하는 성공을 위한 공통요소임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령화와 더불어 흥동의 유기농법은 최근에 상징성만이 남게 되었으며,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흥동에서 오리는 단지 유기농법의 한 방편을 넘어 정서적이고도 교

59) 이러한 마을공동체의 단합이라는 요소는 동북 태국의 유기농업의 사례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생산자그룹이 주체가 되어 유기농업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육적인 차원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리농법이 가지는 유기농업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소비자를 포함한 도시민과의 교류에서 오리농법이 지닌 정서적,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이 사라지고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는 흥동 미래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흥동 유기농업의 형성 및 변천 과정에서 보여지듯이 지역 내 공동체의 공통된 가치가 얼마만큼 충분히 이해되어 공유되고 또 유지가능할 것인지에 따라 성공적인 유기농업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유기농업만이 아니라 한국의 농업과 농촌이 직면해있는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선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기존의 혹은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던 농업과 농촌에 대한 가치가 다음 세대에게 충분히 전해지지 못하고 있거나 다음 세대를 움직이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점이 농업과 농촌으로부터의 거리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흥동으로 돌아오면 현재 흥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토착농민과 귀농인들과의 거리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유기농업에 대한 가치와 의식이 세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며 유기농업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이상향의 차이만큼 양자간의 거리감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흥동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가치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정책제언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충남이 유기농업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연대를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이 행정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차원의 자생적이고 자연스러운 만남은 연대의 시작을 의미한다. 지역의 생산자와 지역의 소비자가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기회의 확대는 자립적인 지역경제 구축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크다. 이를 위해서는 주말 장 등을 여는 방법을 통해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유기농업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소비자 참여형 작업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함으로써 유기농업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급식에 대한 홍보와 농업의 교육적, 가치적 접근이 이루어지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서로 가까운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믿고 소개해주는 중개자적 역할을 직접적으로 해주는 방법도 제안하고자 한다. 일본유기농업연구회라는 단체는 유기농업을 하는 농가와 지역 소비자가 직거래를 하도록 소개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신력 있는 제3자의 중개가 필요한 이유는 생산자 스스로가 가까운 지역에서 지속적인 구매를 해 줄 소비자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며, 소비자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생산자를 확보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도 AMAP(Associations pour le Maintien d'une Agriculture Paysanne: 농업과 농민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은 자체적으로 제작한 믿을 수 있는 유기농업 생산자의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40~50명으로 구성된 소비자그룹의 요청 시 리스트에서 소비자그룹과 가장 가까운 생산자를 직접 중개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충남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홍동에서의 오리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재인식은 이미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홍동에서 오리가 가지는 의미는 농법적인 측면을 넘어서 교감과 정서, 그리고 교육적인 차원의 다원적 접근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충남은 지역 브랜드와 이미지에 보다 포괄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충남은 오리농법을 전면에 내세운 '유기농업의 메카 홍동'이라는 키워드의 구축 및 활용이 가능한 행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는 홍동뿐 아니라 충남 전체의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고령화는 단순히 후계자 문제라기보다는 농촌 지역의 인적 인프라의 문제이며 따라서 귀농자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귀농자들을 충남에서 어떻게 정착시키고 또 활용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홍동 내에서의 진지한 고민과 시도들은 다시 충남의 선진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지원들이 가능할지,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정책적인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

위의 세 가지 문제는 하나로 연결된다. 이를 단계적 차원에서 다시 정리해보면 '홍동 오리'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은 당장 홍동의 고령화된 농가들이 느끼는 오리농법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는데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초기 오리농법을 도입한 농가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형성되어오고 자리잡게 된 충남 홍동의 오리농법을 충남의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지원이 시급하다.

충남 브랜드와 관련된 문제는 결국 소비자 연대의 문제와 직결되며 이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현재 유기농산물 시장은 전국적으로 확산,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안전

한 농산물과 지역환경보전이라는 가치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뜻하며 앞으로 더욱 커져갈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한 경쟁체제 가운데 충남의 유기농업이 어떻게 다른 지역의 유기농업과 차별화되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충청남도 차원의 노력으로는 다원적 가치로서의 오리농법을 지켜냄으로써 이를 지지하는 소비자와 지속적으로 연대를 구축, 확대해 나가는 정책적 지원을 기획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소비자와의 연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산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흥동 유기농업은 지역공동체로 나타나는 단합의 요소만으로는 곧 한계점에 달할 것으로 여겨진다. 젊은 수혈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농촌마을에 젊은 노동력을 안착시켜 생산에 필요한 인적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귀농자들은 토착농가들에 비해 젊으며, 그들은 오리를 사육하고 기르기에 아직 충분한 노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기본이 되는 농가 인터뷰 가운데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는 언급이 가장 많았다. 개개인 농가들은 지금까지는 흥동에서 유기농업을 함께 해 온 마을공동체의 일원이었으나 인터뷰를 하기 위해 그들 개개인을 만나가면서 흥동에서 유기농업을 실천해 온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 ‘누가 한낱 농민인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섞인 인사말에서부터 인터뷰는 시작되었지만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전체의 작은 일부가 아닌 내가 주인인 농가의 역사를 들을 수 있었다. 이것이 본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하였던 흥동마을 전체의 유기농업에 대한 역사가 아니라 흥동마을에서 유기농업을 실천해 온 개인 농가의 역사에 초점을 두고자 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장밀착형의 조사 연구는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변화의 주체인 농민들에게 유효하고 효율적인 제도적 지원을 기획,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현장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의 형성은 경제성 이전에 농가들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⁶⁰⁾. 흥동 유기농업의 초기 참가자의 역사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록으로서 큰 가치를 가진다⁶¹⁾.

60) 충남도에서는 ‘3농 혁신’ 정책을 통해 ‘농어업인’이 주체가 되어 ‘농어업’을 통해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해가고자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과정 중 하나로 매달 ‘3농 대학’을 열어 관련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농민들이 직접 함께 참여함으로써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기회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61) 현재 유네스코에서는 ‘Local and Indigenous Knowledg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토착민의 지식에 높은 가치를 두고 이를 기록하는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및 토착 지식’이란 자연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오랜 역사와 사회에 의해 개발된 이해와 기술 및 철학을 의미한다.

(<http://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priority-areas/links/> 참고)

초창기 홍동에서 자연적인 경계의 영향으로 타 지역과의 정보 공유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인 지금은 지리 조건에 의한 정보의 단절이 전무하며 그 파급 속도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초기 홍동 유기농가들의 이야기가 아카이브화되어 그들의 시행착오를 포함한 정착까지의 전 과정이 공유될 수 있다면 귀농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정착 초기의 귀농인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초창기 홍동의 유기농업 실천 농가들이 고령화되어간다는 점에서 더욱더 이런 작업들이 서둘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화 작업이 바로 도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구축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되어진다.

참고문헌

김정섭(2013), 농촌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협동조합: 홍동면 사례 연구, 농촌사회 제23집 2호, pp.173 ~ 223

김호, 조완형(1995), 유기농산물 생산의 특성과 경영소득 분석 : 충남 홍성군 홍동면 풀무생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국유기농업학회지 4(1), 한국유기농업학회

김홍주(2008), 풀무생협 생산자의 사회경제적 성격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학회지, 18(1), 한국 농촌사회학회, pp.43-89

송두범 외(2013), 협동조합의 정체성 및 지역사회기여 강화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전략연구 2013-09

주형로(2000), 지속적 환경보전 농업에 따른 오리농법, 한국유기농업학회 2000년도 상반기 심포지엄, pp.151~166

풀무교육 5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풀무교육 50년 다시 새날이 그리워 1권, 2008

풀무교육 5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풀무교육 50년 다시 새날이 그리워 2권, 2008

허남혁(2009), 생협 생산자 조직의 생산-소비관계 변화 : 홍성 풀무생협 사례 연구, 농촌사회, 19(1), 한국농촌사회학회, pp.161~211

홍동마을 사람들(2014), 마을공화국의 꿈, 홍동마을 이야기, 한티재

홍성환경농업마을(2000),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 계획, 서울대학교 용역 보고서

후루노다카오(2006), 농사를 재미있게 짓는 총합기술 : 오리농법, 그물코출판사

희망제작소(2008), 작은 농부의 100년 계획서 : 오리농법의 선구자 주형로의 농사이야기, 푸른 나무

Kim, Kihueng(2009), Two Concepts of Sustainability: Evaluation of Organic Farming, *Organic Farming: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The Icfai University Press, India, pp.39~60

Nussbaum, Martha C(2000), *Women and Human Development: The Capabilities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abina Alkire(2002), *Valuing Freedom: Sen's Capability Approach and Poverty Re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Sen, Amartya K.(1992), *Inequality Examined*,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Sen, Amartya K.(1999), *Development as Freedom*, New York: Knopf Press

池本幸生・金氣興(2008), 有機農業とケイパビリティ・アプローチ, 国学院経済学, 国学院大学, 第56巻第3・4号, pp.437~481

金氣興(2009), 有機農業の役割と課題：日本と韓国の比較研究, 東京大学大学院, 博士論文

金氣興(2011), 地域に根ざす有機農業：日本と韓国の経験, 筑波書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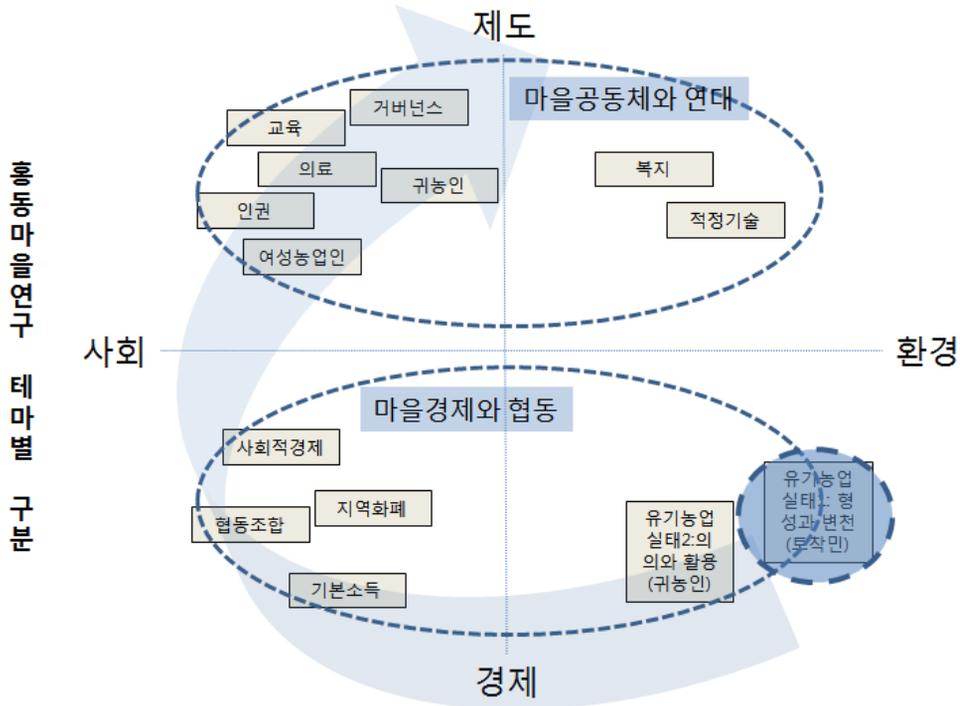
セン・アマルティア(1988), 福祉の経済学：財と潜在能力, 岩波書店

セン・アマルティア(2008), アイデンティティに先行する理性, 細見和志[訳] 関西学院大学出版会

中嶋康博(2004), 食の安全と安心の経済学, コープ出版

ヌスバウム・マーサ(2005), 女性と人間開発, 岩波書店

충남 홍동마을 연구의 전체 구상



홍동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홍동마을 연구를 테마별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면 위 그림과 같다. 크게 사회와 환경, 경제와 제도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 가운데 본 연구는 굵은 점선에 위치하면서 토착민을 중심으로 한 유기농업의 형성과 변천 과정에 해당한다. 다음 단계는 이러한 유기농업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활용될 것인지 귀농인들을 중심으로 알아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유기농업을 기본으로 마을 경제와 협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마을공동체적 요소들이 어떻게 연대를 이루어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혀둔다.

■ 집 필 자 ■

연구 책임 · 김기흥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전략연구 2014-41 · 흥동 유기농업의 형성과 변천

글쓴이 · 김기흥 /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15년 2월 27일 / 발행 · 2015년 2월 27일

주소·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14-140)

전화 · 041-840-1205(농촌농업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219

ISBN · 978-89-6124-289-9 03350

<http://www.cdi.re.kr>

© 2014,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